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效果分析

金泰保* · 高南旭** · 許香珍*** · 金性俊**** · 高承益*****

目 次

- I. 序
 - 1. 研究目的
 - 2. 研究範圍 및 方法
- II. 地域經濟의 效果分析에 대한 理論的 接近
 - 1. 地域經濟의 概念과 特性
 - 2. 地域經濟分析模型의 類型과 特性
 - 3. 地域產業關聯模型
- III. 濟州道 觀光動向 및 觀光產業의 現況
 - 1. 觀光產業의 概念定立
 - 2. 觀光動向 및 觀光產業의 現況
- IV. 濟州道 觀光客의 性向分析 및 觀光產業의 實態分析
 - 1. 濟州道 來道觀光客의 性向 및 觀光費用分析
 - 2. 觀光產業의 實態分析
- V.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效果分析
 - 1. 地域產業關聯表를 이용한 地域經濟效果分析
 - 2. 觀光所得의 推計
 - 3. 濟州道 觀光產業의 乘數 및 產業關聯效果分析
 - 4.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分析
 - 5. 濟州道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의 推定 및 經濟波及效果 分析
- VI. 要約 및 結論

* 濟州大 經濟學科 教授

** 濟州大 經濟學科 教授

*** 濟州大 觀光經營學科 副教授

**** 濟州大 行政學科 專任講師

***** 濟州大 觀光經營學科 時間講師

I. 序

1. 研究目的

濟州道가 地域開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다. 1970년대초 觀光主導型 地域開發을 목표로 濟州道綜合開發計劃(1973~1982)을 추진하였는데, 이 계획은 개발기본방향을 관광개발의 據點化로 과급효과를 제고하고 관광자원을 조화있게 개발하여 國際水準의 관광지로 조성하고, 모든 산업을 觀光主導型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道民所得增大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두었다. 이 개발계획에 따라 中文觀光團地造成 1차공사, 해수욕장 정비 등 觀光地開發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제주공항, 제주항의 확장 및 카페리 취항, 간선도로의 포장, 통신망의 확충 등 각종 基盤施設이 확충, 정비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目標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나 濟州觀光은 어느 정도 受容能力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1991년을 目標年度로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을 수립·추진하였는데, 이 계획은 觀光開發部門과 地域開發部門으로 나누어 中文, 城山浦, 表善의 3개 觀光團地와 26개 觀光地區의 開發과 도로, 항만, 공항의 정비 및 定住生活圈의 구축 등을 실현하는데 있었다. 그간의 投資實績에 의하면 産業振興, 社會開發, 地域開發部門은 당초 계획했던 目標를 실현하였으나 觀光開發은 民間投資의 부진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觀光開發事業은 지난 30여년간 濟州經濟의 성장과정에서 地域의 주요 開發政策 수단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投資에 대한 效果分析 등 體系的인 事後評價作業은 실로 미비한 실정이다. 그동안 관광주도형 지역개발을 추진한 결과 관광산업이 제주경제의 基本產業이 되었는데, 觀光產業이 濟州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濟州道 觀光所得이 濟州經濟에 구체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얼마만큼 주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觀光所得의 증가는 觀光產業 자체의 生産, 雇傭 및 所得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關聯이 있는 산업 및 濟州地域 全產業의 生産, 雇傭 및 所得에도 直·間接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觀光所得의 經濟效果分析은 地方化時代에 있어서 地域開發政策을 수립하기 위한 經驗的 資料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研究는 지난 30여년간 추진되어 온 觀光開發事業이 地域開發 차원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濟州觀光所得의 증대가 觀光產業 뿐만 아니라 他產業 및 地域經濟 全體의 生産, 雇傭, 所得增大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측정·분석하는데 있다.

2. 研究範圍 및 方法

이 研究는 濟州道 觀光所得이 觀光産業의 生産, 雇傭 및 所得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濟州 經濟 전체의 生産, 雇傭 및 所得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地域經濟效果分析을 위한 模型의 설정과 그의 適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의 效果分析을 위한 模型設定은 地域經濟分析模型의 類型과 特性을 검토하고 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分析模型으로서 非調查方法에 의한 地域産業關聯模型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地域産業關聯表를 작성함에 있어 細分類된 全國의 産業關聯表와 全國 및 濟州地域의 雇傭統計가 1986年度에 한해서 求得可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6년 기준의 全國産業關聯表를 통한 地域投入係數의 산출, 部門別 資料의 추계를 통하여 제주경제의 地域産業關聯表를 작성하였다. 模型 적용에서는 앞에서 작성된 地域産業關聯表를 이용하여 濟州道 觀光所得의 觀光産業 및 濟州經濟의 生産, 雇傭 및 所得創出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研究의 經濟效果 分析을 위한 2次資料는 정부간행물인 경제기획원의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人口 및 住宅센서스」,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내무부의 「住民所得年報」, 한국은행의 「産業關聯表」 및 「韓國統計年鑑」, 그리고 제주도의 「濟州經濟指標」, 「統計年報」 등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1次資料로서 3次에 걸쳐 실시된 國內外 觀光客을 대상으로 한 旅行性向 및 觀光費用 調查, 2次에 걸쳐 실시된 觀光産業 實態調查의 결과가 활용되었다. 여행성향 및 관광비용조사는 1991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친후, 同年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1차조사, 同年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2차조사, 同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3차조사로 실시되었는데, 內國人 觀光객 1,800명, 外國인 觀光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관광산업의 실태조사는 1990년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조사, 1991년 12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차조사로 실시되었는데, 조사대상은 全 觀光産業을 대상으로 195업체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이 중 89개 업체의 조사가 유효표본으로 확정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II. 地域經濟의 效果分析에 대한 理論的 接近

1. 地域經濟의 概念과 特性

地域經濟는 國家經濟를 형성하는 地理的 分割單位로서의 空間經濟이다.¹⁾ 世界經濟의 部分體係가 한 國家經濟이고 이의 一部分이 地域經濟이다. 다시 말하여 지역경제는 최소한 資源을 國土의 일부 空間上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체의 활동, 즉 생산, 소비, 교환, 分배의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地域經濟는 管理의 主體로 보면 크게 公共經濟와 私的經濟로 나뉘어 진다. 公共經濟는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이 행하는 경제로서 바로 地方財政을 지칭하고, 私的經濟는 家계와 企業에 의해 이루어지는 民間經濟를 의미한다.

地域經濟는 산업의 형태로 보면 1次産業, 2次産業 및 3次産業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서 1차산업은 농업·임업·어업으로 구성되고, 2차산업은 鑛業과 製造業으로 구성된다. 제조업은 재차 生産물의 종류에 따라 食品료 및 담배 제조업, 섬유 및 가죽, 나무 및 가구, 종이 및 인쇄업,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으로 분류된다. 3차산업은 社會間接資本과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地域經濟는 요소의 可動性으로 보아 固定部門과 流動部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부분은 自然資源과 固定施設로 구성되는 바, 자연자원은 토지, 하천, 임목, 지하광물과 같은 자연의 賦存資源을 말하고 고정시설은 건물이나 교통시설과 같이 地上에 부착된 시설을 말한다. 유동부분은 人力, 財貨, 貨幣, 情報 등과 같이 이동될 수 있는 것으로서 人力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이고, 재화는 生産과정에서 산출된 効用財이고 화폐는 필요한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購買力, 정보는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지식이다. 이들 요소를 機能으로 보면 자연자원은 原料의 供給源이고, 고정시설은 支援的 역할을 하며, 인력은 勞動用役의 기능을 갖고, 재화는 結果物이며, 화폐는 去來의 수단이고, 정보는 활동의 촉진제이다.²⁾

지역경제는 經濟活動의 기능에서 보면 基盤活動(basic activities)과 非基盤活動(non-basic activities)으로 나눌 수 있다.³⁾ 기반활동이란 타지역으로부터 화폐를 유입시켜 당해지역의 경제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수출활동이고, 비기반활동은 당해지역내의 경제활동을 유발시키는 地方的 활동이다.

이와 같이 地域經濟는 국가경제와는 달리 空間概念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地理的 空間上에서 최소한 資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生産, 交換, 分배 및 소비의 과정으로

1) 金安濟, “地域經濟水準 測定에 관한 研究”, 「環境論叢」 서울大 環境大學院, 1982, p. 4.

2) 「上揭書」, pp. 5~7.

3) Tiebout, C.M., *The Economic Base Study*, New York, Committee of Economic Development, 1962, pp. 3~10

이해되는 地域經濟는 자원의 空間的 配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이다. 이에 空間 내지 地域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經濟圈域(economic space)으로서 생산, 소비활동 또는 유통 체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확장한 공간적 범위를 뜻한다.⁴⁾ 이와 같은 경제권역은 同質性(homogeneity), 結節性(nodality), 計劃性(planning)의 기준에 의해 구획된다.⁵⁾

또한 地域經濟는 국가경제보다 더 開放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개념에 비하여 그 규모나 활동영역이 작으며 동일한 稅制, 貨幣單位, 法律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성을 띤다. 他地域과의 商品交易程度로 측정되는 개방성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地域規模와 地域間 距離에 역비례하는 경향이 있다.⁶⁾ 地域經濟는 그 자체가 부존하고 있는 土地, 天然資源 및 地理的 조건 등의 지역간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特化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의 空間的 分化現象을 地域主義(regionalism)라 일컫는다.⁷⁾ 이와 같이 지역경제는 開放性을 가짐과 동시에 地域主義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부여받고 있어서 지역간 교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보다 特化된 지역생산을 가능케 한다. 이같은 地域特化生産은 상대적으로 比較優位性을 가져오게 한다.

地域經濟는 경우에 따라 國家經濟의 정책목표와 相衡關係(trade-off)의 특성을 갖는다. 지역 경제정책목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민경제성장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效率性을 높이는 일이며, 둘째는 地域間 성장 및 福祉의 격차를 줄이는 衡平性을 진작시키는 것이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成長地域으로 집중투자되는 경향이 있어서 성장과 발전을 지역적으로 균형분산시키려는 형평성의 정책목표와는 상충관계를 지니게 된다.⁸⁾ 그러나 두 정책목표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반드시 서로 상충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두가지 정책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지역경제가 당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地域經濟는 그 경제효과를 生産, 雇傭, 所得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生産効果는 현재에 있어 실제로 생산해내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바로 일정년도에 있어서의 地域總産出로 파악된다. 雇傭効果는 한 지역경제가 고용 가능한 人力水準을 의미하는데, 고용량 수준으로 나타나고, 所得効果는 재화나 용역을 획득할 수 있는 購買力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地域所得으로 파악된다.

4) Nourse, H. O., *Regional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8, pp.129~136.

5) Richardsom, H., *Regional Economics: Location Theory, Urban Structure and Rogional Change*, New York, Prager Publisher, 1973, pp.223~230.

6) Brown, A. *The Framework of Rogional Economics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Cambridge Onw prese, 1972, pp.72~76.

7) Massey D, "Regionalism: Some Current Issures" *Capital and Class*, Nol 6, 1978, pp.106~125.

8) Richardson, H. *op. cit* (1973), pp.225~227.

2. 地域經濟分析模型의 類型과 特性

地域經濟效果를 분석하는 模型은 經濟基盤模型, 變化-割當分析模型, 地域經濟計量模型 및 地域產業關聯模型 등이 있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가. 經濟基盤模型

經濟基盤模型(economic base study)은 호이트(H. Hoyt), 와이머(A. M. Weimer) 등에 의하여 창안되고 티보우(C. M. Tiebout)에 의하여 발전된 경제분석방법으로서 地域의 經濟基盤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들의 과약과 基盤産業들의 生産活動 變動에 따른 지역경제의 總量規模의 변화를 분석, 예측하는데 있는데, 그 分析模型은 다음과 같다.⁹⁾

$$B/N = \frac{\text{基盤雇傭 (Basic employment)}}{\text{非基盤雇傭 (Non-basic employment)}}$$

$$\text{基盤乘數} = \frac{\text{總雇傭 (Total employment)}}{\text{基盤雇傭 (Basic employment)}}$$

地域經濟의 效果分析模型으로서 經濟基盤模型은 計算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쉽고 統計資料가 부족한 경우에도 基盤-非基盤比만 구할 수 있으면 乘數效果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이 分析模型은 基盤部門만이 地域經濟成長의 原動力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며 基盤産業과 非基盤産業을 분리하는 方法에도 많은 취약점이 있다. 또한 基盤部門이라도 지역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수입하여야 하나 假定에 의해 基盤部門은 전혀 수입없는 것으로 본다. B/N比의 安定性問題도 非基盤部門의 生産性 증가, 立地要因의 변화 등에 따라 基盤-非基盤比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豫測·分析期間 동안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同比率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글리크만(NT Glickman)이 變化-割當分析模型을 사용하여 밝혔으며¹⁰⁾ 티보우도 經驗的으로 입증하고 있다.¹¹⁾

특히 地域經濟分析技法으로 經濟基盤模型이 활용될 때 地域產業關聯模型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閉鎖模型(closed model)의 I-O乘數는 經濟基盤乘數와 數學的으로 同値(mathematical identity)關係에 있다는 것이다.¹²⁾ 아이사드(W. Isard)와 자만스키(S. Czamanski)는 미국의 California, Los-Angeles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와 정부지출을 外生部門으로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經濟基盤乘數와 I-O乘數는 같다는 實證分析의 결과를 얻었다.¹³⁾

9) Tiebout, C. M., op. cit (1960), pp. 15~20.

10) Glickman, N. J., *Econometric Analysis of Regional Systems*, Academic Press, 1976, p. 15.

11) Tiebout, C. M., op. cit, p. 67.

12) Bellings, B. K., "The Mathematical Identity of the Multipliers Derived from the Economic Base Model and Input-output Model", *Journal of Regional Science*, No. 9, 1969, pp. 471~473.

13) Tiebout, C. M., op. cit, p. 67.

나. 地域經濟의 變化—割當分析模型

變化—割當分析模型은 크레머(D. B. Creamer)에 의해 개발되어 던(E. S. Dann), 퍼로프(H. S. Perloff)에 의해 발전된 분석모형으로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의 구성비가 큰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빨리 성장한다고 전제하고 전국의 산업별 고용성장과 地域의 산업별 고용성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세가지 효과를 지역경제의 성장·변화요인으로 파악하려는 분석모형인데¹⁴⁾, 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NG = b_{ij}(o) \cdot \frac{U(t) - U(o)}{U(o)} \dots\dots\dots (II-1)$$

$$IM = b_{ij}(o) \left(\frac{U_i(t)}{U_i(o)} - \frac{U(t)}{U(o)} \right) \dots\dots\dots (II-2)$$

$$RS = b_{ij}(o) \left(\frac{U_{ij}(t)}{U_{ij}(o)} - \frac{U_i(t)}{U_i(o)} \right) \dots\dots\dots (II-3)$$

$$TC = NG + IM + RS \dots\dots\dots (II-4)$$

$$NC = IM + RS \dots\dots\dots (II-5)$$

- 단, $b_{ij}(o)$: 기준년도 j지역 i산업의 고용
- $U(o)$: 기준년도 전국의 고용
- $U(t)$: 비교년도 전국의 고용
- $U_i(o)$: 기준년도 전국 i산업의 고용
- $U_i(t)$: 비교년도 전국 i산업의 고용
- $U_{ij}(o)$: 기준년도 j지역 i산업의 고용
- $U_{ij}(t)$: 비교년도 j지역 i산업의 고용
- NG... : 전국성장효과
- IM ... : 산업복합효과
- RS ... : 지역경쟁효과
- TC ... : 총효과
- NC... : 순효과

變化—割當分析模型은 地域成長의 從·橫的인 차원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간결한 방법으로 서 자료가 불충분하여 時系列分析이 어려운 경우나 時間과 資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용이하게 분석·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산업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產業間 關聯性을 설명할 수 없다.

다. 地域經濟計量模型

地域經濟計量模型은 經濟理論에 입각한 經濟變數間의 함수관계를 數式으로 표현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計量的으로 檢證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 함수관계를 統計的 方法(回歸模型)을

14) Perloff, H. S., E. S. Dunn, E. E. Lampard and R. F. Muth, *Regions, Resource and Economic Growth*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0, pp.109~129.

사용하여 定量式으로 나타내어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분석방법이다.¹⁵⁾

計量經濟模型이 지역경제학 분야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인데 굴리크만(N. J. Glickman)이 연구한 필라델피아 計量經濟模型이 개발된 이래 미국·日本 등지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計量經濟模型의 분석방법 및 절차는 첫째, 經濟現象을 분석하고자 하는 目的에 따라 경제변수간의 관계를 模型으로 설정하고, 둘째로 統計資料를 수집하여, 셋째로 模型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검정하고, 넷째 그 模型에 대한 檢證과 評價를 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計量經濟模型은 假設을 두 經濟變數의 相關關係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제변수들의 相互因果關係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므로 실제 經濟現象에서 여러 變數間에 相互 미치는 影響의 方向과 程度를 計量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데 그 有用性이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매우 복잡하며 方法論에 있어서 數學的, 統計學的 知識이 요구될 뿐 아니라 模型의 構造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地域產業關聯模型의 경우 보다 적은 양의 統計資料가 요구되지만 統計資料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短點이 있다.

라. 地域產業關聯模型

地域產業關聯模型은 地域的인 차원에서 산업부문간 경제활동의 相互依存關係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最終需要의 규모변동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分析模型이다. 또한 이 모형은 經濟豫測의 한 수단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장래의 最終需要를 예측하여 外生的으로 주어진다면 總生産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역산업연관모형은 地域經濟 전체를 포괄하면서 全體와 部分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財貨의 産業間 循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經濟構造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이다.¹⁶⁾ 또한 消費, 投資, 輸出 등 最終需要의 변동이 각 부문에 生産, 所得, 雇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하며, 時系列分析이 보여 줄 수 없는 地域間 및 地域內的 産業關聯關係를 파악 가능케 해준다. 그리고 이 모형은 그 모형 자체내에 각 산업이 投入·産出의 관계를 통하여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 산업의 수요·공급의 변화가 이에 관련된 다른 모든 산업의 수요·공급변화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산업간 연관효과를 파악케 해준다.

그러나 이 모형은 多量의 統計資料가 요구되고 分析處理에 따르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요구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非調查方法(Non-survey method)에 의하여 地域產業關聯表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도구로서의 有用性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¹⁷⁾

지금까지 고찰하여 온 地域經濟分析模型의 特性을 요약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15) Richardson, H. op. cit, pp. 214~225.

16) Miller, E.E. and P. T.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 and Extension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5, pp. 101~106.

17) Richardson, H. "Input-output and Economic Base Multipliers Looking Backward and Forward" *Journal of Regional Scienc* Vol. 25, No. 4, pp. 211~278.

〈표 II-1〉 地域經濟分析模型의 特性比較

	經濟基盤模型	變化-割當模型全	地域經濟計量模型	地域投入產出模型
基本假定	都市나 地域과 같이 그單位가 작을 때는 投資의 증가보다 輸出의 증가가 地域成長에 크게 기여하며 地域 輸出의 증가와 基盤産業의 증대는 서어비스産業의 活動을 증대시켜 다시 地域成長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全國적으로 빠른 成長을 보이는 産業部門의 構成화가 큰 地域은 그렇지 못한 地域보다 빨리 成長한다.	經濟理論에 입각한 經濟變數間의 상호 영향관계를 分析하는 데 있어서 그 經濟變數가 量으로 計測될 수 있다면 그 상호관계는 計量的으로 測定可能하다.	各 産業部門은 서로 밀접한 相互依存關係에 있으며, 均衡的 關係(投入=產出)를 形成하고 있다.
統計資料	一時點 또는 一定二時點(자료의 분량은 비교적 적은 량)	一定 二時點(자료의 분량은 최소량)	時系列資料(자료의 분량은 비교적 많은 량)	一定 二時點(자료의 분량은 최대량)
統計處理方法	單純	單純	複雜	複雜
有用性	理論과 方法論이 간단하며, 비교적 적은량의 統計資料가 요구되므로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適用이 용이하다.	理論과 方法論이 간단하며, 최소량의 統計資料가 요구되므로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適用이 可能하다.	理論과 方法論이 매우 복잡하며, 비교적 많은량의 統計資料가 요구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統計處理上 컴퓨터의 利用이 불가피하다.	理論과 方法論이 복잡하며, 다른 類型에 비해 가장 많은 統計資料가 요구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統計處理上 컴퓨터가 요구된다.
特性	地域經濟의 成長要因을 基盤産業(즉 輸出産業)의 機能에서 把握함으로써 基盤産業과 非基盤産業의 構成比에 따른 地域의 總産業의 變化를 分析하는 것	地域의 産業部門別構成화와 成長率 그리고 그 變化에 따라 構造的으로 묘사되는 成長效果間의 差異點을 分析하는 것	經濟理論에 입각한 經濟變數間 相互미치는 영향의 方向과 程度를 數學的·統計學的(回歸分析) 方法을 통해 計量的으로 分析하는 것	地域의 各 産業部門間 波及效果를 把握하므로써 經濟構造的 形態와 性格을 綜合的으로 分析하는 것.

3. 地域産業關聯模型

地域産業關聯模型은 1930년대 Leontief¹⁸⁾가 고안한 산업연관모형을 Isard¹⁹⁾가 地域經濟分析에 응용한 것으로 地域的인 차원에서 산업부문간 경제활동의 相互依存效果分析은 물론, 최종수요의 규모변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분석까지도 가능케하는 모형이다. 또한 이 모형은 장래의 예측된 최종수요가 주어지면, 예로서 觀光支出需要가 추정되면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總產出·總所得·總雇傭 등의 변화는 물론 각 산업별 산출·고용·소득의 변화까지도 일관성있게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²⁰⁾

가. 模型의 基本構造

산업연관모형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²¹⁾ ① 각 산업은 同質的이며 線型固定要素比率 生産函數를 가진다. 따라서 각 산업의 생산은 規模에 대한 報酬不變이다. ② 각 생산물은 하나의 專門生産部門에서만 생산된다. 즉 한 산업은 단일의 재화만을 생산하며 結合生産物을 생산하지 않는다. ③ 모든 산업에는 外部經濟 또는 外部不經濟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가지 기본가정하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은 다음 식 (II-6)로 나타낼 수 있다.²²⁾

$$X+M = AX+C+G+Z+E \dots\dots\dots (II-6)$$

- 단, X : 地域 各 産業部門別 生産額 「벡터」
- M : 地域 各 産業部門別 輸入額 「벡터」
- A : 地域技術係數行列
- C : 地域民間消費 「벡터」
- G : 地域政府消費 「벡터」
- Z : 地域投資需要 「벡터」
- E : 地域輸出 「벡터」

위의 식은 우측의 總供給과 좌측의 總需要와의 균형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技術係數行列의 원소인 中間投入係數(a_{ij})는 j부문이 i부문으로부터 사들인 中間投入額(X_{ij})을 j부문의 總投入額(X_j)으로 나누어 식 (II-7)로 구할 수 있다.

18) Leontief W. W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 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18, 1936, pp. 201~236.
 19) Isard W. "Interregional and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A Model of a Space Econom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3, 1951, pp. 104~151.
 20) Richardson H. "Input-output and Economics Base Multiplier: Looking Backward and Forward"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5, No. 4, 1985, p. 62.
 21) _____, *Input-output and Regional Econom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2, pp. 7~14.
 22) *Ibid*, pp. 14~26.

$$a_{ij} = \frac{X_{ij}}{X_j} \quad (i, j=1, k) \quad \dots\dots\dots (II-7)$$

이러한 중간투입계수는 한 內生産業의 투입과 산출관계, 즉 기술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技術係數(technical coefficients)라고도 한다.

이러한 기술계수로부터 生産誘發係數(interdependence coefficients)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²³⁾ 式 (II-6)을 다시 쓰면

$$X - AX = C + G + Z + E - M \quad \dots\dots\dots (II-8)$$

$$(I - A)X = C + G + Z + E - M \quad \dots\dots\dots (II-9)$$

$$(I - A)^{-1}F = X \quad \dots\dots\dots (II-10)$$

- 단, I : 단위(identity) 행렬(b×b)
- (I - A) : Leontief 행렬(b×b)
- (I - A)⁻¹ : Leontief 逆行列(b×b)
- F : 최종수요 「벡터」 (C + G + Z + E + M)

이때 Leontief 逆行列 (I - A)⁻¹가 곧 생산유발계수행렬이 되는데 이를 b_{ij}를 원소로 하는 행렬 B로 나타내면

$$(I - A)^{-1} = B = [b_{ij}]_{b \times b} \quad \dots\dots\dots (II-11)$$

이 되는데 여기서 b_{ij}는 j부문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i부문으로부터의 產出要求總量을 의미한다.

나. 乘數 및 産業關聯效果

이와 같은 地域産業關聯模型은 乘數效果(multiplier effect)와 産業關聯效果(interindustry linkage effect)分析 및 經濟豫測이 가능하다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乘數는 어느 부문의 최종수요의 변화가 지역경제 전체에 직접·간접적으로 미치는 산출·고용·소득면에서의 수량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產出乘數(output multiplier), 雇傭乘數(employment multiplier), 所得乘數(income multiplier)로 분석된다.²⁴⁾

產出乘數는 최종수요 1단위 변화를 충족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내생부문의 산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내생부문 h에 대한 產出乘數²⁵⁾는 式 (II-12)로 구할 수 있다.

$$\gamma_{ho} = \sum_{h=1}^k b_{ih} \quad \dots\dots\dots (II-12)$$

23) Ibid, pp. 26~30.

24) Ro Young Key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Reg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of the Ohio Coal Mining Region, Ph. 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 1982, p. 32.

25) Ibid, pp. 33~35.

단, b_{ih} :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원소

최종수요의 변화가 ΔF_b 일때 이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제내의 산출액의 總變化(ΔX)는 다음 식 (II-13)으로 구할 수 있다.

$$\Delta X = r_{ho} \cdot \Delta F_b \quad \dots\dots\dots (II-13)$$

雇傭乘數는 어떤 내생부문에서의 직접적인 고용 1단위의 변화로 부터 야기된 경제전체에서의 총고용변화를 의미한다. 雇傭乘數는 h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변화로 부터 직접·간접으로 유발된 총고용효과($\sum (U_i / X_i) \cdot b_{ih}$)의 직접고용효과(U_h/X_h)로 나눈 값으로서 다음 식 (II-14)로 구해진다.²⁶⁾

$$r_{hu} = \frac{\sum_{i=1}^k \frac{U_i}{X_i} \cdot b_{ih}}{U_h/X_h} \quad \dots\dots\dots (II-14)$$

단, X_h : h 산업부문의 총산출액

U_h : h 산업부문의 고용량

h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변화가 ΔF_b 일때 이로 인한 경제전체의 總雇傭變化(ΔU)는 다음 식 (II-1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Delta U = \Delta F_b (U_h/X_h) \cdot r_{hu} \quad \dots\dots\dots (II-15)$$

단, ΔF_b : h 부분의 최종 수요 변화

雇傭乘數는 한 내생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변화하여 그 산업의 소득이 1단위 변화할 때 경제 전체적으로 몇 단위의 소득이 변화하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식 (II-16)으로 구할 수 있다.²⁷⁾

$$r_{hy} = \frac{\sum_{i=1}^k \frac{Y_i}{X_i} \cdot b_{ih}}{Y_h/X_h} \quad \dots\dots\dots (II-16)$$

단, Y_h/X_h : h부문의 직접소득효과

내생산업 h에 대한 최종수요의 임의의 변화에 따르는 경제 전체의 總所得變化(ΔY)는 다음 식 (II-17)로 측정할 수 있다.

$$\Delta Y = \Delta F_b \cdot (Y_h/X_h) \cdot r_{hy} \quad \dots\dots\dots (II-17)$$

26) Moore FT and Peterson J.W "Regional Analysis : An Interindustry Model of Uta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7, 1955, pp. 35~43.

27) *Ibid.* pp. 43~47.

産業關聯效果는 前方關聯效果와 後方關聯效果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前方연관효과는 感應度係數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생산유발계수행렬의 行「벡터」와 관련하여 식 (II-18)로 구분할 수 있다.²⁸⁾

$$\alpha_i = \frac{\frac{1}{k} \sum_{j=1}^k b_{ij}}{\frac{1}{k^2} \sum_{i=1}^k \sum_{j=1}^k b_{ij}} \dots \dots \dots (II-18)$$

단, b_{ij} :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원소

따라서 前方關聯效果는 해당산업의 제품이 제주 전산업의 제품의 평균보다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다른 산업의 투입물로 구매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만약 한 산업의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이는 그 산업의 제품이 전 산업의 제품 평균보다 다른 산업들의 중간투입물로 구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前方關聯效果가 큰 산업으로 분류한다. 즉 $\alpha_i > 1$ 인 산업은 다른 내생산업들의 생산이 변화할 때 중간투입물의 공급자로서 다른 내생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파급효과를 받는 산업을 의미한다.

후방연관효과는 影響力係數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생산유발계수행렬의 列「벡터」와 관련하여 다음 식 (II-19)로 구할 수 있다.²⁹⁾

$$\beta_j = \frac{\frac{1}{k} \sum_{i=1}^k b_{ij}}{\frac{1}{k^2} \sum_{i=1}^k \sum_{j=1}^k b_{ij}} \dots \dots \dots (II-19)$$

단, b_{ij} :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원소

따라서 後方關聯效果는 해당산업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중간투입물을 구매하는 정도가 전산업의 평균보다 얼마나 더 큰가 아니면 작은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한 산업의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크다면 그 산업은 다른 산업들로부터 전산업 평균보다 더 많은 중간투입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後方關聯效果가 큰 산업으로 분류하게 된다. 즉 $\beta_j > 1$ 인 산업은 그 산업의 생산에 변화가 있을 때 다른 내생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파급효과를 경제전체에 주게 되는 산업인 것이다.

특히, 前方연관효과 및 後방연관효과의 측정을 통한 産業關聯效果의 분석은 특히 한 단위 경제의 先導産業을 선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것은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그 산업의 변화가 경제 전체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Hirschman은

28) Ramusen PM, *Studies in Intersectional Relations*, Amsterdam, North Holland and Publishing Co, 1957, pp. 35~45.

29) *Ibid*, pp. 36~37.

전후방연관효과 가운데 후방연관효과를 더욱 중시하여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은 先導産業 (leading sector)으로 하는 경제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³⁰⁾

다. 觀光産業의 經濟效果分析道具로서의 意義

産業聯關分析을 이용한 觀光産業의 經濟的 效果分析은 ① 産業聯關表는 觀光産業의 種類와 韓國標準産業分類(KSIC)가 일치하지 않아 全觀光産業을 단일산업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現代社會에서 技術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일정기간 技術係數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③ 生産費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實際 産業分析에서 매우 중요한 費用要素가 많은데도 이를 看過하고 있다는 등의 限界가 있다. 이외에도 다량의 統計資料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분석처리에 따르는 時間과 經費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産業聯關分析은 ① 觀光産業이 전체 경제 가운데 차지하는 相對的 위치를 파악케 해주고, ② 觀光産業과 다른 산업과의 相關關係를 제시해주며, ③ 觀光産業이 전경제에 미치는 生産誘發效果, 雇傭誘發 및 所得誘發效果 등의 모든 效果를 파악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³¹⁾ 分析道具로서 最適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非調査方法(non-survey method)이 개발됨에 따라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면서 地域産業聯關表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유용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地域産業聯關分析의 가장 큰 長點은 한 産業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生産, 雇傭, 所得의 效果分析일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地域産業聯關表에서 구할 수 있는 生産, 雇傭 및 所得乘數를 기초로 하여 觀光산업이 地域經濟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相關關係도 분석케 해준다. 따라서 本研究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케 해주는 分析道具는 地域産業聯關模型이라 할 수 있는데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效果分析을 위해 활용토록 한다.

30) Hirschman A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 Press 1958. pp. 116~117.

31) Miller RE and PT Blair *op. cit.*, pp. 45~52.

Ⅲ. 濟州道 觀光動向 및 觀光產業의 現況

1. 觀光產業의 概念定立

가. 觀光產業의 概念과 特性

觀光產業(Tourism Industry)은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산물임에 틀림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觀光產業에 관한 학술적 노력과 관심이 산발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어, 이들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개념을 구성해 보기로 한다.

Leiper는 觀光을 “여행기간 동안 報酬를 목적으로 한 고용활동을 제외하고, 人間이 일상주거지를 떠나 자유로이 여행하여 1泊이상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5대 요소는 觀光客, 居住地, 交通루트, 目的地, 그리고 觀光產業이며, 이들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발시스템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이 5대 요소 조직은 광역환경 즉, 物理的·文化的·經濟的·工學的 環境속에서 상호작용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觀光客이라는 主體를 중심으로 주변의 복잡다기한 측면을 종합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Leiper는 觀光을 觀光產業까지 포함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觀光產業은 관광현상의 하나의 하위시스템으로서 20세기 중반 이후 관광의 대중화 현상과 함께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관광현상과 관련되는 산업에 대한 편의적 호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觀光產業은 흔히 觀光事業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觀光事業은 觀光의 효용과 사업이 가져다 줄 社會的, 文化的, 經濟的 效果를 合目的的으로 촉진하기 위한 人間活動으로서 觀光現象에 대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¹⁾. 즉, 관광사업은 民間企業에 의한 영리적인 경영사업과 公的 機關에 의한 공공 또는 협동사업의 통합 내지 결합에 의해서 성립되고 있다. 따라서 觀光事業의 主體들은 개개의 私企業經營의 집합체인 관광산업, 그리고 관광사업자 단체·관광행정기관 등에 의해서 구성되어진다²⁾. 따라서 단순히 개개의 공·사기업 경영에 관해서 말할 경우는 오히려 관광산업이라는 개념이 보다 명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觀光產業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經濟의 일부³⁾로서 觀光經濟에 대처하

1) Neil Leiper, "The Framework of Tourism: Towards a definition of Tourism, Tourist and the Tourist Industry",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6, No. 4), 1979, pp. 403-404.
2) 鈴木忠義, 「現代觀光論」, 有斐閣雙書, 1984, p. 92.
3) 夫武直義, 「觀光事業論」, 法律文化社, 1984, pp. 56-57.
4) A. J. Burkart & S. Medlik, Tourism: Past, Present and Future, Second Edition, Heinemann (London), 1981, p. 63.

는 기본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觀光産業은 觀光事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제영업의 총체 또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행동에 대응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觀光産業은 산업분류상 제3차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종류가 다종다기하여 제1차 산업에서 제3차 산업까지 총망라하고 있다⁵⁾. 더욱이 관광의 대중화에 기인하여 관광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그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觀光農業, 觀光漁業 등은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관광산업은 觀光供給機能을 전제로 하여 관광사업의 중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산업 및 관광객 대상이 그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觀光動機란 관광행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準備, 機動, 滞在, 活動機能⁶⁾ 말한다. 물론 이 네 가지 기능을 모두 갖는 것도 있어서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준비의 공급기능을 갖는 것에는 旅行業이 있고, 이동에는 交通業, 滞在에는 宿泊業, 그리고 활동에는 각종 觀光客利用施設業, 土産品販賣業 등이 영업활동에 속하며, 이러한 각종 영업활동을 총칭하여 觀光産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觀光産業의 特性은 관광산업 그 자체가 多種多岐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기란 극히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제품의 서비스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綜合性, 여건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變化性, 생산의 非連續性 등의 특성⁷⁾을 갖고 있다. 또한 觀光産業은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자원소비율이 타산업에 비해 낮아 자원절약산업 내지는 무공해산업이며, 고용증대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최근까지도 주로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중요시하여 왔으나, 이제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수용하여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부각되는 등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관련효과가 매우 큰 다목적적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을 독립된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경우 複合産業, 季節産業, 時間産業, 그리고 立地産業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⁸⁾.

나. 觀光産業의 分類

觀光에 관한 산업은 200여종을 넘을 정도로 많다. 더욱이 새로이 출현하는 업종으로 그 수가 점점 증가하여 觀光産業은 독립된 산업으로 자리를 굳혀 가고, 또한 전문성이 요청되면서 세분화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多種多様な 업종이 觀光客 및 觀光需要對象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종합된 포괄적인 용어로서 일반의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할

5) 未武忠義, 前掲書, p. 92.

6) 稱袒勉, 「觀光事業의 知識」, 日經文庫, 1981, p. 24.

7) 韓國觀光公社, 「國民餘暇生活의 實態分析과 對策」, 1985, p. 694.

8) 小池洋一·足羽洋保, 「觀光學概念」, シネルヴァ書房, 1988, p. 239.

수 없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여러 업종이 집합된 시스템 산업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분류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이제까지 論議된 諸論點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성격과 기능에 의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종합·분류해 보기로 한다.

1) 觀光振興法上的의 分類

우리 나라의 觀光振興法에서는 觀光需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의 종류를 크게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그 업종을 세분화하고 있다⁹⁾.

- (1) 觀光宿泊業： 觀光호텔業, 유스호텔業, 海上觀光호텔業, 休養콘도미니엄業, 家族호텔業, 韓國傳統호텔業
- (2) 旅行業： 一般旅行業, 國外旅行業, 國內旅行業
- (3) 觀光客利用施設業： 專門休養業, 綜合休養業, 골프장業, 自動車野營場業, 觀光유람선業, 觀光飲食店業, 外國人專用遊興飲食店業, 外國人專用觀光記念品販賣業
- (4) 觀光便宜施設業： 觀光사진業, 自動車정류장시설業, 觀光토속주販賣業, 전문관광식당業, 일반관광식당業
- (5) 國際會議用役業

2) 未武忠義의 分類

未武忠義는 觀光機能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관광관련사업을 포함하여 廣義로 재화의 공급에 의한 사업구분을 하고 있다¹⁰⁾.

- (1) 觀光機能에 의한 分類
 - ① 移動機能： 運輸業
 - ② 接待機能： 宿泊業, 旅行業, 土產品業, 飲食業, 娛樂遊興業
- (2) 觀光關聯産業을 포함한 廣義의 分類
 - ① 觀光서비스를 제공하는 産業
 - i) 施設觀光서비스産業： 交通業, 宿泊業, 各種 관광레크레이션시설業
 - ii) 情報觀光서비스産業： 旅行業
 - ② 觀光關聯 有形財를 제공하는 産業
 - i) 비내구소비재 제공산업： 음식業, 土産품판매業
 - ii) 내구소비재 제공산업： 여행용품業, 레저용품業

3) 野崎太郎의 分類

野崎太郎은 觀光需要와의 관련성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¹¹⁾.

9) 觀光振興法 第3條, 觀光振興法施行令 第2條, 觀光振興法施行規則 第13條 參照.
10) 未武忠義, 前掲書, pp. 95-96.
11) 野崎太郎, 「觀光經營論」, 法律文化社, 1975, pp. 238-239.

- (1) 觀光基盤産業： 觀光往來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숙박업, 여객운수업이 여기에 속한다.
- (2) 觀光關係産業： 觀光客을 주된 對象으로 하는 산업으로 여행업, 토산품판매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3) 觀光關聯産業： 널리 일반에게 이용되지만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운동·오락시설·동식물원·박물관 등 교양문화시설, 다과점, 식당 등 음식점 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4) 田中喜一의 分類

田中喜一은 觀光産業을 기초적 관광영업과 보조적 관광영업으로 분류하고 前者는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유치·영접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後者는 각 관광지의 상황에 의한 接待의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업종을 열거하고 있다¹²⁾.

- (1) 基礎的 觀光營業： 교통업, 숙박업, 여행업
- (2) 補助的 觀光營業： 음식업, 오락업, 온천장, 토산품업

5) 小池洋一과 足羽洋保의 分類

小池洋一과 足羽洋保는 주요 觀光産業을 관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따라 크게 觀光往來機能과 觀光活動機能으로 구분하고 있다¹³⁾.

- (1) 觀光往來機能
 - ① 移動機能을 갖는 産業： 旅客運輸業
 - ② 接待機能을 갖는 産業： 宿泊業, 旅行業
- (2) 觀光活動機能
 - ① 接待機能을 갖는 産業： 飲食店業, 土產品業, 旅行案内業
 - ② 레저機能을 갖는 産業： 스포츠施設業, 娛樂遊興業, 慰樂施設業

6) J. Christopher Holloway의 分類

Holloway는 觀光産業을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¹⁴⁾

- (1) 서비스공급부문： 여행업, 여행출판업, 여행보험 및 금융서비스 등
- (2) 생산부문： 교통업, 숙박업, 음식업, 오락휴양업

7) A. J. Burkart and A. Medlik의 分類

Burkart와 Medlik는 觀光의 收益者의 전체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一次

12) 田中喜一, 「觀光事業論」, 觀光事業研究會, 1950, p. 75.

13) 小池洋一·足羽洋保, 前掲書, p. 239.

14) J. Christopher Holloway, "The Business of Tourism," Macdonald and Evans: (London), 1985, p. 78.

觀光産業과 二次觀光産業으로 구분하고, 또한 觀光客과 관련성에 따라 直接的 觀光産業과 間接的 觀光産業으로 구분하여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¹⁵⁾.

(1) 一次觀光産業과 二次觀光産業: 前者는 그 사업이 전적으로 관광에 의존한다. 즉, 숙박업, 여행업 등이고, 後者는 부분적으로 관광에 의존하며 대부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음식업, 교통업, 소매업, 기타 서비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2) 直接的 觀光産業과 間接的 觀光産業: 前者는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교통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으로 관광객의 接待消費에서 나오며, 後者는 직접적 수혜자의 消費에서 이익을 얻는 기타 관광관련산업이다.

8) 技術的인 分類

觀光産業에 대한 이상의 分類體系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觀光産業은 획일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연구자가 추구하는 目的과 假定에 따라 觀光産業의 分類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地域的인 特性의 고려와 客觀的인 分析이 해야 할 必要性, 이용통계의 제약성 등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宿泊業: 觀光호텔업, 일반호텔업, 여관
- (2) 交通業: 택시, 전세버스, 렌트카, 시내·시외버스
- (3) 旅行業: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4) 觀光客利用施設業: 골프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 관광사진업 등
- (5) 觀光飲食店業: 각종 飲食店業, 製菓店, 休憩所 등
- (6) 其他 觀光記念品販賣業: 관광기념품판매업, 외국인전용면세점, 관광농원 등

2. 觀光動向 및 觀光産業의 現況

가. 觀光의 動向

觀光은 오늘날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觀光産業은 높은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 석유, 자동차산업에 이어 세계 제3위의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했다¹⁶⁾. 세계 관광은 1980년대 후반부터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서 1989년에는 국제관광객 수가 4억360만명으로 추계되어 전년대비 3.0%를 기록하였고, 전세계의 관광수입도 2,087억불로 전년대비 7.5%의 증가율을 보였다(<表 Ⅲ-1>參照). 매일 110만명의 국제관광객이 숙박, 유흥, 식음료, 쇼핑 등의 비용으로 5억 5,100만불을 소비한 셈이다. 이러한 세계 관광의 성장추세는 전반적으로 세계 GNP의 성장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이다.

15) A. J. Burkart and A. Medlik, *op. cit.*, p. 75.

16) 韓國觀光公社, "21세기를 여는 觀光産業의 展望," 「觀光情報」, 1990年 7·8月號, p. 12.

〈表 Ⅲ-1〉 世界 觀光客 및 觀光收入의 成長趨勢

年 度	觀 光 客 (千 名)	成 長 率 (%)	觀 光 收 入 (百 萬 弗)	成 長 率 (%)
1980	284,841	4.0	102,363	22.8
1981	288,848	1.4	104,296	1.9
1982	286,780	-0.7	98,616	-5.4
1983	284,433	-0.8	98,475	-0.1
1984	312,426	9.8	109,812	11.0
1985	326,435	4.5	115,008	4.7
1986	333,993	2.3	138,683	20.6
1987	360,073	7.8	169,512	22.2
1988	392,015	8.9	194,166	14.5
1989	403,578	2.0	208,700	7.5

資料：WTO

〈表 Ⅲ-2〉 아시아諸國의 市場別 觀光客 誘致實績 (1989年)

(單位：人)

市場 國 別	日 本	美 國	유 럽	韓 國	臺 灣
韓 國	1,379,523 (22.7)	317,133 (-8.7)	172,086 (6.4)	-	156,530 (26.0)
臺 灣	962,179 (4.9)	223,908 (2.4)	131,141 (2.6)	138,608 (59.0)	1,132,904 (3.6)
홍 콩	1,176,189 (-5.2)	624,400 (-16.2)	19,878 (16.5)	166,995 (64.8)	1,132,904 (3.6)
싱 가 폴	841,371 (17.4)	247,996 (5.1)	901,125 (18.7)	87,664 (1.8)	223,806 (4.6)
泰 國	546,967 (11.4)	282,924 (5.9)	1,207,332 (25.1)	110,665 (2.3)	369,184 (8.2)

註：() 成長率

아시아地域¹⁷⁾의 국제관광객수는 1989년 세계 총 국제관광객수의 13.6%를 점유하여 1980년의 4.5%에 비하여 3배나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아세아내에서도 지역간 성장율의 차이가 커서 동아시아 지역만이 아세아 전체의 성장율 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 아세아지역의 총 국제관광객

17) 交通部·韓國觀光公社, 「觀光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90, pp.17-53.

중 域內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 39.5%이며 이 비율은 1984년의 41.3%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총 외래관광객 가운데 유럽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4년의 18.8%에서 1988년에 21.1%로 높아졌다(〈表 Ⅲ-2〉參照).

한편 세계 관광수입에서 아세아지역의 관광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기간 동안 11.4%에서 17.1%로 크게 신장되었다.

1989년의 경우 아시아諸國의 외래관광객의 소비내역 중 일본을 제외한 한국, 대만, 홍콩, 태국이 모두 쇼핑비가 1위이며, 2위는 숙박비이다. 日本의 경우는 숙박비와 식음료비가 비싼 탓으로 쇼핑, 유흥비의 지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表 Ⅲ-3〉參照).

〈表 Ⅲ-3〉 觀光消費內譯 比較 (1989年 基準)

(單位: %)

國別 項目	韓 國	*日 本	臺 灣	香 港	泰 國
宿 泊	24.5	48.6	22.8	28.6	24.1
飲 食 料	16.0	26.6	11.9	9.0	15.9
소 핑	27.9	9.0	39.3	54.0	38.5
遊 興	13.9	2.5	16.9	2.2	6.6
觀光·交通	6.9	11.4	4.8	2.4	13.1
其 他	9.9	1.9	4.3	3.8	1.8

資料: 各國 NTO 統計

*는 1987年 基準

아시아 최대의 해외여행자 송출국인 日本은 해외여행자가 매년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타 아세아국가들은 日本이 가장 큰 觀光市場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日本은 매년 누적되는 국제수지 흑자와 외화보유 증가로 인해 정부가 해외여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圓高현상과 저렴한 단체여행의 보급 등으로 직장여행과 청소년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1960년대에 들어 정부주도하에 관광산업을 육성한 결과 〈表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래관광객수가 1987년에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1988년에 234만명, 1989년에는 273만명, 그리고 199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8.5%가 증가한 2,958,839명이 방문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11.9%의 성장율을 보였다. 이러한 成長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속적인 韓國의 이미지 고양, 주요 시장인 日本, 대만 등에서의 입국자 급증,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홍보 선전활동의 강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의 주된 관광시장은 '60년대까지 美國이었으나 '70년부터 日本이 최대 시장으로 등장하여 한 때 시장점유율 62.5%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해외관광시장이 다변화됨에 따라 日

本市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1990년에 49.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제2의 시장인 미국은 1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등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나타낸 국가는 泰國으로서 1990년에 29,367명이 입국하여 전년보다 50.3%나 증가하였다.

한국의 관광외화수입은 1990년 미화 35억 5,867만불로서 전년대비 0.1%의 증가에 그쳐 1989년의 증가율 8.9%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도 1,203불로 전년도 1,304불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III-4〉參照). 이와 같이 관광수입의 성장감소와 1인당 평균 소비액의 감소는 원화의 평가절상 및 국내물가의 전반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체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관광경비지출을 위축시킨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수입의 증가는 관광객의 체재기간의 연장,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매력과 관광상품 개발, 수용태세 완비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관광객이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숙식비 이외에 추가로 많은 경비지출을 할 수 있는 부문은 쇼핑과 유희·오락부문이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대규모 국제회의와 각종 대회가 국내에서 많이 개최되고 쇼핑관광을 꾸준히 촉진한 결과 최근에는 홍콩, 싱가포르에 뒤이은 쇼핑관광국으로 정착하게 되었다(〈表 III-5〉參照).

〈表 III-4〉 年度別 觀光客數 및 觀光外貨收入 成長趨勢

年 度	觀光客數		觀光外貨收入		1人當 平均 消費額 (US弗)
	(名)	成長率(%)	(千弗)	成長率(%)	
1980	976,415	-13.3	369,265	13.3	378
1981	1,093,214	12.0	447,640	21.2	409
1982	1,145,044	4.7	502,318	12.2	439
1983	1,194,551	4.3	596,245	18.7	499
1984	1,297,318	8.6	673,355	12.9	519
1985	1,426,045	9.9	784,312	16.5	550
1986	1,659,972	16.4	1,547,502	97.3	932
1987	1,874,501	12.9	2,299,156	48.6	1,227
1988	2,340,462	24.9	3,265,232	42.0	1,395
1989	2,728,054	16.6	3,556,279	8.9	1,304
1990	2,958,839	8.5	3,558,666	0.1	1,203

資料：交通部·韓國觀光公社，韓國觀光統計，1990.

〈表 Ⅲ-5〉 觀光消費內譯 比較

(單位：%)

年度別 項目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7	1988	1989	1990
宿 泊	19.0	32.1	25.0	28.2	23.6	27.0	25.8	25.4	26.8	28.0
飲 食 料	17.4	17.3	20.0	17.9	11.6	20.0	17.9	16.1	16.6	17.0
소 핑	17.6	23.2	21.0	22.9	22.4	30.0	26.1	28.0	29.9	28.5
遊 興	18.0	15.9	19.0	16.1	11.4	12.0	15.4	13.9	14.9	14.5
觀光·交通	13.0	5.1	7.0	6.3	3.2	6.0	8.2	7.0	7.3	7.0
其 他	15.0	6.4	8.0	8.6	27.8	5.0	6.6	9.6	4.5	5.0

資料：韓國觀光公社，外來客 輿論調查，1980-1990.

* 1986年度 調查 未實施

최근 濟州道는 점차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증대됨과 아울러 적극적인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힘입어 한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관광목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表 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1988년에 이미 200만명을 돌파하였고, 1990년에는 외국인 23만 5천명을 포함하여 총 299만 2천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1년에는 국내 외 모든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292만 9천명과 외국인 27만 5천명인 총 320만 4천명을 유치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관광은 연평균 16%의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계속 성장추세에 있다.

또한 관광객의 양적 증가와 함께 관광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1988년 2,382억원에 달하였고, 1990년에는 그 2배 수준인 4,31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2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表 Ⅲ-6〉 觀光客 誘致實績 및 觀光收入

區分 年度別	觀光客數(千名)				觀光收入(億圓)	
	計	內國人	外國人	前年對比(%)	計	(前年對比(%))
1988	2,001	1,843	158	114	2,382	137
1989	2,643	2,476	167	132	3,442	144
1990	2,992	2,757	235	113	4,319	125
1991	3,204	2,929	275	107	5,132	119

資料：濟州道，統計年報 1991.

그리고 제주도 관광객수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表 Ⅲ-7〉에서 보듯이 1일 평균 관광객수는 1989년에 7,240명이었고, 1990년에 8,198명이었다. 이를 성·비수기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성수기에 1일 평균 관광객수는 1989년에 8,596명이었고, 1990년에 9,655명, 그리고 1991년에는 10,302명이었으며, 비수기에는 1989년에 5,846명, 1990년에 6,699명, 1991년에 7,339명으로 성·비수기 비중이 대체로 6 : 4정도로 나타났다.

〈表 Ⅲ-7〉 盛・非需期 來道觀光客 比較

區 分	'89	'90	'91
總 來 道 人 員	2,642,613名	2,992,613名	3,204,614名
年平均 來道人員(1日)	7,240名	8,198名	14,775名
盛需期 平均 來道人員	8,596名	9,655名	10,302名
非需期 平均 來道人員	5,846名	6,699名	7,339名

資料： 濟州道 觀光課, 1992.

註： 盛需期(195日), 非需期(180日)

관광객의 성향별 방문현황은 1991년에 개인 및 기타가 전체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47.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단체 20.3%, 신혼부부 16.7%, 외국인 8.6%, 수학여행 7.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Ⅲ-8〉參照). 이를 과거추세로 비추어 볼 때 신혼부부와 수학여행 관광객수가 다른 성향의 관광객수보다 전체적인 비중은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단체 관광객은 1990년에 1.7%의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1991년에는 12.8%의 증가세에 그치고 이어 우리 나라 관광패턴이 생활여건의 변화, 기업체의 유급휴가 확대 등으로 가족내지는 개인별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Ⅲ-8〉 觀光客 性向別 趨勢

(單位： 名)

性向別 年度別	計	內 國 人				外 國 人
		一般團體	修學旅行	新婚夫婦	個人 및 其他	
'83	1,024,026 (100.0)	226,171 (22.1)	20,545 (2.0)	90,784 (8.9)	642,528 (62.6)	44,998 (4.4)
'84	1,217,243 (100.0)	339,919 (29.9)	20,810 (1.7)	123,658 (10.2)	648,038 (56.2)	48,818 (4.0)
'85	1,332,702 (100.0)	335,153 (25.3)	59,872 (4.5)	138,646 (10.5)	715,355 (54.1)	73,676 (5.6)
'86	1,492,308 (100.0)	331,081 (22.2)	60,417 (4.1)	187,486 (12.6)	797,571 (53.4)	115,753 (7.8)
'87	1,785,461 (100.0)	443,745 (25.2)	90,102 (5.1)	231,464 (13.2)	840,760 (47.8)	152,389 (8.7)
'88	2,000,495 (100.0)	471,827 (23.6)	109,180 (5.5)	307,258 (15.4)	954,426 (47.7)	157,804 (7.9)
'89	2,642,613 (100.0)	588,288 (22.3)	162,908 (6.2)	409,594 (15.5)	1,314,571 (49.7)	167,252 (7.9)
'90	2,992,096 (100.0)	577,766 (19.3)	205,425 (6.9)	474,934 (15.8)	1,498,898 (50.1)	235,073 (7.9)
'91	3,204,614 (100.0)	652,007 (20.3)	229,798 (7.2)	535,610 (16.7)	1,511,828 (47.2)	275,371 (8.6)

資料： 濟州道 觀光課, 1992.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1990년에 41%, 1991년에는 1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일본엔화의 상승에 따라 관광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1989년 10월 제주-나가사끼간의 Jet Foil을 운항하게 됨으로써 접근도가 개선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촉진활동 강화와 골프, 등산, 낚시, 사냥, 외국인전용 오락시설, 해양위락시설 등의 다양한 동적 관광시설이 확충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1991년말 현재 일본인 관광객이 전체의 66.1%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어서 대만 14.4%, 교포 8.8%, 홍콩 5.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Ⅲ-9>參照). 이 가운데 제주도를 방문하는 교포가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고 교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절대적인 수가 일본에 비해 매우 미미하고, 미국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주한미군 가족인 점을 고려하면 장차 시장 다변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더욱이 교포, 미국, 기타 지역의 관광객 점유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199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일본, 대만, 홍콩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表 Ⅲ-9> 國籍別 外國人 觀光客 分布

(單位: 名)

區分	1989 (%)	前年對比 (%)	1990 (%)	前年對比 (%)	1991 (%)	前年對比 (%)
計	167,252 (100.0)	106	235,073 (100.0)	141	275,371 (100.0)	117
僑胞	27,042 (16.2)	96	30,824 (13.1)	114	24,085 (8.8)	-123
日本	103,658 (62.0)	172	140,454 (59.7)	135	181,962 (66.1)	130
美國	8,146 (4.8)	79	10,573 (4.5)	130	8,048 (2.9)	-124
대만	17,699 (10.6)	96	36,290 (15.4)	205	39,739 (14.4)	110
홍콩	4,710 (2.8)	130	9,974 (4.3)	212	14,166 (5.1)	142
其他	5,980 (3.6)	58	6,958 (3.0)	116	5,448 (2.0)	-122

資料: 濟州道 觀光課, 1992.

나. 濟州道 觀光産業의 現況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1970년대초 이후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노력과 관광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상당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그 실적은 관광객 수, 관광수입, 관광업체의 수, 그리고 종사원 수 등의 대폭적인 증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관광산업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고 작은 각종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 실제로 관광산업의 종류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6가지 범주로 분류,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宿泊業

관광산업 가운데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숙박업은 규모면에서 매년 증가하여 1980년에 총 314개 업체, 객실수 4,807실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말 현재에는 618개 업체에 객실수 13,682실을 갖추게 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광호텔이 31개 업체에 4,073실(29.8%), 일반호텔이 65개 업체에 2,602실(19.0%), 여관이 286개 업체에 4,726실(34.5%), 그리고 여인숙이 236개 업체에 2,281실(16.7%)로서 고급숙박시설과 저급숙박시설간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급숙박시설인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이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제주도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도 계절적인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 간의 관광수요의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의 이용율은 대체로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관광호텔의 경우만 보더라도 1990년 객실이용율(Room occupancy)이 전국 평균 64%와 동일한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¹⁸⁾.

<表 III-10> 宿泊業體 推移

(單位：個)

區分 年度別	觀光호텔 ¹⁾		一般 호텔		旅 館		旅 人 宿		合 計		前年對比(%)	
	業體數	客室數	業體數	客室數	業體數	客室數	業體數	客室數	業體數	客室數	業體數	客室數
1980	4	483	-	-	154	2,798	156	1,526	314	4,807	111	120
1981	5	976	-	-	173	3,037	164	1,734	342	5,747	108	119
1982	7	1,091	9	680	150	3,037	199	1,734	365	6,542	106	113
1983	8	1,181	16	644	149	2,674	208	2,074	381	6,573	104	100
1984	9	1,171	18	651	159	2,772	226	2,378	412	6,972	108	106
1985	11	1,931	22	871	186	3,011	227	2,358	446	8,171	108	117
1986	13	2,151	29	1,120	202	3,475	224	2,308	468	9,014	104	110
1987	15	2,423	41	1,567	234	3,967	227	2,309	517	10,266	110	113
1988	24	3,238	53	2,029	258	4,330	231	2,359	566	11,956	109	116
1989	27	3,563	60	2,354	267	4,335	238	2,305	592	12,557	104	105
1990	31	4,073	65	2,602	286	4,726	236	2,281	618	13,682	104	109

註： 1) 休養콘도미니엄, 유스호텔 각 1개소 포함.

資料： 濟州道觀光協會, 觀光資料集, 1990.

18) 交通部·韓國觀光公社, 韓國觀光統計, 1990, p. 98.

2) 交通業

관광객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의 교통수단은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상당히 개선되었다.

제주도는 <表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말 현재 連陸交通手段 中 항공교통이年間 총수용능력 540만명이고 선박교통이 115만명에 이르고 있어, 1일 17,945명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연간 수송실적은 1990년말 현재 航空이 2,897,157명, 船舶이 505,301명의 여객을 수송하였다. 이 중 항공교통수단이 수송한 관광객수는 2,524,882명으로 전체 항공여객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해상교통수단이 수송한 관광객수는 467,214명으로 전체 선박이용여객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별 관광객 입도비율은 항공이 84.4%이고, 선박이 15.6%로 주로 항공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항공교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으로 항공편이 대폭 증가하여 수송능력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성수기나 주말에는 항공권 구입난으로 제주 관광을 포기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항공노선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항공편이 부족한 실정이고, 일본의 나고야, 후쿠오카를 제외한 노선이 직항노선이 아니므로 외국관광객의 제주접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表 Ⅲ-11> 年間 交通手段 收容能力

(單位：名)

區	分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連陸 交通	航 空	2,130,378	3,533,339	4,850,000	5,400,000
	船 舶	1,005,264	1,105,474	1,150,000	1,150,000
	小 計	3,135,642	4,638,813	6,000,000	6,550,000
	1日輸送能力	8,591	12,709	16,438	17,945
地上 交通	專貰 버스	3,458,370	4,206,625	4,781,500	6,175,800
	렌 트 카	338,720	392,010	638,750	1,619,140
	個人 택시	551,880	689,120	689,120	780,370
	小 計	4,348,975	5,287,755	6,109,370	8,575,310
	1日輸送能力	11,915	13,413	16,413	23,494

資料：濟州道觀光協會，觀光資料集，1991.

이러한 국제선 제주직항노선의 부족은 제주도를 국제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관광시장 다변화 및 국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와의 획기적인 항공협정체결을 서둘러 제주직항노선의 증설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기여객선의 경우에는 1989년말 현재 제주-부산간, 제주-목포간에 각각 3척, 그리고 제주-완도, 서귀-부산간에 각각 2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어 1일 수송능력이 4,162명에 이른다. 그러나 여객선도 장차 대규모 고속해상교통수단을 도입하고 항로로 증설하는 등 관광객 수송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 지역내에서 관광객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地上交通手段도 제주관광의 성장과 함께

업체수와 차량대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表 Ⅲ-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말 현재 63개 업체에 면허대수 4,312대의 차량이 갖춰져 있는데, 그 중 전세버스가 421대, 렌트카 773대, 그리고 개인택시 등이 관광객 수송능력의 대부분을 맡고 있다. 렌트카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신혼 및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 등 제주도 여행성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 주요 지상교통수단의 年間 수송능력은 총 8,575,310명이고, 1일 수송능력은 23,494명에 달하고 있다.

<表 Ⅲ-12> 旅客運輸事業體 推移

業種別 年度別	合 計		전세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 시 ¹⁾		렌트카	
	業體 數	면허 대수	業體 數	면허 대수	業體 數	면허 대수	業體 數	면허 대수	業體 數	면허 대수	業體 數	면허 대수
1980	33	1,231	5	152	3	137	7	215	17	697	1	30
1985	48	1,958	5	234	5	246	6	232	30	1,165	2	81
1990	63	4,312	7	10	354	7	306	33	2,458	5	773	

註: 1) 개인택시 포함.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1991.

3) 旅行業

旅行業은 觀光振興法 施行令 제3조에서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여행업은 제주도내에 1991년말 현재 11개 업체가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다.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업과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업이 각각 8개 업체, 56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表 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여행업체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여행업 등록의 자유화와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여행업체의 급증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고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관광상품의 저질화 및 덤핑판매, 음성수수료 수수 등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 등록기준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表 Ⅲ-13> 旅行業 推移

(單位: 個所)

區分 年度別	一般旅行業	國外旅行業	國內旅行業	計
1986	3	2	11	16
1987	6	2	14	22
1988	5	8	24	37
1989	8	11	39	58
1990	11	8	56	75

資料: 濟州道, 濟州統計年報, 1991.

4) 觀光客利用施設業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주로 운동, 오락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관광객 체재기간의 연장과 관광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이다. 제주도의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포함) 현황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991년말 4월말 현재 전문휴양업 4개 업체, 골프장업 3개 업체, 관광유람선업 3개 업체, 카지노 5개 업체, 관광사진업 18개 업체, 비디오업 28개 업체, 사설관광지 9개 업체, 승마장 15개 업체 등이 있으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 증가추세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 관광형태는 아직도 자연경관 감상위주의 「보는 관광」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반복적·활동적이며,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위락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실내외수영장, 해수욕, 등반, 낚시, 사냥, 골프, 해양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관광위락활동에 관련된 관광산업의 확충은 제주관광행태의 다양화를 도모하게 되고 결국 관광객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觀光飲食店業

PATA에서 1979년에 실시한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관광객의 관광지 선정기준이 되는 여러 동기 가운데 음식도 포함되어 있다¹⁹⁾. 이처럼 음식은 관광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관광동기의 주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表 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관광음식점업은 1990년 말 현재 11개소로 관광음식점업이 3개소,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서 외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일반관광식당업이 4개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식당업이 4개소가 등록하거나 또는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관광음식점업들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관광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적으로 시설규모, 메뉴의 다양성 및 환경면에서 낙후되어 있으며 종사원의 서비스 역시 고객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많은 대중음식점이 관광음식점업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되지 않았지만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여 관광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表 Ⅲ-14> 觀光飲食店業 推移

(單位：個所)

區分 年度別	韓國飲食店業	一般觀光食堂業	一般食堂業	計
1985	3	-	3	6
1987	4	-	4	8
1990	3	4	4	11

資料：濟州道觀光協會，觀光資料集，1991.

19) 李貞子，「호텔飲食料管理論」，螢雪出版社，1989，pp.26-27.

6) 觀光記念品販賣業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관광기념품 판매업체가 <表 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말 현재 총 166개 업체가 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국인기념품 판매업이 143개 업체로 전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이 10개 업체, 관광농원업이 8개 업체, 면세점 5개 업체 등이 있다. 이 중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은 전 업체, 면세점은 80%, 내국인기념품판매업은 71.4%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관광농원업은 대부분 서귀포시에 분포하고 있다.

<表 Ⅲ-15> 觀光記念品 販賣業體 現況

(單位：個，%)

區 分	濟 州 市	西 歸 浦 市	北 濟 州 郡	南 濟 州 郡	計
外國人專用記念品販賣業	10 (100.0)	-	-	-	10 (100.0)
內國人記念品販賣業	102 (71.3)	11 (7.7)	12 (8.4)	18 (12.6)	143 (100.0)
觀 光 農 園 業	-	8 (100.0)	-	-	8 (100.0)
免 稅 店	4 (80.0)	-	-	1 (20.0)	5 (100.0)
合 計	116 (69.9)	19 (11.5)	12 (7.2)	19 (11.5)	166 (100.0)

資料：濟州道觀光協會，觀光資料集，1991.

다. 觀光產業의 展望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공업화 사회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고부가가치의 정보산업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볼 때 관광산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²⁰⁾. 지금까지 관광산업은 주로 외화획득산업으로서 경제적 이점만을 중요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변화 등으로 국민관광이 활발해지면서 국민의 복지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관광은 인간육구의 최종적인 단계에 속하므로, 인류의 물질적 풍요가 거듭 향상될수록 관광산업에 대한 욕구는 한층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국제관광부문에 있어서 99올림픽 개최효과의 관광부문 확산과 국제교역의 확대, 그리고 최근의 소련, 동구공산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 호주 등 신흥공업국과의 연계로 관광여건이 개선되어 향후 외래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관광부문에 있어서도 국민관광의 질적 성향변화와 양적인 규모증대로 관광산업의 패턴변화가 예상되는 바, 주도적인 관광산업 분야로는 관광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종합휴양업, 국외여행업 등이 크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²¹⁾.

20) 金思憲, "未來의 韓國觀光產業," 「月刊門協」, 1989年 9月號, 韓國觀光協會, p. 38.

21) 交通部·韓國觀光公社, 「觀光動向에 관, 年次報告書」, 1990, pp. 238-284.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는 정보사회화, 교통의 혁신 등 주변의 기술적·환경적 여건과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끊임 없는 혁신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관광산업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앞으로의 대량 관광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해 나갈 경우 90년대에 300만명 이상의 외래관광객 유치와 연인원 3억원 이상의 국민관광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성숙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濟州道 觀光客의 性向分析 및 觀光産業의 實態分析

1. 濟州道 來道觀光客의 性向 및 觀光費用分析

가. 調査分析의 概要

1) 調査分析의 目的

이 調査는 濟州道를 방문하는 國內·外 觀光客의 旅行性向 및 觀光費用構造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濟州道の 觀光客 誘致増大 및 收容態勢 改善을 위한 觀光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關聯産業의 효율적인 運用에 대비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며, 關聯學問分野의 연구촉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調査期間

調査期間은 1991年 7月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豫備調査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調査를 설계함에 있어서 標本抽出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本調査는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각 1회씩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조사는 1991年 8月 15일부터 8月 22일까지, 2차조사는 1991年 10月 12일부터 10月 19일까지 실시하였고, 3차조사는 1991年 12月 5일부터 12月 12일까지 실시하였다.

3) 調査對象範圍

調査對象은 1991年 濟州道를 방문하는 內·外國人 觀光客을 母集團으로 하였으며, 그 중 기준표본수는 내국인 관광객 1,800명, 외국인 관광객(日本人) 300명으로 총 2,100명이었다. 調査場所는 內國人 觀光客의 경우에 제주국제공항 및 제주항만터미널이었고, 外國인 관광객은 제주도 일원이었다.

4) 調査設計

調査方法은 設問紙에 의한 個別 標準化 面接調査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濟州大學校 觀光經營學科 2, 3學年 女學生)이 조사대상자에게 調査의 目的과 內容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個人的 自己記入方法을 사용하였다.

設問紙는 研究者들이 수 차에 걸쳐 협의를 걸친후 豫備 設問紙를 작성하고 제주국제공항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발견된 問題點을 보완하여 本 設問紙를 확정하였다.

本 調査의 調査對象者 2,100名(內國人 1,800名, 外國人 300名) 중에서 회수된 표본은 총 2,055名(내국인 1,800名, 외국인 255名)으로 설문지 회수율은 97.9%였다. 회수한 설문지에

대한 검색결과 응답내용이 부실한 42부(외국인)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2,013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확정함으로써 총 유효회수율은 95.9%에 이르렀다.

5) 資料處理 및 分析方法

資料處理期間은 1991年 12月 20日부터 1992年 1월 10日까지였다. 확정된 有效標本은 일련의 자료처리절차를 거치고 SPSS/PC+를 이용하여 단순빈도, 누적빈도, 백분율 등 기초통계를 계산하였으며, 交叉分析表 作成, 背景變數別로 10.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適合度檢定(X_2 검증)을 행하였다.

한편 分析에 이용된 표본수는 내국인 관광객 1,800명, 외국인 관광객 213명이지만 Missing Value를 제외하게 됨에 따라 항목과 배경변수별간에 총 응답자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6) 調查對象者의 一般的 性格은 <表 IV-1>과 같이 나타났다.

內國人 觀光客인 경우에 응답자의 性別 構成比는 남녀 각각 65.2%와 34.2%로서 표본구성이 다소 남자에 편중되어 있다. 年齡別 分布는 20代가 58.3%로서 가장 많고, 30代 19.9%, 40代 11.4%, 50代 4.4% 순으로 20~30대가 전체응답자의 7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연령층에 표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제주도가 신희관광지로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신희부부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職業別 分布는 사무기술직이 31.7%로 가장 많고 학생 17.3%, 주부·무직 14.1%, 자영업 11.9%의 비율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농림수산업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訪問回數別로는 제주도를 처음으로 찾아온 관광객이 전체의 49.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우며, 2회 23.3%이고, 5회 이상인 경우도 13.4%에 이르고 있다. 旅行形態別 構成比를 보면 개별여행이 42.2%, 신희여행 26.8%, 단체여행 18.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를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의 여행형태별 분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性別分布가 남자가 82.6%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40代가 37.6%로 가장 많고, 30代 20.2%, 50代 15.5%, 20代 14.1%의 순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職業別 構成比를 보면 內國人的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기술직이 22.5%로 가장 많으며, 자영업 19.7%, 경영관리직이 19.2%로 비교적 그 비율이 높는데 반해, 농림수산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학생 등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訪問回數別 分布는 제주도를 처음 여행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4.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2회 13.1%, 3회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旅行形態別로 보면 단체여행이 72.8%, 개인 및 기타가 25.8%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外國人的 전체 여행형태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表 IV-1> 調査對象者の 一般的 性格

구 분		계		내 국 인		외 국 인	
		응답자수(명)	구성비(%)	응답자수(명)	구성비(%)	응답자수(명)	구성비(%)
성 별	계 (명)	2,013	100.0	1,800	100.0	213	100.0
	남	1,349	67.0	1,173	65.2	176	82.6
	여	653	32.4	616	34.2	37	17.4
	무응답	11	0.5	11	0.6	0	0
연 령 별	계 (명)	2,013	100.0	1,800	100.0	213	100.0
	20세 미만	65	3.2	64	3.6	1	0.5
	20~30세	1,079	53.6	1,049	58.3	30	14.1
	31~40세	401	19.9	358	19.9	43	20.2
	41~50세	285	14.2	205	11.4	80	37.6
	51~60세	113	5.6	80	4.4	33	15.5
	61세 이상	47	2.3	32	1.8	15	7.0
	무응답	23	1.1	12	0.7	11	5.2
직 업 별	계 (명)	2,013	100.0	1,800	100.0	213	100.0
	농림수산업	30	1.5	23	1.3	7	3.3
	자영업	257	12.8	215	11.9	42	19.7
	판매서비스직	76	3.8	73	4.1	3	1.4
	기능작업직	93	4.6	85	4.7	8	3.8
	사무기술직	619	30.8	571	31.7	48	22.5
	경영관리직	120	5.9	79	4.4	41	19.2
	전문자유직	146	7.2	134	7.4	12	5.6
	학생	312	15.5	311	17.3	1	0.5
	주부·무직	274	13.6	254	14.1	20	9.4
무응답	86	4.3	55	3.1	31	14.6	
방 문 횟 수	계 (명)	2,013	100.0	1,800	100.0	213	100.0
	1회	1,053	52.3	894	49.7	159	74.6
	2회	447	22.2	419	23.3	28	13.1
	3회	206	10.2	185	10.3	21	9.9
	4회	61	3.0	61	3.4	0	0
	5회 이상	246	12.2	241	13.4	5	2.3
여 행 형 태 별	계 (명)	2,013	100.0	1,800	100.0	213	100.0
	개인	789	39.2	760	42.2	29	13.6
	신혼여행	484	24.0	482	26.8	2	0.9
	수학여행	59	2.9	58	3.2	1	0.5
	단체여행	482	23.9	327	18.2	155	72.8
	기타	199	9.9	173	9.6	26	12.2

나. 內國人 觀光客의 觀光性向分析

1) 旅行目的

旅行活動은 관광 및 위락활동 등 순수한 觀光目的의 여행과 가사 및 취향활동 그리고 觀光과 其他業務를 겸한 여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現代人은 간혹 여행을 뚜렷한 目的없이 단순히 時間이나 보내는 기회로 삼고, 바람직한 旅行活動을 통한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는 데에서 사회에 각종 부작용을 남기도 한다.

濟州道를 방문한 觀光客의 旅行目的을 살펴보면 <表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 79.9%, 방문 9.1%, 공무 3.9%, 상용 3.2%, 기타 3.1%, 종교·문화 0.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에서 매우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상용, 공무, 종교·문화 등에서 다소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순수 觀光目的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경우 남자들이 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業務를 겸한 관광여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年齡別로는 61세 이상이 다른 年齡層에 비해 관광목적에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訪問에는 20세 미만, 商用에는 51~60세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순수 觀光目的이 농림수산업, 주부·무직, 사무기술직, 전문자유직, 학생,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목적은 경영관리직 8.9%, 기능작업직 5.9%, 판매서비스직 5.5%, 자영업 4.2% 등이다.

여행형태별 여행목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여행인 경우는 관광 68.6%, 방문 17.4%이고, 신혼여행은 관광 98.3%, 수학여행은 관광 89.7%, 상용 3.4% 순이고, 단체여행인 경우는 觀光이 87.5%, 기타 4.9%, 공무 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旅行動機

제주도를 관광하게 된 여행동기는 지난번 여행 17.7%, 친지권유 16.1%, 언론매체 14.9%로 나타나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재방문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여행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여행의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3>에서 보면 性別로는 有意的인 差異가 없으나,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에서는 매우 有意的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은 20세 미만은 친지권유와 지난번 여행, 20~30세는 언론매체, 친지권유, 지난번 여행 순이고, 30~50세는 지난번 여행과 친지권유, 61세 이상은 친지권유, 호텔·여행사 광고, 지난번 여행이 각각 25.0%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이 호텔·여행사 광고, 친지권유, 안내책자와 지난번 여행 순인데 반해, 자영업, 기능작업직,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직은 지난번 여행, 친지권유, 언론매체 순이나 판매서비스직은 친지권유, 지난번 여행, 언론매체에 다소 높은 응답을 하고 있고, 사무기술직은 언론매체, 지난번 여행과 호텔·여행사 광고, 학생은 지난번 여행, 언론매체, 친지권유 순이며, 주부·무직은 친지권유와 지난번 여행에 높게 응답하고 있다.

여행형태별 여행동기로는 개인여행이 지난번 여행 24.2%, 친지권유 18.6%, 언론매체 12.4% 순이고, 신혼여행인 경우는 언론매체와 호텔·여행사 광고가 각각 22.1%, 친지권유가 21.5%로

<表 IV-2> 旅行目的

(단위 : %)

구 분	계 (명)	관 광	상 용	방 문	공 무	종 교 문 화	기 타	검 증 결 과		
								X _i	P	
성 별	계 (명)	1,789 (100.0)	79.9	3.2	9.1	3.9	0.7	3.1	25.85327	*** .0001
	남	1,173 (100.0)	77.9	4.0	8.8	5.0	1.1	3.2		
	여	616 (100.0)	83.8	1.8	9.6	1.8	0	3.1		
연 령 별	계 (명)	1,788 (100.0)	80.0	3.2	9.0	3.9	0.7	3.1	106.23407	*** .0000
	20세 미만	64 (100.0)	59.4	1.6	20.3	4.7	0	14.0		
	20 ~ 30세	1,049 (100.0)	81.5	2.4	9.3	2.8	0.8	3.2		
	31 ~ 40세	358 (100.0)	78.8	3.9	8.7	6.4	0.3	2.0		
	41 ~ 50세	205 (100.0)	81.5	3.4	6.8	6.3	0.5	1.5		
	51 ~ 60세	80 (100.0)	73.8	13.8	6.3	0	3.8	2.5		
61세 이상	32 (100.0)	90.6	0	0	6.3	0	3.1			
직 업 별	계 (명)	1,745 (100.0)	80.0	3.2	9.2	3.9	0.6	3.1	115.71039	*** .0000
	농림수산업	23 (100.0)	95.7	0	4.3	0	0	0		
	자영업	215 (100.0)	78.6	5.6	10.2	4.2	0.5	0.9		
	판매서비스직	73 (100.0)	78.1	5.5	9.6	5.5	1.4	0		
	기능작업직	85 (100.0)	72.9	2.4	16.5	5.9	0	2.4		
	사무기술직	571 (100.0)	83.7	3.9	6.7	4.0	0.2	1.6		
	경영관리직	79 (100.0)	78.5	5.1	6.3	8.9	0	1.3		
	전문자유직	134 (100.0)	81.3	3.0	4.5	3.7	3.0	4.5		
	학생	311 (100.0)	70.4	1.6	14.5	3.9	1.0	8.7		
주부·무직	254 (100.0)	85.8	1.2	8.7	1.2	0.4	2.8			
여 행 태 별	계 (명)	1,800 (100.0)	80.0	3.2	9.1	3.9	0.7	3.1	268.37291	*** .0000
	개인	760 (100.0)	68.6	5.1	17.4	5.1	1.2	2.6		
	신혼여행	482 (100.0)	98.3	0	0.2	0	0	1.5		
	수학여행	58 (100.0)	89.7	3.4	5.2	0	0	1.7		
	단체여행	327 (100.0)	87.5	1.2	1.8	4.0	0.6	4.9		
	기타	173 (100.0)	61.8	7.5	12.1	10.4	1.2	6.9		

註 : 무응답은 제외함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3> 旅行動機

(단위 : %)

구 분	계 (명)	언 론 매 체	친 지 권 유	호텔·여행사 광고	안 내 책 자	지난번 여행	기 타	검 증 결 과		
								X ₁	P	
성 별	계 (명)	1,781 (100.0)	14.9	16.1	10.4	5.9	17.7	34.9	5.17893	.3944
	남	1,167 (100.0)	14.1	16.0	9.8	5.7	18.6	35.7		
	여	614 (100.0)	16.4	16.3	11.7	6.2	16.1	33.2		
연 령 별	계 (명)	1,780 (100.0)	14.8	16.1	10.4	5.9	17.8	34.9	77.14181	*** .0000
	20세 미만	64 (100.0)	9.4	17.2	4.7	6.3	14.1	48.4		
	20 ~ 30세	1,045 (100.0)	16.8	15.7	12.8	6.7	13.7	34.3		
	31 ~ 40세	356 (100.0)	13.5	16.3	6.5	4.2	25.6	34.0		
	41 ~ 50세	204 (100.0)	12.3	18.6	6.4	5.4	22.5	34.8		
	51 ~ 60세	79 (100.0)	11.4	10.1	6.3	5.1	24.1	43.0		
	61세 이상	32 (100.0)	0	25.0	25.0	3.1	25.0	21.9		
직 업 별	계 (명)	1,737 (100.0)	14.7	16.2	10.4	5.6	18.0	35.1	98.23749	*** .0000
	농림수산업	23 (100.0)	4.3	26.1	30.4	8.7	8.7	21.7		
	자영업	215 (100.0)	14.4	17.2	7.0	5.6	23.7	32.1		
	판매서비스직	73 (100.0)	12.3	15.1	11.0	9.6	13.7	38.4		
	기능작업직	85 (100.0)	12.9	16.5	8.2	5.9	17.6	38.8		
	사무기술직	567 (100.0)	16.9	14.3	14.6	6.3	16.0	31.7		
	경영관리직	78 (100.0)	15.4	17.9	10.3	1.3	19.2	35.9		
	전문자유직	134 (100.0)	14.9	16.4	11.2	4.5	20.1	32.8		
	학생	310 (100.0)	14.8	11.0	4.2	4.2	16.8	49.0		
	주부·무직	252 (100.0)	11.5	24.6	9.9	6.3	19.4	28.2		
여 행 태 별	계 (명)	1,792 (100.0)	14.8	16.1	10.5	5.9	17.7	34.9	275.10629	*** .0000
	개인	757 (100.0)	12.4	18.6	4.6	5.3	24.2	34.9		
	신혼여행	480 (100.0)	22.1	21.5	22.1	6.0	10.2	18.1		
	수학여행	57 (100.0)	21.1	3.5	14.0	5.3	14.0	42.1		
	단체여행	326 (100.0)	10.7	8.9	10.1	7.4	17.5	42.1		
	기타	172 (100.0)	11.0	8.1	3.5	5.2	12.2	59.9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나타나 광고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학여행은 언론매체 21.1%, 호텔·여행사 광고와 지난번 여행 각각 14.0%, 이 밖에 단체여행인 경우는 지난번 여행, 언론매체, 호텔·여행사 광고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3) 旅行期間

旅行期間의 장·단은 체재형 관광이나 아니나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尺度가 되고 있다. <表 IV-4>에서 보이면 2박 3일 47.4%, 3박 4일 27.6%로 나타나 전체 방문 관광객의 75.0%가 2박에서 3박을 여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濟州觀光이 체재형 관광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객의 여행기간은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에 따라 매우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旅行期間을 보면, 20세 미만과 20~30세는 2박 3일, 3박 4일, 5박 이상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31~50세는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1세에서 60세는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순이며, 61세 이상은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동안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과 주부·무직이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순이며,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은 모두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 경우는 3박 4일, 2박 3일, 5박 이상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비교적 長期間 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 신혼여행, 단체여행 모두 2박 3일과 3박 4일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수학여행은 3박 4일에 72.4%, 4박 5일에 15.5%의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수학여행인 경우가 가장 長期滞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利用交通手段

제주도내 利用交通手段은 관광버스 31.9%, 택시 28.3%, 시내·외버스 17.7%, 임대승용차 13.4%, 자가용 7.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관광객의 일반적 성격상의 응답비율을 보면 성별에서는 有意的인 差異가 별로 없으나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에서는 매우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은 시내·외버스를, 21~30세, 41~50세, 61세 이상은 관광버스와 택시 순이고, 31~40세는 택시와 관광버스를, 51~60세는 택시와 임대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주부·무직이 관광버스를,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은 택시를, 학생은 시내·외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은 택시와 시내·외버스를, 신혼여행은 택시와 관광버스를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은 관광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5) 利用宿泊施設

숙박시설은 旅行者에게 숙식에 관계되는 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旅行目的地에서의 滞在를 도와주는 施設들이다. 특히, 제주도는 陸地部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宿泊

<表 IV-4> 旅行期間

(단위 : %)

구 분	계 (명)	하 루	1 박 2 일	2 박 3 일	3 박 4 일	4 박 5 일	5 박 이 상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00.0)	1,789	1.0	8.3	47.4	27.6	7.6	8.0	9.61069	* .0870
	남 (100.0)	1,173	1.3	8.5	46.2	27.0	7.8	9.1		
	여 (100.0)	616	0.5	8.3	49.7	28.6	7.1	5.8		
연 령 별	계 (명) (100.0)	1,788	1.0	8.3	47.5	27.6	7.6	8.0	90.22573	*** .0000
	20세 미만 (100.0)	64	0	6.3	45.3	28.1	7.8	12.5		
	20 ~ 30세 (100.0)	1,049	0.6	5.9	43.6	32.4	8.0	9.5		
	31 ~ 40세 (100.0)	358	1.7	12.6	53.1	20.9	5.9	5.9		
	41 ~ 50세 (100.0)	205	1.5	13.7	57.1	15.6	5.9	6.3		
	51 ~ 60세 (100.0)	80	3.8	8.8	47.5	25.0	13.8	1.3		
61세 이상 (100.0)	32	0	9.4	56.3	28.1	6.3	0			
직 업 별	계 (명) (100.0)	1,745	1.0	8.6	47.7	27.6	7.4	7.9	194.81087	*** .0000
	농림수산업 (100.0)	23	0	0	56.5	30.4	8.7	4.3		
	자영업 (100.0)	215	0.9	11.6	54.9	22.8	5.6	4.2		
	판매서비스직 (100.0)	73	1.4	16.4	45.2	16.4	11.0	9.6		
	기능작업직 (100.0)	85	0	8.2	55.3	21.2	5.9	9.4		
	사무기술직 (100.0)	571	1.1	8.1	53.2	27.7	4.6	5.4		
	경영관리직 (100.0)	79	3.8	17.7	44.3	20.3	11.4	2.5		
	전문자유직 (100.0)	134	1.5	11.2	51.5	23.9	4.5	7.5		
	학생 (100.0)	311	0.3	3.5	23.5	43.4	12.9	16.4		
주부·무직 (100.0)	254	0.8	6.3	55.5	21.7	8.7	7.1			
여 행 태 별	계 (명) (100.0)	1,800	1.0	8.4	47.4	27.7	7.6	7.9	283.15151	*** .0000
	개인 (100.0)	760	1.4	12.2	42.8	21.6	8.8	13.2		
	신혼여행 (100.0)	482	0	1.2	59.1	34.9	3.9	0.8		
	수학여행 (100.0)	58	0	0	6.9	72.4	15.5	5.2		
	단체여행 (100.0)	327	1.2	9.2	57.8	21.7	7.6	2.4		
	기타 (100.0)	173	1.7	12.7	28.9	31.2	9.2	16.2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5> 利用交通手段

(단위 : %)

구 분		계 (명)	택 시	임 대 승용차	관 광 버 스	자가용	시내· 외 버 스	기 타	검 증 결 과	
									X ₁	P
성 별	계 (명)	1,776 (100.0)	28.3	13.4	31.9	7.5	17.7	1.2	12.10189	** .0334
	남	1,164 (100.0)	28.5	14.5	30.3	7.5	17.4	1.7		
	여	612 (100.0)	27.9	11.3	34.8	7.5	18.1	0.3		
연 령 별	계 (명)	1,775 (100.0)	28.4	13.5	31.8	7.4	17.7	1.2	179.79841	*** .0000
	20세 미만	64 (100.0)	14.1	9.4	12.5	12.5	51.6	0		
	20 ~ 30세	1,047 (100.0)	28.6	11.5	30.9	5.5	22.3	1.3		
	31 ~ 40세	353 (100.0)	32.9	19.8	30.3	9.6	6.5	0.8		
	41 ~ 50세	200 (100.0)	26.5	12.0	44.5	9.0	7.0	1.0		
	51 ~ 60세	79 (100.0)	29.1	21.5	20.3	13.9	11.4	3.8		
	61세 이상	32 (100.0)	12.5	6.3	65.6	9.4	6.3	0		
직 업 별	계 (명)	1,732 (100.0)	28.2	13.5	31.9	7.6	17.5	1.3	272.64426	*** .0000
	농림수산업	23 (100.0)	8.7	8.7	69.6	4.3	8.7	0		
	자영업	211 (100.0)	25.1	18.0	33.2	14.2	8.1	1.4		
	판매서비스직	73 (100.0)	24.7	16.4	37.0	5.5	16.4	0		
	기능작업직	83 (100.0)	33.7	13.3	31.3	9.6	12.0	0		
	사무기술직	568 (100.0)	34.7	12.7	32.0	5.6	14.3	0.7		
	경영관리직	79 (100.0)	34.2	11.4	32.9	10.1	10.1	1.3		
	전문자유직	134 (100.0)	41.0	17.9	27.6	7.5	6.0	0		
	학생	311 (100.0)	11.6	8.4	25.7	7.4	43.1	3.9		
	주부·무직	250 (100.0)	29.2	16.0	35.6	6.0	12.4	0.8		
여 행 태 별	계 (명)	1,785 (100.0)	28.4	13.5	31.8	7.5	17.6	1.2	566.80719	*** .0000
	개인	750 (100.0)	31.9	13.6	15.1	13.1	25.2	1.2		
	신혼여행	479 (100.0)	42.4	13.4	40.3	1.9	1.5	0.6		
	수학여행	58 (100.0)	0	1.7	89.7	0	8.6	0		
	단체여행	325 (100.0)	5.5	12.6	60.0	4.3	16.0	1.5		
	기타	173 (100.0)	27.2	19.1	8.7	6.9	35.3	2.9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 0.01

** : P < 0.05

* : P < 0.1

<表 IV-6> 利用宿泊施設

(단위 : %)

구 분		계 (명)	호 텔	여 관	민 박	친 구 친 척	야 영	콘 도	산 장	기 타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777 (100.0)	62.2	19.7	4.2	6.8	1.2	4.4	0.2	1.2	14.19337	*** .0478
	남	1,168 (100.0)	61.2	21.1	3.8	6.8	1.5	3.9	0.2	1.6		
	여	609 (100.0)	64.2	17.1	5.1	6.7	0.7	5.4	0.3	0.5		
연 령 별	계 (명)	1,776 (100.0)	62.2	19.7	4.2	6.8	1.2	4.4	0.2	1.2	103.37289	*** .0000
	20세 미만	64 (100.0)	26.6	32.8	10.9	21.9	1.6	3.1	0	3.1		
	20 ~ 30세	1,041 (100.0)	61.8	19.2	5.3	6.8	1.4	3.7	0.3	1.5		
	31 ~ 40세	357 (100.0)	70.3	17.9	0.8	5.0	1.1	4.2	0	0.6		
	41 ~ 50세	203 (100.0)	63.1	21.7	3.0	6.4	0	4.9	0	1.0		
	51 ~ 60세	79 (100.0)	55.7	20.3	3.8	5.1	1.3	12.7	1.3	0		
61세 이상	32 (100.0)	68.8	15.6	3.1	0	0	12.5	0	0			
직 업 별	계 (명)	1,734 (100.0)	62.1	19.8	4.1	6.9	1.2	4.5	0.2	1.2	201.29316	*** .0000
	농림수산업	23 (100.0)	78.3	13.0	0	4.3	0	4.3	0	0		
	자영업	213 (100.0)	70.4	16.9	1.4	6.6	0.9	3.3	0.5	0		
	판매서비스직	73 (100.0)	63.0	23.3	4.1	5.5	0	4.1	0	0		
	기능작업직	84 (100.0)	61.9	16.7	2.4	11.9	3.6	1.2	0	2.4		
	사무기술직	569 (100.0)	68.9	15.8	3.3	5.3	0.9	4.9	0.2	0.7		
	경영관리직	78 (100.0)	76.9	15.4	0	5.1	1.3	1.3	0	0		
	전문자유직	133 (100.0)	66.9	12.0	3.0	5.3	0.8	9.0	0	3.0		
	학생	310 (100.0)	33.5	35.2	11.3	10.3	2.3	4.5	0.3	2.6		
주부·무직	251 (100.0)	65.7	18.7	2.0	6.8	0.8	4.4	0.4	1.2			
여 행 태 별	계 (명)	1,788 (100.0)	62.2	19.7	4.2	6.8	1.2	4.4	0.2	1.2	381.80670	*** .0000
	개인	752 (100.0)	48.9	24.5	4.9	13.4	1.6	5.5	0.1	1.1		
	신혼여행	482 (100.0)	92.7	4.1	0.4	0.2	0	2.3	0.2	0		
	수학여행	57 (100.0)	68.4	21.1	1.8	0	1.8	0.1	0	3.5		
	단체여행	325 (100.0)	59.4	27.1	4.9	0.6	0.6	5.2	0.6	1.5		
기타	172 (100.0)	38.4	28.5	11.0	9.9	3.5	4.7	0	4.1			

註: 무응답은 제외된 것임.

***: P < 0.01

** : P < 0.05

* : P < 0.1

形 觀光旅行을 즐기고 있다. 숙박시설의 종류는 觀光振興法과 宿泊業法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호텔, 여관, 콘도 등의 常時宿泊施設과 민박, 친구·친척집, 야영, 산장 등으로 구분하여 관광객의 宿泊形態를 알아보고자 한다.

〈表 IV-6〉에서 보면 이용숙박시설은 호텔 62.2%, 여관 19.7%, 친구·친척집 6.8%, 콘도 4.4%, 민박 4.2%, 야영 1.2%, 산장 0.2%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용숙박시설은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로 매우 有意的 差異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 호텔, 여관, 친구·친척집에 각각 20.0% 이상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세 이상은 모두가 호텔과 여관 순으로 응답하고 있고, 51~60세, 61세 이상인 경우는 콘도에 각각 12.7%, 12.5%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거의 모든 직업에서 호텔, 여관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기능직업직과 학생인 경우는 친구·친척집에 숙박한 비율이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의 경우 호텔, 여관, 친구·친척집에,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은 호텔과 여관에 85.0% 이상이 宿泊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혼여행은 92.7%가 호텔에서 宿泊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고급 숙박시설을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利用施設 또는 商品狀態

利用施設 또는 商品의 狀態에서는 宿泊施設의 경우 매우 좋다와 좋다가 38.8%,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가 11.6%, 교통시설은 48.9%와 10.2%, 여행사는 22.1%와 10.1%, 관광지는 62.5%와 3.5%의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대체로 良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점의 경우는 매우 좋다와 좋다가 21.2%인데 비해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에 26.9%가 응답하고 있어 飲食店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념품점도 19.1%와 16.5%로 응답함으로써 이 역시 狀態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表 IV-7〉 利用施設 또는 商品狀態

(단위: %)

구 분	계(명) (100.0)	매우 좋다	좋 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쁨	무응답
숙박시설	1,800 (100.0)	12.8	26.0	41.9	9.4	2.2	7.7
교통시설	1,800 (100.0)	10.0	38.9	35.6	9.1	1.1	5.3
음 식 점	1,800 (100.0)	3.0	18.2	45.9	22.3	4.6	6.0
기념품점	1,800 (100.0)	2.6	16.5	45.7	13.8	2.7	18.8
여 행 사	1,800 (100.0)	3.8	18.3	33.2	6.9	3.2	34.6
관 광 지	1,800 (100.0)	21.8	40.7	24.7	2.5	1.0	9.2

7) 利用施設 또는 商品の 서어비스

이용시설 또는 상품의 서어비스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여행사와 관광지가 매우 좋다와 좋다가 각각 22.6%, 36.8%인데 반해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가 9.9%와 8.6%로 나타나 나쁘다는 응답이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숙박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기념품점은 모두 11.0% 이상이 서어비스가 나쁘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매우 나쁘다가 24.0%의 비율을 보여 음식점의 서어비스가 가장 나빴던 것으로 보인다.

<表 IV-8> 利用施設 또는 商品の 서어비스

(단위 : %)

구 분	계(명)	매우 좋다	좋 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쁨	무응답
숙박시설	1,800 (100.0)	9.6	25.4	40.4	12.2	2.4	9.9
교통시설	1,800 (100.0)	8.4	31.6	39.8	9.6	1.8	8.9
음 식 점	1,800 (100.0)	2.9	16.8	47.0	19.4	4.6	9.3
기념품점	1,800 (100.0)	2.7	15.9	45.3	12.0	2.8	21.3
여 행 사	1,800 (100.0)	5.3	17.3	31.3	7.2	2.7	36.2
관 광 지	1,800 (100.0)	7.7	29.1	42.2	7.3	1.3	12.4

8) 利用施設 또는 商品の 價格水準

利用施設 또는 商品の 價格水準에 대한 응답을 보면, 매우 비싸다와 비싸다는 응답이 기념품점 47.8%, 음식점 47.6%, 숙박시설 38.6%, 관광지 33.4%, 교통시설 27.6%, 여행사 22.7%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觀光客들 대부분은 이용시설과 상품의 가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음식점과 기념품점의 경우 매우 비싸다와 비싸다는 응답이 4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여기에 대한 가격관리로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表 IV-9> 利用施設 또는 商品の 價格水準

(단위 : %)

구 분	계(명)	매우 비싸다	비싸다	보통이다	싼 편이다	매우 싸다	무응답
숙박시설	1,800 (100.0)	26.8	11.8	48.0	1.8	0.5	11.1
교통시설	1,800 (100.0)	16.2	11.4	57.4	3.9	0.4	10.7
음 식 점	1,800 (100.0)	33.4	14.2	40.8	1.7	0.3	9.7
기념품점	1,800 (100.0)	35.3	11.9	29.9	1.1	0.3	21.4
여 행 사	1,800 (100.0)	14.5	8.2	37.9	1.6	0.4	37.4
관 광 지	1,800 (100.0)	20.7	12.7	49.1	3.1	0.5	13.9

9)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제주도 여행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는 해안경관 79.4%, 한라산 7.4%, 기암과 폭포 7.3%, 풍습과 관습 3.1%, 날씨 1.8%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濟州旅行에서 해안경관과 한라산에 대한 인상이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10〉에서 볼 때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로는 有意的인 差異가 없으나 性別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해안경관 78.5%, 한라산 7.9%, 기암·폭포 7.6% 순이며, 여자는 해안경관 81.0%, 기암·폭포 6.9%, 한라산 6.4%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10) 旅行中 參與한 活動

관광객이 濟州道에서 旅行中 參與한 活動으로는 도시관광에서 목장·승마장까지 주로 10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관광 20.7%, 등산 19.7%, 나이트클럽 10.9%, 수영 8.9%, 감귤원 7.4%, 볼링·탁구 6.4%, 자연관광지 6.2%, 해저관광 4.3%, 낚시 2.7%, 목장과 승마장 2.6%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表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旅行中 參與한 活動은 性別,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로 매우 有意的인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도시관광과 등산, 나이트클럽에 47.0%가 여자는 59.6%가 응답하고 있어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에서 이 세 활동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은 등산, 도시관광, 볼링·탁구를, 21~30세는 등산, 도시관광, 나이트클럽을, 31~50세는 도시관광과 등산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51~60세는 등산, 도시관광, 自然觀光地를, 61세 이상은 도시관광과 自然觀光地에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을수록 정적인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은 都市觀光과 自然觀光地를, 자영업, 기능직, 사무기술직, 주부·무직은 도시관광과 등산, 판매서비스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은 도시관광과 나이트클럽을, 학생은 43.5%가 登山을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의 경우 도시관광, 등산, 수영을, 신혼여행은 도시관광, 나이트클럽, 감귤원을, 수학여행은 등산과 볼링·탁구를 選好함으로써 가장 動的인 活動을 즐기고 있다. 이 밖에 단체여행은 登山과 都市觀光, 나이트클럽에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11) 不便 또는 不滿足했던 점

제주도는 최근 급속한 관광객의 증가 속에서 需要에 따른 供給의 부족, 서어비스의 미비, 無秩序한 商去來秩序 등으로 관광객의 不便 또는 不滿足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表 IV-12〉에서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여행 중 느꼈던 不滿意事項에 대해 9개 項目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表 IV-10〉 가장 인상깊었던 점

(단위 : %)

구 분	계 (명)	해 안 경 관	한라산	풍 습 관 습	기 암 폭 포	날 씨	기 타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759 (100.0)	79.4	7.4	3.1	7.3	1.8	1.1	15.72721 .0465	**
	남	1,150 (100.0)	78.5	7.9	2.4	7.6	2.3	1.3		
	여	609 (100.0)	81.0	6.4	4.3	6.9	1.0	0.5		
연 령 별	계 (명)	1,758 (100.0)	79.3	7.5	3.1	7.3	1.8	1.1	23.52364 .9823	
	20세 미만	64 (100.0)	76.6	7.8	6.3	6.3	3.1	0		
	20 ~ 30세	1,032 (100.0)	78.7	7.8	3.6	7.5	1.4	1.2		
	31 ~ 40세	354 (100.0)	81.4	7.6	1.7	6.8	2.0	0.6		
	41 ~ 50세	199 (100.0)	80.4	6.0	2.5	7.0	3.0	1.0		
	51 ~ 60세	77 (100.0)	76.6	7.8	2.6	10.4	1.3	1.3		
	61세 이상	32 (100.0)	81.3	3.1	3.1	6.3	3.1	3.1		
직 업 별	계 (명)	1,715 (100.0)	79.3	7.5	3.1	7.4	1.7	1.0	63.79141 .2216	
	농림수산업	23 (100.0)	82.6	8.7	4.3	4.3	0	0		
	자영업	213 (100.0)	79.3	8.5	0.5	8.0	1.9	1.8		
	판매서비스직	70 (100.0)	78.6	7.1	2.9	11.4	0	0		
	기능작업직	83 (100.0)	74.7	10.8	2.4	9.6	2.4	0		
	사무기술직	558 (100.0)	77.6	6.8	4.7	7.9	2.3	0.7		
	경영관리직	76 (100.0)	81.6	1.3	3.9	9.2	3.9	0		
	전문자유직	132 (100.0)	80.3	6.1	3.8	4.5	2.3	3.1		
	학생	309 (100.0)	79.6	10.7	2.3	5.8	0.3	1.3		
	주부·무직	251 (100.0)	82.9	5.6	2.4	7.2	1.6	0.4		
여 행 태 별	계 (명)	1,768 (100.0)	79.4	7.4	3.1	7.3	1.8	1.0	37.22788 .2409	
	행개인	750 (100.0)	76.7	8.5	2.7	8.7	2.3	1.1		
	신혼여행	472 (100.0)	81.8	4.2	4.2	7.6	1.1	1.1		
	수학여행	57 (100.0)	89.5	5.3	0	5.3	0	0		
	단체여행	322 (100.0)	82.3	8.1	2.8	3.7	2.2	0.9		
	기타	167 (100.0)	75.4	10.8	3.6	7.8	1.8	0.6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11〉 旅行中 參與한 活動

(단위 : %)

구 분	계 (명)	도시 관광	등산	나이 트 클럽	수영	감굴 원	볼링 · 탁구	자연 관광 지	해저 관광	낚시	목장 승마 장	기타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751 (100.0)	20.7	19.7	10.9	8.9	7.4	6.4	6.2	4.3	2.7	2.6	10.2	66.68319	*** .0000
	남	1,143 (100.0)	19.0	17.8	10.2	8.5	7.2	7.7	6.9	4.0	3.4	2.1	13.2		
	여	608 (100.0)	24.0	23.4	12.2	9.7	7.4	3.9	4.8	4.6	1.2	3.5	5.3		
연 령 별	계 (명)	1,750 (100.0)	20.7	19.8	10.9	8.9	7.3	6.3	6.2	4.2	2.7	2.6	10.4	253.84554	*** .0000
	20세 미만	63 (100.0)	15.9	42.9	7.9	7.9	0	12.7	4.8	3.2	1.6	0	3.1		
	20 ~ 30세	1,035 (100.0)	19.6	21.1	12.1	10.2	7.7	8.1	4.7	3.0	2.1	3.3	8.1		
	31 ~ 40세	348 (100.0)	21.6	16.4	10.1	6.0	8.3	4.3	7.2	6.6	4.6	1.7	13.2		
	41 ~ 50세	196 (100.0)	25.0	14.8	9.7	9.2	6.6	1.0	9.2	5.1	3.1	1.0	15.3		
	51 ~ 60세	76 (100.0)	14.5	15.8	7.9	7.9	3.9	2.6	10.5	6.6	2.6	3.9	23.7		
61세 이상	32 (100.0)	43.8	9.4	3.1	0	9.4	0	18.8	9.4	0	0	6.1			
직 업 별	계 (명)	1,708 (100.0)	20.7	19.8	10.8	8.8	7.3	6.3	6.4	4.3	2.6	2.5	10.5	422.58769	*** .0000
	농림수산업	23 (100.0)	30.4	0	13.0	4.3	13.0	0	17.4	13.0	0	0	8.9		
	자영업	210 (100.0)	23.8	11.9	9.0	7.6	8.6	2.4	7.1	6.2	2.9	3.3	17.2		
	판매서비스직	71 (100.0)	21.1	12.7	18.3	9.9	5.6	4.2	8.5	5.6	1.4	0	12.7		
	기능작업직	81 (100.0)	18.5	21.0	14.8	9.9	6.2	7.4	1.2	4.9	7.4	1.2	7.5		
	사무기술직	561 (100.0)	23.5	16.0	11.9	7.0	8.0	6.2	6.6	4.3	2.9	3.0	10.6		
	경영관리직	77 (100.0)	15.6	14.3	15.6	6.5	18.2	5.2	3.9	5.2	2.6	1.3	11.6		
	전문자유직	130 (100.0)	23.1	8.5	13.8	7.7	6.9	9.2	7.7	0.8	2.3	4.6	15.4		
	학생	306 (100.0)	10.5	43.5	4.6	12.4	1.6	11.8	5.6	1.3	1.6	0.3	6.8		
주부·무직	249 (100.0)	24.5	17.3	10.8	10.8	8.8	2.8	6.4	6.4	2.0	3.6	6.6			
여 행 태 형 별	계 (명)	1,760 (100.0)	20.7	19.7	10.9	8.9	7.4	6.4	6.2	4.3	2.7	2.6	10.2	494.21284	*** .0000
	개인	737 (100.0)	20.9	17.9	7.3	13.6	3.7	7.3	7.9	4.1	4.2	1.6	11.5		
	신혼여행	477 (100.0)	27.0	6.7	16.4	1.9	15.7	4.4	4.2	5.2	1.3	6.5	10.7		
	수학여행	58 (100.0)	1.7	62.1	5.2	3.4	3.4	13.8	1.7	0	1.7	0	7.0		
	단체여행	324 (100.0)	17.3	32.1	12.3	5.9	7.4	3.7	6.2	4.6	2.5	0	8.0		
	기타	164 (100.0)	14.6	26.2	9.8	15.9	1.2	10.4	6.1	3.0	0.6	1.8	10.4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12> 不便 또는 不満足 사항

(단위 : %)

구 분	계 (명)	택시 불편	중사원 불편	위락 시설 부족	휴식 시설 부족	교통망 미흡	관광지 혼잡	숙박 시설 부족	안내소 부족	관광 기념품가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587 (100.0)	11.3	20.1	10.8	8.2	13.1	3.3	12.0	5.5	15.8	15.27975	* .0539
	남	1,032 (100.0)	11.2	19.6	11.2	8.1	12.6	3.8	12.8	6.5	14.1		
	여	555 (100.0)	11.4	21.1	9.9	8.3	14.1	2.5	10.5	3.6	18.7		
연 령 별	계 (명)	1,586 (100.0)	11.3	20.1	10.7	8.1	12.9	3.3	12.2	5.5	15.8	58.29121	** .0308
	20세 미만	58 (100.0)	3.4	12.1	12.1	15.5	19.0	0	22.4	5.2	10.3		
	20 ~ 30세	947 (100.0)	11.6	20.1	10.8	8.1	13.9	2.5	11.7	5.1	16.2		
	31 ~ 40세	323 (100.0)	12.4	18.9	11.5	5.3	12.1	5.9	10.8	7.4	15.8		
	41 ~ 50세	167 (100.0)	12.0	25.1	7.2	9.6	7.2	2.4	15.6	3.6	17.4		
	51 ~ 60세	63 (100.0)	11.1	20.6	12.7	7.9	15.9	4.8	7.9	6.3	12.7		
61세 이상	28 (100.0)	3.6	21.4	14.3	17.9	3.6	7.1	10.7	7.1	14.3			
직 업 별	계 (명)	1,551 (100.0)	11.3	20.1	10.8	8.2	13.2	3.1	12.1	5.4	15.9	90.76863	** .0155
	농림수산업	20 (100.0)	5.0	35.0	10.0	5.0	5.0	0	15.0	0	25.9		
	자영업	180 (100.0)	9.4	20.0	13.3	11.7	11.7	4.4	8.9	6.7	13.9		
	판매서비스직	65 (100.0)	10.8	24.6	12.3	12.3	7.7	3.1	10.8	6.2	12.3		
	기능작업직	74 (100.0)	14.9	18.9	2.7	9.5	9.5	2.7	16.2	4.1	21.6		
	사무기술직	508 (100.0)	11.6	21.5	11.6	6.5	14.2	3.3	9.4	5.5	16.3		
	경영관리직	69 (100.0)	13.0	13.0	11.6	10.1	8.7	2.9	10.1	5.8	24.6		
	전문자유직	119 (100.0)	16.0	22.7	8.4	8.4	15.1	5.0	10.1	4.2	10.1		
	학생	281 (100.0)	6.8	15.7	12.5	9.6	16.0	1.8	18.9	7.5	11.4		
주부·무직	235 (100.0)	14.5	20.9	8.1	5.5	12.8	2.6	12.3	3.0	20.4			
여 행 태 별	계 (명)	1,596 (100.0)	11.3	20.0	10.8	8.1	13.1	3.3	12.2	5.5	15.7	174.03633	*** .0000
	개인	653 (100.0)	12.9	19.6	10.7	6.4	16.5	4.7	8.9	8.6	11.6		
	신혼여행	439 (100.0)	13.4	21.2	9.1	8.4	10.5	3.0	7.1	3.0	24.4		
	수학여행	53 (100.0)	1.9	22.6	11.3	13.2	5.7	0	30.2	5.7	9.4		
	단체여행	291 (100.0)	5.8	21.0	9.6	10.0	8.6	1.7	23.4	2.4	17.5		
	기타	160 (100.0)	11.9	15.6	17.5	9.4	16.9	2.5	13.8	5.0	7.5		

註 : 무응답은 제외함

*** : P < 0.01

** : P < 0.05

* : P < 0.1

관광객의 제주도 旅行中の 不滿으로는 從事員不親切 20.1%, 觀光紀念品價格 15.8%, 交通網未洽 13.1%, 宿泊施設不足 12.0%, 택시 불친절 11.3% 순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응답을 응답자의 一般의性格에 따라 분류할 경우 연령, 직업, 여행형태별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 숙박시설부족과 교통망 미흡에 각각 22.4%와 19.0%를, 20~50세는 從事員 不親切과 관광기념품가격에 높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51~60세는 종사원 불친절과 교통망 미흡을, 61세 이상은 종사원 불친절과 휴식시설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이 점들에 대한 施設擴充 및 서어비스 제고가 요망된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이 종사원 불친절에 가장 높은 35.0%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주부·무직은 종사원 불친절과 관광기념품가격을, 기능직업직은 종사원 불친절과 숙박시설부족에, 전문자유직은 종사원 불친절과 교통망 미흡을, 학생은 숙박시설부족과 교통망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의 경우 從事員 不親切과 교통망 미흡을, 신혼여행은 관광기념품 가격과 종사원 不親切을,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은 숙박시설부족과 종사원 불친절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혼여행의 경우는 기념품점에서 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불만이 있고,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의 경우는 한 객실에 여러명이 投宿하는 과정에서 宿泊施設 不足을 호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2) 訪問前期待와 訪問後의 満足度

濟州道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濟州觀光에서 매우 만족 7.9%, 만족 32.2%, 보통 44.3%, 실망 8.8%, 매우 실망 3.8%의 比率로 응답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연령별, 여행형태별에서 매우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과 20~30세의 경우 실망과 매우 실망에 각각 17.2%와 15.2%의 응답을 하고 있어 젊은층에서 不満足比率이 높으며, 31~40세는 11.0%, 41~50세는 5.5%, 51~60세는 2.6%, 61세 이상은 6.3%가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満足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형태별에서는 개인여행의 경우 만족과 매우 만족 46.7%, 실망과 매우 실망 9.6%, 신혼여행은 각각 35.5%와 18.8%, 수학여행은 51.7%와 15.5%, 단체여행은 41.1%와 11.4%로 응답하고 있음을 볼 때, 신혼여행의 경우에서 실망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수학여행인 경우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실망에도 15.5%가 응답하고 있다.

〈表 IV-13〉 訪問前期待와 訪問後의 満足度

(단위 : %)

구 분	계 (명)	매 우 만족	만 족	보 통	실 망	매 우 실 망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779 (100.0)	7.9	35.2	44.3	8.8	3.8	1.84683	.7639
	남	1,165 (100.0)	7.4	35.1	45.2	8.8	3.6		
	여	614 (100.0)	8.8	35.5	42.7	9.0	4.1		
연 령 별	계 (명)	1,778 (100.0)	7.9	35.3	44.2	8.8	3.8	52.99411	*** .0001
	20세 미만	64 (100.0)	3.1	42.2	37.5	10.9	6.3		
	20 ~ 30세	1,046 (100.0)	8.1	34.3	42.4	10.6	4.6		
	31 ~ 40세	356 (100.0)	5.6	37.4	46.1	7.6	3.4		
	41 ~ 50세	201 (100.0)	7.5	34.3	52.7	4.5	1.0		
	51 ~ 60세	79 (100.0)	16.5	30.4	50.6	1.3	1.3		
	61세 이상	16 (100.0)	18.8	50.0	25.0	6.3	0		
직 업 별	계 (명)	1,736 (100.0)	7.9	35.4	44.2	8.8	3.7	48.70996	** .0296
	농림수산업	23 (100.0)	8.7	39.1	52.2	0	0		
	자영업	213 (100.0)	9.4	29.1	53.1	4.7	3.8		
	판매서비스직	73 (100.0)	6.8	34.2	42.5	12.3	4.1		
	기능작업직	83 (100.0)	6.0	33.7	47.0	7.2	6.0		
	사무기술직	567 (100.0)	7.8	35.6	42.5	10.2	3.9		
	경영관리직	79 (100.0)	2.5	41.8	48.1	2.5	5.1		
	전문자유직	133 (100.0)	8.3	35.3	47.4	7.5	1.5		
	학생	311 (100.0)	10.6	37.6	35.4	13.2	3.2		
주부·무직	254 (100.0)	6.3	35.8	47.2	6.3	4.3			
여 행 태 별	계 (명)	1,789 (100.0)	7.9	35.2	44.4	8.8	3.7	50.98578	*** .0000
	행개인	755 (100.0)	9.1	37.6	43.7	6.4	3.2		
	형신혼여행	479 (100.0)	4.6	30.9	45.7	12.5	6.3		
	태수학여행	58 (100.0)	15.5	36.2	32.8	13.8	1.7		
	단체여행	326 (100.0)	9.2	31.9	47.5	8.3	3.1		
	기타	171 (100.0)	6.4	42.1	42.1	8.2	1.2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다. 外國人 觀光客의 觀光性向分析

1) 旅行目的

제주도를 방문하는 外國人 觀光客의 旅行目的을 살펴보면, <表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이 93.4%로 거의 모든 旅行客이 觀光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기타가 3.3%, 상용과 방문이 각각 1.4%, 공무가 0.5%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 직업별에서 有意的인 差異가 있다.

연령별로는 51~60세가 觀光目的이 100.0%이며, 다른 연령층에서도 이와 비슷한 응답을 하고 있으며 61세 이상과 31~40세에서 상용, 41~50세에서 방문, 20~30세에서 공무가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 기능직, 주부·무직 등이 다른 직업층보다 관광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용에는 사무기술직이, 공무에는 판매서비스직이, 방문에는 경영관리직의 관광객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다.

여행형태별에서는 개인여행을 제외한 신혼, 수학, 단체여행 등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순수한 관광을 목적으로 訪問하고 있으며, 개인여행에서는 방문이 6.9%, 기타가 6.9% 나머지가 觀光目的으로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旅行動機

外國人 觀光客의 旅行動機는 <表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지권유가 55.5%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言論媒體가 17.5%, 기타가 11.8%, 호텔·여행사광고가 5.7%, 안내책자 5.2%, 지난번 여행 4.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국인관광객이 제주도 방문 중에 지난번 여행에 의해 재차 방문하는 비율이 17.7%인데 반해서 外國人觀光客은 그 比率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별에서는 51~60세가 言論媒體에 의해 방문한 관광객의 비율이 다른 年齡層에 비해 조금 높으며, 직업별에서는 농림수산업과 전문자유직이 다른 직업층에 비해 言論媒體를 통해 訪問했다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全體적으로 볼 때는 연령별, 직업별에서 모두 有意的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旅行期間

제주도를 방문한 外國人 觀光客의 旅行期間은 <表 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박 3일이 69.0%로 絕對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以外에 3박 4일이 23.5%, 1박 2일이 5.6%, 1일과 4박 5일이 각각 0.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번 조사 등에 비해 宿泊日數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 여행형태별로 살펴보면 그다지 有意的인 差異가 없으나 연령별과 직업별에서는 매우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表 IV-14> 旅行目的

(단위 : %)

구 분	계 (명)	관 광	상 용	방 문	공 무	기 타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213 (100.0)	93.4	1.4	1.4	0.5	3.3	6.07107	.1939
	남	176 (100.0)	93.2	1.7	1.7	0	3.4		
	여	37 (100.0)	94.6	0	0	0.5	2.7		
연 령 별	계 (명)	213 (100.0)	93.6	1.5	1.5	0.5	3.0	90.31470	*** .0000
	20세 미만	1 (100.0)	0	0	100.0	0	0		
	20 ~ 30세	30 (100.0)	93.3	0	0	3.3	3.3		
	31 ~ 40세	43 (100.0)	90.7	4.7	0	0	4.7		
	41 ~ 50세	80 (100.0)	96.3	0	2.5	0	1.3		
	51 ~ 60세	33 (100.0)	100.0	0	0	0	0		
	61세 이상	15 (100.0)	80.0	6.7	0	0	13.3		
직 업 별	계 (명)	182 (100.0)	94.0	1.6	1.1	0.5	2.7	167.42736	*** .0000
	농림수산업	7 (100.0)	100.0	0	0	0	0		
	자영업	42 (100.0)	95.2	2.4	0	0	2.4		
	판매서비스직	3 (100.0)	66.7	0	0	33.3	0		
	기능작업직	8 (100.0)	100.0	0	0	0	0		
	사무기술직	48 (100.0)	95.8	4.2	0	0	0		
	경영관리직	41 (100.0)	92.7	0	2.4	0	4.9		
	전문자유직	12 (100.0)	83.3	0	0	0	16.7		
	학생	1 (100.0)	0	0	100.0	0	0		
주부·무직	20 (100.0)	100.0	0	0	0	0			
여 행 태 별	계 (명)	213 (100.0)	93.4	1.4	1.4	0.5	3.3	12.60536	.7014
	개인	29 (100.0)	86.2	0	6.9	0	6.9		
	신혼여행	2 (100.0)	100.0	0	0	0	0		
	수학여행	1 (100.0)	100.0	0	0	0	0		
	단체여행	155 (100.0)	94.8	1.9	0.6	0.6	1.9		
	기타	26 (100.0)	92.3	0	0	0	7.7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15〉 旅行動機

(단위 : %)

구 분	계 (명)	언 론 매 체	친 지 권 유	호텔·여행사 광고	안 내 책 자	지난번 여행	기 타	검 증 결 과		
								X _i	P	
성 별	계 (명)	211 (100.0)	17.5	55.5	5.7	5.2	4.3	11.8	4.84598	.4350
	남	174 (100.0)	17.2	56.9	5.7	5.7	4.6	9.8		
	여	37 (100.0)	18.9	48.6	5.4	2.7	2.7	21.6		
연 령 별	계 (명)	200 (100.0)	17.0	56.0	6.0	4.5	4.5	12.0	27.14807	.3485
	20세 미만	1 (100.0)	0	0	0	0	0	100.0		
	20 ~ 30세	30 (100.0)	20.0	66.7	0	3.3	0	10.0		
	31 ~ 40세	42 (100.0)	21.4	54.8	2.4	4.8	7.1	9.5		
	41 ~ 50세	79 (100.0)	10.1	57.0	11.4	3.8	3.8	13.9		
	51 ~ 60세	33 (100.0)	27.3	42.4	3.0	9.1	6.1	12.1		
	61세 이상	15 (100.0)	13.3	66.7	6.7	0	6.7	6.7		
직 업 별	계 (명)	180 (100.0)	18.9	52.8	6.7	3.9	4.4	13.3	45.45847	.2552
	농림수산업	7 (100.0)	42.9	42.9	0	0	0	14.3		
	자 영 업	42 (100.0)	23.8	47.6	4.8	2.4	9.5	11.9		
	판매서비스직	3 (100.0)	0	100.0	0	0	0	0		
	기능작업직	8 (100.0)	0	62.5	12.5	0	25.0	0		
	사무기술직	46 (100.0)	13.0	60.9	10.9	6.5	0	8.7		
	경영관리직	41 (100.0)	13.0	60.9	10.9	6.5	0	8.7		
	전문자유직	12 (100.0)	33.3	50.0	8.3	0	0	8.3		
	학 생	1 (100.0)	0	0	0	0	0	100.0		
	주부·무직	20 (100.0)	10.0	45.0	10.0	0	5.0	30.0		
여 행 태 별	계 (명)	211 (100.0)	17.5	55.5	5.7	5.2	4.3	11.8	21.25178	.3824
	개 인	28 (100.0)	35.7	35.7	0	3.6	10.7	14.3		
	신 혼 여 행	2 (100.0)	35.7	35.7	0	3.6	10.7	14.3		
	수 학 여 행	1 (100.0)	100.0	0	0	0	0	0		
	단 체 여 행	155 (100.0)	13.5	58.7	6.5	5.8	3.2	12.3		
	기 타	25 (100.0)	20.0	56.0	8.0	4.0	4.0	8.0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16> 旅行期間

(단위 : %)

구 분	계 (명)	하 루	1 박 2 일	2 박 3 일	3 박 4 일	4 박 5 일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213 (100.0)	0.9	5.6	69.0	23.5	0.9	2.37859	.6665
	남	176 (100.0)	1.1	5.1	70.5	22.2	1.1		
	여	37 (100.0)	0	8.1	62.2	29.7	0		
연 령 별	계 (명)	202 (100.0)	1.0	5.4	68.8	23.8	1.0	127.20872	*** .0000
	20세 미만	1 (100.0)	0	0	0	0	100.0		
	20 ~ 30세	30 (100.0)	0	0	86.7	13.3	0		
	31 ~ 40세	43 (100.0)	0	0	65.1	34.9	0		
	41 ~ 50세	80 (100.0)	0	6.3	63.8	23.8	1.3		
	51 ~ 60세	33 (100.0)	6.1	12.1	66.7	15.2	0		
61세 이상	8 (100.0)	0	13.3	53.3	33.3	0			
직 업 별	계 (명)	182 (100.0)	1.1	5.5	67.0	25.3	1.1	127.33467	*** .0000
	농림수산업	7 (100.0)	14.3	14.3	57.1	14.3	0		
	자영업	42 (100.0)	0	2.4	73.8	23.8	0		
	판매서비스직	3 (100.0)	0	0	100.0	0	0		
	기능작업직	8 (100.0)	0	12.5	75.0	12.5	0		
	사무기술직	48 (100.0)	2.1	8.3	75.0	14.6	0		
	경영관리직	41 (100.0)	0	2.4	65.9	29.3	2.4		
	전문자유직	12 (100.0)	0	0	33.3	66.7	0		
	학생	1 (100.0)	0	0	0	0	100.0		
주부·무직	20 (100.0)	0	10.0	55.0	35.0	0			
여 행 태 별	계 (명)	213 (100.0)	0.9	5.6	69.0	23.5	0.9	21.28996	.1676
	개인	29 (100.0)	0	10.3	65.5	17.2	0		
	신혼여행	2 (100.0)	0	0	100.0	0	0		
	수학여행	1 (100.0)	0	0	0	100.0	0		
	단체여행	155 (100.0)	1.3	5.8	69.7	23.3	30.8		
	기타	26 (100.0)	0	0	69.2	0	0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연령별로는 모든 年齡層에서 제 1순위는 2박 3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 2순위인 3박 4일인 경우는 그 비율이 31~40세와 61세 이상이 34.9%와 33.3%, 41세~50세가 23.8%, 51~60세와 20~30세는 15.2%와 13.3%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의 관광객이 3泊 4日, 2泊 3日 순으로 되어 있고 판매서비스직이 2泊 3日로 100.0%이고, 자영업,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주부·무직은 2泊 3日, 3泊 4日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利用交通手段

外國人 觀光客의 濟州道內 利用交通手段은 관광버스가 5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택시가 19.6%, 임대승용차 17.7%, 자가용 4.3%, 기타 3.3%, 시내·외버스 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별, 여행형태별에서 有意的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에서는 모든 分野에서 관광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다만, 전문자유직에서 임대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행형태별에서는 개인, 其他旅行에서는 택시를, 신혼여행, 단체여행에서는 관광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5) 利用宿泊施設

外國人 觀光客의 利用宿泊施設을 살펴보면 <표 I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가 호텔(관광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비율은 남자가 93.8% 여자가 89.2%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의 宿泊施設로는 여관에 투숙한 남자의 비율이 4.5% 여자인 경우 5.4% 그의 기타 시설에 투숙한 비율은 남자가 1.7%, 여자가 5.4%로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모두가 호텔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V-18> 利用宿泊施設

(단위 : %)

구 분		계 (名)	호 텔	여 관	기 타
성 별	계(명)	213 (100.0)			
	남	176 (100.0)	93.8	4.5	1.7
	여	37 (100.0)	89.2	5.4	5.4

〈表 IV-17〉 利用交通手段

(단위 : %)

구 분	계 (명)	택 시	임 대 승용차	관 광 버 스	자가용	시내·외 버 스	기 타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209 (100.0)	19.6	17.7	54.1	4.3	1.0	3.3	4.41559	.4913
	남	173 (100.0)	19.1	16.8	53.8	5.2	1.2	4.0		
	여	36 (100.0)	22.2	22.2	55.6	0	0	0		
연 령 별	계 (명)	199 (100.0)	19.6	16.1	55.3	4.5	1.0	3.5	25.85615	.4153
	20세 미만	1 (100.0)	100.0	0	0	0	0	0		
	20 ~ 30세	30 (100.0)	16.7	23.3	56.7	0	3.3	0		
	31 ~ 40세	42 (100.0)	16.7	23.8	50.0	7.1	0	2.4		
	41 ~ 50세	79 (100.0)	15.2	15.2	58.2	6.3	1.3	3.8		
	51 ~ 60세	32 (100.0)	31.3	6.3	59.4	0	0	3.1		
61세 이상	15 (100.0)	26.7	6.7	46.7	6.7	0	13.3			
직 업 별	계 (명)	179 (100.0)	19.0	16.8	54.7	5.0	1.1	3.4	53.74573	* .0719
	농림수산업	7 (100.0)	28.6	14.3	57.1	0	0	0		
	자영업	41 (100.0)	12.2	22.0	63.4	2.4	0	0		
	판매서비스직	3 (100.0)	0	0	100.0	0	0	0		
	기능작업직	7 (100.0)	0	0	85.7	0	0	14.3		
	사무기술직	47 (100.0)	25.5	6.4	57.5	2.1	2.1	6.4		
	경영관리직	41 (100.0)	24.4	14.6	46.3	9.8	2.4	2.4		
	전문자유직	12 (100.0)	8.3	50.0	16.7	25.0	0	0		
	학생	1 (100.0)	100.0	0	0	0	0	0		
	주부·무직	20 (100.0)	15.0	25.0	55.0	0	0	0		
여 행 태 별	계 (명)	209 (100.0)	19.6	17.7	54.1	4.3	1.0	3.3	56.68005	*** .0000
	개인	29 (100.0)	34.5	27.6	34.5	0	3.4	0		
	신혼여행	2 (100.0)	0	0	100.0	0	0	0		
	수학여행	0 (100.0)	0	0	0	0	0	0		
	단체여행	152 (100.0)	11.8	17.8	63.8	3.9	0.7	2.0		
기타	26 (100.0)	50.0	7.7	15.4	11.5	0	15.4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P < 0.01 **: P < 0.05 *: P < 0.1

6) 利用施設 또는 商品狀態

利用施設 또는 商品狀態는 <表 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宿泊施設인 경우 매우 좋다가 24.4%, 좋다가 41.8%로 보통이다의 28.6%와 나쁘다의 2.8%보다 훨씬 높은 응답이 나와서 양호함을 알 수 있고, 음식점인 경우에 매우 좋다가 좋다를 합쳐서 45.1%, 보통이다가 40.8%로써 국제 관광지로서의 음식점의 상태가 그다지 좋게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 기념품인 경우 매우 좋다가 좋다의 비율보다 보통이다와 나쁘다의 비율이 높은 점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의 상품상태와 관광지의 경우는 대체로 양호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表 IV-19> 利用施設 또는 商品狀態

(단위 : %)

구 분	계(명)	매우 좋다	좋 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쁨	무응답
숙박시설	213 (100.0)	24.4	41.8	28.6	2.8	0	2.3
교통시설	213 (100.0)	9.9	23.9	42.3	14.1	0.5	9.3
음 식 점	213 (100.0)	10.8	34.3	40.8	5.6	0.5	6.6
기념품점	213 (100.0)	6.1	18.3	56.3	9.4	1.4	8.5
여 행 사	213 (100.0)	32.9	40.4	14.1	1.9	0	10.8
관 광 지	213 (100.0)	16.4	34.7	32.9	6.1	0.5	9.4

7) 利用施設 또는 商品의 서어비스

外國人 觀光客이 이용한 시설 또는 상품의 서어비스는 <表 I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박시설, 교통시설, 여행사는 매우 좋다가 좋다의 비율이 각각 46.4%, 40.4, 62.4%로 나타나고 있고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의 비율이 5.2%, 5.7%, 1.4%로 응답하고 있어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광지인 경우에도 전자가 37.1%, 후자가 4.7%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식점과 기념품점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매우 좋다가 좋다가 각각 35.3%, 21.1%,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가 9.9%, 15.5%로 <表 IV-18>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서어비스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20〉 利用施設 또는 商品の 서어비스

(단위 : %)

구 분	계(명)	매우 좋다	좋 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쁨	무응답
숙박시설	213 (100.0)	13.1	33.3	37.1	4.2	1.0	11.3
교통시설	213 (100.0)	10.8	29.6	37.6	5.2	0.5	16.4
음 식 점	213 (100.0)	9.9	25.4	39.4	9.4	0.5	15.5
기념품점	213 (100.0)	6.1	15.0	46.0	12.7	2.8	17.4
여 행 사	213 (100.0)	27.7	34.7	20.2	1.4	0	16.0
관 광 지	213 (100.0)	10.8	26.3	42.3	4.2	0.5	16.0

8) 利用施設 또는 商品の 價格水準

이용시설 또는 상품의 價格水準은 〈表 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宿泊施設, 交通施設, 旅行社, 觀光地 등의 경우는 상품의 가격수준이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表 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점과 기념품점의 경우는 매우 싸다와 싼 편이다가 각각 18.3%, 9.9%인 반면에, 비싸다와 매우 비싸다가 각각 10.8%, 19.7%로 응답하고 있어 가격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품 상태와 상품의 서어비스, 가격수준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IV-21〉 利用施設 또는 商品の 價格水準

(단위 : %)

구 분	계(명)	매우 싸다	싼 편이다	보통이다	비싸다	매우 비싸다	무응답
숙박시설	213 (100.0)	7.5	15.5	52.1	6.1	0.9	17.8
교통시설	213 (100.0)	6.1	14.6	47.9	3.3	1.9	26.3
음 식 점	213 (100.0)	4.2	14.1	48.4	8.9	1.9	22.5
기념품점	213 (100.0)	4.7	5.2	49.3	15.5	4.2	21.1
여 행 사	213 (100.0)	13.1	19.7	37.1	2.3	0.9	26.8
관 광 지	213 (100.0)	7.5	15.5	44.1	5.6	1.4	25.8

〈表 IV-22〉 가장 인상깊었던 점

(단위 : %)

구 분	계 (명)	해안 경관	한라 산	풍습 · 관습	기암 · 폭포	날씨	도민 성	숙박 시설	쇼핑 기회	기타	검 증 결 과		
											X ₁	P	
성 별	계 (명) (100.0)	201	47.8	7.0	8.5	19.9	3.5	6.5	3.0	2.0	2.0	15.27975	* .0539
	남 (100.0)	165	50.9	6.7	6.7	18.2	3.6	7.9	3.0	1.2	1.8		
	여 (100.0)	36	33.3	8.3	16.7	27.8	2.8	0	2.8	5.6	2.8		
연 령 별	계 (명) (100.0)	191	48.2	7.3	8.9	18.3	3.7	6.8	2.6	2.1	2.1	58.29121	** .0308
	20세 미만 (100.0)	1	100.0	0	0	0	0	0	0	0	0		
	20 ~ 30세 (100.0)	29	34.5	3.4	3.4	44.8	3.4	0	3.4	6.9	0		
	31 ~ 40세 (100.0)	39	46.2	5.1	12.8	10.3	2.6	12.8	5.1	2.6	2.6		
	41 ~ 50세 (100.0)	75	52.0	9.3	12.0	13.3	1.3	6.7	0	1.3	4.0		
	51 ~ 60세 (100.0)	33	51.5	9.1	0	18.2	12.2	9.1	0	0	0		
61세 이상 (100.0)	14	50.0	7.1	14.3	14.3	0	0	14.3	0	0			
직 업 별	계 (명) (100.0)	172	48.3	8.1	8.7	17.4	4.1	7.0	2.3	1.7	2.3	90.76863	** .0155
	농림수산업 (100.0)	6	50.5	16.7	16.7	0	0	0	0	0	0		
	자영업 (100.0)	40	52.5	7.5	7.5	7.5	10.0	5.0	2.5	0	7.5		
	판매서비스직 (100.0)	3	33.3	0	0	33.3	0	0	0	33.3	0		
	기능작업직 (100.0)	8	37.5	0	12.5	25.0	0	12.5	12.5	0	0		
	사무기술직 (100.0)	46	54.3	8.7	0	23.9	0	10.9	0	2.2	0		
	경영관리직 (100.0)	38	52.6	10.5	7.9	21.1	2.6	5.3	0	0	0		
	전문자유직 (100.0)	11	27.3	9.1	27.3	9.1	9.1	18.2	0	0	0		
	학생 (100.0)	1	100.0	0	0	0	0	0	0	0	0		
주부·무직 (100.0)	19	31.6	5.3	21.1	15.8	5.3	0	10.5	5.3	5.3			
여 행 형 태 별	계 (명) (100.0)	201	47.8	7.0	8.5	19.9	3.5	6.5	3.0	2.0	2.0	174.03633	*** .0000
	개인 (100.0)	28	64.3	10.7	0	10.7	3.6	3.6	0	0	7.1		
	신혼여행 (100.0)	2	50.0	50.0	0	0	0	0	0	0	0		
	수학여행 (100.0)	1	0	0	0	100.0	0	0	0	0	0		
	단체여행 (100.0)	144	47.2	6.3	11.1	18.1	3.5	6.3	3.5	2.6	1.4		
기타 (100.0)	26	34.6	3.8	3.8	38.5	3.8	11.5	3.8	0.2	0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9) 가장 인상 깊었던 점

濟州道 觀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살펴보면 <表 IV-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안경관에 47.8%로 가장 높게 응답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암과 폭포가 19.9%, 풍습·관습이 8.5%, 한라산 7.0%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별,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로 살펴보면 有意的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性別로는 남자의 경우 해안경관이 50.9%, 기암폭포가 18.2%, 도민성이 7.9% 순으로 응답하여 그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민성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 3위인 반면 여자인 경우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세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해안경관을 제일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고 20~30세는 기암폭포를 가장 인상 깊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個人旅行인 경우는 해안경관이 64.3%, 한라산과 기암폭포가 각각 10.7%로 응답하고 있으며 기타 여행인 경우는 기암폭포가 38.5%, 해안경관이 34.6%, 도민성이 11.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10) 旅行中 參與한 活動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여행 중 참여한 활동으로는 실내사격에서 자연관광지까지 주로 8가지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실내사격 43.5%, 사냥 14.8%, 골프 13.9% 등으로 이 세 활동에 72.2%의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응답을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살펴 볼 경우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세는 실내사격과 골프, 31~50세는 실내사격, 사냥, 골프를, 50~60세는 실내사격과 시내관광, 61세 이상은 실내사격, 사냥, 자연관광지 등에 각각 14.3%의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이 실내사격과 시내관광에 각각 33.3%, 자영업과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은 실내사격과 사냥, 기능작업직은 실내사격과 시내관광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의 경우 실내사격 46.4%, 시내관광 14.3%, 단체여행은 실내사격 43.4%, 골프 17.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 시설에 대한 확충이 요망된다.

11) 不便 또는 不滿足 사항

제주도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위락시설부족 26.0%, 종사원 불친절 15.1%, 관광기념품가격 13.7%, 택시 불친절 13.0%, 안내소 부족 9.6% 순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종사원 불친절에 20.1%가 응답했던 데 비해 외국인의 경우 위락시설 부족에 26.0%가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12) 訪問前期待와 訪問後의 滿足度

제주도를 여행한 후의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12.4%, 만족 46.2%, 보통 36.2%, 실망 4.3%, 매우 실망 1.0%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실망과 매우 실망의 비율의 12.6%인데 반하여 외국인은 5.3%만이 실망과 매우 실망에 응답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내국인 관광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23〉 旅行中 參與한 活動

(단위 : %)

구 분	계 (명)	실내 사격	사냥	골프	시내 관광	유흥음식점	낚시	게임 룸	자연 관광지	기타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209 (100.0)	43.5	14.8	13.9	7.2	3.3	2.9	2.9	2.4	9.1	24.20580	* .0851
	남	172 (100.0)	45.9	16.3	14.5	5.8	1.7	2.9	2.3	1.9	8.7		
	여	37 (100.0)	32.4	8.1	10.8	13.5	10.8	2.7	5.4	0.5	15.8		
연 령 별	계 (명)	198 (100.0)	43.9	15.7	12.6	7.1	3.5	3.0	3.0	2.5	8.7	155.92916	*** .0000
	20세 미만	1 (100.0)	0	0	0	0	0	0	0	0	100.0		
	20 ~ 30세	30 (100.0)	60.0	10.0	16.7	0	3.3	3.3	3.3	0	3.4		
	31 ~ 40세	43 (100.0)	44.2	25.6	18.6	0	2.3	4.7	0	0	4.6		
	41 ~ 50세	78 (100.0)	44.9	15.4	11.5	6.4	3.8	3.8	3.8	2.6	7.8		
	51 ~ 60세	32 (100.0)	40.6	9.4	6.3	25.0	3.1	0	3.1	3.1	9.4		
61세 이상	14 (100.0)	14.3	14.3	7.1	7.1	7.1	0	7.1	14.3	28.7			
직 업 별	계 (명)	178 (100.0)	44.4	16.3	10.7	7.9	3.4	3.4	2.8	2.2	8.9	197.39355	*** .0001
	농림수산업	6 (100.0)	33.3	0	0	33.3	0	0	16.7	16.7	0		
	자영업	42 (100.0)	33.3	19.0	16.7	11.9	2.4	2.4	2.4	0	11.9		
	판매서비스직	3 (100.0)	100.0	0	0	0	0	0	0	0	0		
	기능작업직	8 (100.0)	62.5	0	0	12.5	0	0	0	0	25.0		
	사무기술직	46 (100.0)	56.5	10.9	6.5	6.5	8.7	0	0	2.2	8.7		
	경영관리직	40 (100.0)	45.0	27.5	17.5	2.5	0	2.5	2.5	0	2.5		
	전문자유직	12 (100.0)	41.7	25.0	8.3	0	0	25.0	0	0	0		
	학생	1 (100.0)	0	0	0	0	0	0	0	0	100.0		
주부·무직	20 (100.0)	30.0	10.0	5.0	10.0	5.0	5.0	10.0	10.0	15.0			
여 행 태 별	계 (명)	209 (100.0)	43.5	14.8	13.9	7.2	3.3	2.9	2.9	2.4	9.1	170.31012	*** .0000
	개인	28 (100.0)	46.4	10.7	7.1	14.3	7.1	0	3.6	0	10.8		
	신혼여행	2 (100.0)	50.0	0	0	0	0	0	0	0	50.0		
	수학여행	1 (100.0)	0	0	0	0	0	0	0	0	100.0		
	단체여행	152 (100.0)	43.4	12.5	17.1	7.2	3.3	3.9	2.0	0	10.6		
기타	26 (100.0)	42.3	34.6	3.8	0	0	0	7.7	0	11.6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24〉 不便 또는 不満足 사항

(단위 : %)

구 분	계 (명)	택시 불친절	중사 원불친절	위락 시설 부족	휴식 시설 부족	교통망 미흡	관광지 혼잡	숙박 시설 부족	안내소 부족	관광기념품가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46 (100.0)	13.0	15.1	26.0	5.5	6.2	6.2	4.8	9.6	13.7	12.43294	.1329
	남	117 (100.0)	11.1	15.4	24.8	5.1	7.7	5.1	3.4	12.0	15.4		
	여	29 (100.0)	20.7	13.8	31.0	6.9	0	10.3	10.3	0	6.9		
연 령 별	계 (명)	137 (100.0)	12.4	14.6	24.8	5.1	6.6	6.6	5.1	10.2	14.6	41.76403	.3941
	20세 미만	1 (100.0)	100.0	0	0	0	0	0	0	0	0		
	20 ~ 30세	23 (100.0)	17.4	8.7	26.1	4.3	8.7	4.3	17.4	0	13.0		
	31 ~ 40세	30 (100.0)	6.7	23.3	16.7	6.7	0	3.3	6.7	10.0	26.7		
	41 ~ 50세	55 (100.0)	14.5	14.5	27.3	5.5	9.1	7.3	1.8	9.1	10.9		
	51 ~ 60세	23 (100.0)	8.7	8.7	34.8	4.3	4.3	8.7	0	21.7	8.7		
61세 이상	5 (100.0)	0	20.0	0	0	20.0	20.0	0	20.0	20.0			
직 업 별	계 (명)	126 (100.0)	13.5	11.9	25.4	5.6	5.6	7.1	5.6	10.3	15.1	83.43628	* .0519
	농림수산업	3 (100.0)	0	33.3	0	0	0	0	0	0	66.7		
	자영업	28 (100.0)	10.7	7.1	42.9	7.1	0	3.6	0	14.3	14.3		
	판매서비스직	3 (100.0)	33.3	0	0	0	0	0	66.7	0	0		
	기능작업직	7 (100.0)	14.3	14.3	42.9	0	0	0	0	14.3	14.3		
	사무기술직	26 (100.0)	7.7	15.4	19.2	3.8	19.2	0	11.5	11.5	11.5		
	경영관리직	35 (100.0)	17.1	14.3	14.3	42.9	0	0	0	0	28.6		
	전문자유직	7 (100.0)	14.3	14.3	42.9	0	0	0	0	0	28.6		
	학생	1 (100.0)	100.0	0	0	0	0	0	0	0	0		
	주부·무직	16 (100.0)	12.5	6.3	37.5	6.3	6.3	18.8	6.3	0	6.3		
여 행 태 별	계 (명)	146 (100.0)	13.0	15.1	26.0	5.5	6.2	6.2	4.8	9.6	0	32.02506	.4655
	개인	21 (100.0)	28.6	14.3	14.3	4.8	9.5	9.5	4.8	4.8	0		
	신혼여행	2 (100.0)	0	0	0	0	0	50.0	0	50.0	0		
	수학여행	1 (100.0)	100.0	0	0	0	0	0	0	0	0		
	단체여행	102 (100.0)	9.8	16.7	29.4	3.9	4.9	4.9	4.9	10.8	0		
기타	20 (100.0)	10.0	10.0	25.0	15.0	10.0	5.0	5.0	5.0	0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25> 訪問前期待와 訪問後의 満足度

(단위 : %)

구 분		계 (명)	매 우 만 족	만 족	보 통	실 망	매 우 실 망	검 증 결 과	
								X ₁	P
성 별	계 (명)	210 (100.0)	12.4	46.2	36.2	4.3	1.0	5.15318	.2719
	남	173 (100.0)	12.1	43.4	38.2	5.2	1.2		
	여	37 (100.0)	13.5	59.5	27.0	0	0		
연 령 별	계 (명)	199 (100.0)	12.6	46.7	26.2	3.5	1.0	11.49780	.9323
	20세 미만	1 (100.0)	0	100.0	0	0	0		
	20 ~ 30세	30 (100.0)	16.7	56.7	23.3	3.3	0		
	31 ~ 40세	42 (100.0)	16.7	40.5	35.7	4.8	2.4		
	41 ~ 50세	79 (100.0)	8.9	48.1	38.0	3.8	1.3		
	51 ~ 60세	32 (100.0)	9.4	37.5	50.0	3.1	0		
61세 이상	15 (100.0)	20.0	53.3	26.7	0	0			
직 업 별	계 (명)	180 (100.0)	13.3	46.7	35.6	3.3	1.1	29.29086	.6044
	농림수산업	7 (100.0)	14.3	42.9	28.6	14.3	0		
	자영업	40 (100.0)	5.0	60.0	27.5	5.0	2.5		
	판매서비스직	3 (100.0)	0	66.7	33.3	0	0		
	기능작업직	8 (100.0)	0	25.0	75.0	0	0		
	사무기술직	48 (100.0)	16.7	50.0	31.3	2.1	0		
	경영관리직	41 (100.0)	14.6	29.3	48.8	4.9	2.4		
	전문자유직	12 (100.0)	33.3	50.0	16.7	0	0		
	학생	1 (100.0)	0	100.0	0	0	0		
주부·무직	20 (100.0)	15.0	50.0	35.0	0	0			
여 행 태 별	계 (명)	210 (100.0)	12.4	46.2	36.2	4.3	1.0	8.93159	.9162
	개인	28 (100.0)	14.3	42.9	42.9	0	0		
	신혼여행	2 (100.0)	0	100.0	0	0	0		
	수학여행	1 (100.0)	0	100.0	0	0	0		
	단체여행	154 (100.0)	11.7	48.1	33.3	5.2	1.3		
기타	25 (100.0)	16.0	32.0	48.0	4.0	0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 P < 0.01

** : P < 0.05

* : P < 0.1

라. 內·外國人 觀光客의 觀光費用分析

관광객이 여행중 지출한 경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의 관광비용분석은 앞으로 관광비용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진척 및 사무적인 입장에서의 여행비용이 끼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코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관광수입 산출방식에 있어서 내·외국인 각각 1인당 평균 관광비용과 전체 관광객 수만을 가지고 단순 계산함으로써 제주도 전체 관광소득의 계산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년 계절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내도 관광객 수 수집과 더불어 관광소득 산출을 여행형태별(개인여행, 신혼여행, 수학여행, 단체여행 등)로 1인당 평균 관광비용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하여 제주도의 총 관광수입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1) 內國人

(1) 1人當 觀光費用推計

제주도를 방문하는 內國人 觀光客들이 제주도내 여행중 1人當 旅行費用을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본 조사의 결과는 <表 IV-26>과 같다. 즉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관광비용은 숙박비 68,345원, 식음료비 44,773원, 육상교통비 41,591원, 기념품구입비 39,053원, 기타 잡비 39,736원 등, 233,498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여행형태별에 따라 지출구조를 분석해 보면, 개인여행의 경우는 숙박비 57,797원, 식음료비 43,974원, 육상교통비 36,610원, 기념품구입비 27,161원, 기타잡비 40,242원으로 1인당 205,784원을 지출하고 있다.

신혼여행의 경우는 숙박비 117,880원, 식음료비 60,108원, 육상교통비 65,629원, 기념품구입비 79,501원, 기타잡비에 51,474원을 지출함으로써 1인당 374,592원을 쓰고 있다.

수학여행의 경우는 숙박비 30,217원, 식음료비 60,108원, 육상교통비 21,867원, 기념품구입비 21,983원, 기타잡비 51,474원 등으로 1인당 130,251원을 제주도 여행 중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여행은 숙박비 49,754원, 식음료비 32,608원, 육상교통비 28,933원, 기념품구입비 28,129원, 기타잡비 28,263원 등 1인당 167,687원을 소비하고 있다.

기타인 경우는 숙박비 44,838원, 식음료비 42,371원, 육상교통비 37,437원, 기념품구입비 18,737원, 기타잡비 37,084원 등으로 1인당 180,467원을 제주도 여행 중 소비하고 있다.

〈表 IV-26〉 1人當 觀光費用推計 (內國人 1991年)

(1인당 총 합계)

구 분	개 인 (719명)	신혼여행 (407명)	수학여행 (60명)	단체여행 (342명)	기 타 (167명)	평 균 (1,695명)
숙 박 비	57,797	117,880	30,217	49,754	44,838	68,345
식 음 료 비	43,974	60,108	26,367	32,608	42,371	44,773
육 상 교통비 (전세버스 시내·외버스)	36,610	65,629	21,867	28,933	37,437	41,591
기념품구입비	27,161	79,501	21,983	28,129	18,737	39,053
기 타 잡 비 (입 장 료 주 차 료 안 내 료 유 흥 비 연 회 비 기 타)	40,242	51,474	29,817	28,263	37,084	39,736
합 계	205,784	374,592	130,251	167,687	180,467	233,498

(2) 1人當 觀光費用構造

제주도 관광객의 1인당 관광비용 지출 범위에 있어서는 11~20만원이 28.1%, 21.30만원 24.4%, 31~40만원 15.9%, 51만원 이상 13.4%, 14~50만원 12.8%, 10만원 미만인 5.4% 등의 순을 차지하여 다양한 비용지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성별,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로 매우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인 경우 11~20만원 25.4%, 21~30만원 23.7%, 31~40만원이 17.2%인데 비하여 여자는 11~20만원 33.2%, 21~30만원 25.7%, 41~50만원 13.8%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1만원 이상의 고액 지출에서는 남자가 15.4%인데, 여자는 9.8%로 나타나 고액지출 관광객 비율은 남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에서는 20세 미만의 경우 20만원 이하에서 전체 응답자의 73.4%가 응답하고 있는데 비하여, 20~30세는 11~20만원 30.3%, 21만원 이상에서는 고르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1세 이상인 경우는 21~30만원, 11~20만원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대략 11~40만원 사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 기능작업직, 학생인 경우 11~20만원, 21~30만원 순이고,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주부·무직은 21~30만원, 11~20만원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 밖에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직은 21~40만원 사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表 IV-27〉 內國人 觀光客의 1人當 觀光費用構造

(단위 : %)

구 분		계 (명)	10만 미 만	11~ 20만	21~ 30만	31~ 40만	41~ 50만	51만 이 상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787 (100.0)	5.4	28.1	24.4	15.9	12.8	13.4	25.79110	*** .0001
	남	1,172 (100.0)	6.1	25.4	23.7	17.2	12.3	15.4		
	여	615 (100.0)	4.1	33.2	25.7	13.5	13.8	9.8		
연 령 별	계 (명)	1,786 (100.0)	5.4	27.9	24.5	15.9	12.8	13.4	168.00622	*** .0000
	20세 미만	64 (100.0)	25.0	48.4	20.3	3.1	1.6	1.6		
	20 ~ 30세	1,048 (100.0)	5.8	30.3	18.9	15.6	15.5	13.9		
	31 ~ 40세	357 (100.0)	3.1	19.0	28.9	19.0	11.8	18.2		
	41 ~ 50세	205 (100.0)	2.9	25.4	38.0	16.6	7.8	9.3		
	51 ~ 60세	80 (100.0)	2.5	26.3	41.3	13.8	7.5	8.8		
61세 이상	32 (100.0)	3.1	28.1	40.6	18.8	3.1	6.3			
직 업 별	계 (명)	1,743 (100.0)	5.4	28.0	24.6	16.2	12.9	13.0	332.49157	*** .0000
	농림수산업	23 (100.0)	17.4	39.1	26.1	8.7	4.3	4.3		
	자영업	215 (100.0)	1.9	18.6	34.0	17.2	10.7	17.7		
	판매서비스직	73 (100.0)	2.7	21.9	30.1	20.5	17.8	6.8		
	기능작업직	85 (100.0)	3.5	29.4	23.5	14.1	18.8	10.6		
	사무기술직	569 (100.0)	2.8	21.8	23.2	19.7	16.2	16.3		
	경영관리직	79 (100.0)	3.8	15.2	27.8	22.8	13.9	16.5		
	전문자유직	134 (100.0)	3.7	17.2	22.4	26.1	17.2	13.4		
	학생	311 (100.0)	15.8	56.3	16.1	4.2	3.5	4.2		
주부·무직	254 (100.0)	3.1	25.2	28.7	15.0	13.4	14.6			
여 행 태 별	계 (명)	1,798 (100.0)	5.4	28.0	24.5	15.9	12.8	13.5	722.67938	*** .0000
	개인	758 (100.0)	7.0	29.9	31.7	14.4	7.4	9.6		
	신혼여행	482 (100.0)	0.4	1.5	9.5	26.6	33.0	29.0		
	수학여행	58 (100.0)	8.6	72.4	13.8	0	1.7	3.4		
	단체여행	327 (100.0)	5.2	45.3	31.8	9.8	4.0	4.0		
	기타	173 (100.0)	11.6	45.7	24.3	9.2	1.2	8.1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원을 600원으로 환산함.
 ***: P < 0.01 **: P < 0.05 *: P < 0.1

여행형태별에서는 개인여행, 수학여행, 단체여행에서 11~30만원 사이의 지출이 각각 61.6%, 86.2%, 7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신혼여행은 31만원 이상이 88.6%로 나타남으로써 제주도 여행중 가장 많은 금액을 관광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主要 項目別 觀光費用

① 宿泊費

내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여행 중 1인당 숙박비를 살펴보면, 5만원 이하 43.0%, 5~10만원 37.4%, 11~15만원 9.9%, 16만~20만원 5.7%, 25만원 이상 2.1%, 21만~25만 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에서 매우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 5만원 이하가 79.0%인데 비해, 20~30세는 5만원 이하 41.5%, 5~10만원 37.0%, 31~40세는 5~10만원 41.5%, 5만원 이하 36.5%, 41~50세는 11~15만원 57.1%, 16~20만원 15.6%, 51~60세, 61세 이상은 10만원 이하의 응답비율이 각각 83.3%, 84.4%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 응답비율로는 농림수산업,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등이 5만~10만원, 5만원 이하 순인데 반하여, 기능작업직, 전문자유직, 학생, 주부·무직은 5만원 이하, 5만~10만원이 70.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학생은 71.8%가 5만원 이하를 지출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 수학여행, 단체여행 모두가 10만원 이하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반하여, 신혼여행의 경우는 5만~20만원 사이가 86.5%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食飲料費

식음료비의 지출에서는 2만~4만 37.3%, 4만~6만 27.8%, 2만원 미만 15.1%, 10만원 이상 8.6%, 6만~8만원 5.8%, 8만~10만원 5.4%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성별,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로 매우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2만~4만 34.1%, 4만~6만 28.3%, 10만원 이상 9.4%인데 반하여, 여자는 각각 43.5%, 26.8%, 6.9%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 2만~6만원 사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31~50세는 10만원 이상을 식음료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0.0%를 상회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주부·무직이 2만~4만원, 4만~6만원 순인데 반해, 농림수산업과 학생은 2만~4만원, 2만원 미만 순이고,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

<表 IV-28> 宿泊費

(단위 : %)

구 분	계 (명)	5 만 이 상	5만~ 10만	11만~ 15만	16만~ 20만	21만~ 25만	25만 이 상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762 (100.0)	43.0	37.4	9.9	5.7	1.8	2.1	10.08352	* .1212
	남	1,156 (100.0)	40.7	39.2	10.2	5.4	2.1	2.3		
	여	606 (100.0)	47.4	34.0	9.4	6.3	1.3	1.7		
연 령 별	계 (명)	1,761 (100.0)	43.0	37.4	9.9	5.7	1.8	2.1	73.09255	*** .0000
	20세 미만	62 (100.0)	79.0	16.1	3.2	1.6	0	0		
	20 ~ 30세	1,033 (100.0)	41.5	37.0	11.2	6.1	2.1	2.0		
	31 ~ 40세	354 (100.0)	36.5	41.5	11.3	5.9	1.4	3.4		
	41 ~ 50세	205 (100.0)	1.5	13.7	57.1	15.6	5.9	6.3		
	51 ~ 60세	78 (100.0)	47.4	35.9	9.0	3.8	2.6	1.3		
61세 이상	32 (100.0)	56.3	28.1	3.1	9.4	3.1	0			
직 업 별	계 (명)	1,718 (100.0)	43.2	37.7	9.8	5.5	1.7	2.2	178.19426	*** .0000
	농림수산업	23 (100.0)	39.1	47.8	4.5	4.3	4.3	0		
	자영업	215 (100.0)	35.3	42.3	10.2	7.9	2.3	1.9		
	판매서비스직	72 (100.0)	37.5	43.1	8.3	8.3	0	2.8		
	기능작업직	85 (100.0)	44.7	34.1	12.9	4.7	2.4	1.2		
	사무기술직	565 (100.0)	33.7	43.4	12.0	5.5	2.7	2.8		
	경영관리직	77 (100.0)	28.6	41.6	16.9	10.4	0	2.6		
	전문자유직	133 (100.0)	37.6	34.6	15.0	6.0	3.8	3.0		
	학생	298 (100.0)	71.8	22.8	2.3	2.7	0	1.3		
주부·무직	250 (100.0)	46.0	37.6	8.4	6.0	0.4	1.6			
여 행 태 별	계 (명)	1,773 (100.0)	43.0	37.3	9.9	5.8	1.9	2.1	540.91002	*** .0000
	개인	745 (100.0)	51.2	34.5	6.8	4.6	1.2	1.7		
	신혼여행	482 (100.0)	5.8	52.1	22.6	11.8	4.4	3.3		
	수학여행	54 (100.0)	77.8	22.2	0	0	0	0		
	단체여행	327 (100.0)	62.4	30.9	3.1	2.1	0.3	1.2		
	기타	165 (100.0)	64.9	24.8	3.6	3.0	1.2	2.4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Y을 600원으로 환산함.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29> 飲食料費

(단위 : %)

구 분	계 (명)	2 만	2만~	4만~	6만~	8만~	10만	검 증 결 과		
		미 만	4 만	6 만	8 만	10만	이 상	X ₂	P	
성 별	계 (명)	1,763 (100.0)	15.1	37.3	27.8	5.8	5.4	8.6	18.33958	*** .0054
	남	1,154 (100.0)	16.1	34.1	28.3	6.2	5.9	9.4		
	여	609 (100.0)	13.2	43.5	26.8	5.1	4.6	6.9		
연 령 별	계 (명)	1,763 (100.0)	15.1	37.3	27.8	5.8	5.4	8.6	84.30184	*** .0000
	20세 미만	60 (100.0)	35.0	58.3	5.0	0	0	1.7		
	20 ~ 30세	1,036 (100.0)	16.5	36.4	27.9	6.1	5.1	8.0		
	31 ~ 40세	356 (100.0)	7.9	33.4	33.7	6.2	7.3	11.5		
	41 ~ 50세	201 (100.0)	13.3	41.3	25.4	4.0	6.0	10.0		
	51 ~ 60세	80 (100.0)	13.5	41.3	23.8	8.8	6.3	6.3		
	61세 이상	30 (100.0)	26.6	36.7	26.7	6.7	0	3.3		
직 업 별	계 (명)	1,720 (100.0)	15.1	37.6	27.8	5.8	5.2	8.5	204.68069	*** .0000
	농림수산업	22 (100.0)	22.7	45.5	18.2	9.1	0	4.5		
	자영업	212 (100.0)	9.4	32.1	31.6	6.1	7.5	13.2		
	판매서비스직	73 (100.0)	11.0	38.4	34.2	4.1	4.1	8.2		
	기능작업직	85 (100.0)	20.0	43.5	21.2	3.5	4.7	7.1		
	사무기술직	564 (100.0)	11.9	34.0	31.7	8.3	5.9	8.2		
	경영관리직	78 (100.0)	10.2	28.2	33.3	1.3	12.8	14.1		
	전문자유직	133 (100.0)	10.6	28.6	39.8	5.3	9.0	6.8		
	학생	302 (100.0)	30.1	49.3	12.6	2.3	1.0	4.6		
주부·무직	251 (100.0)	12.0	40.6	27.1	6.4	3.6	10.4			
여 행 태 별	계 (명)	1,774 (100.0)	15.0	37.3	27.9	5.7	5.5	8.6	343.87523	*** .0000
	개인	746 (100.0)	18.3	38.3	24.3	5.5	4.4	9.0		
	신혼여행	480 (100.0)	3.3	17.5	44.6	10.8	10.6	12.9		
	수학여행	56 (100.0)	32.1	60.7	5.4	0	0	1.8		
	단체여행	324 (100.0)	19.4	54.0	18.5	0.9	2.8	4.3		
	기타	168 (100.0)	18.5	48.8	22.0	3.6	2.4	4.8		

註 : 무응답은 제외함. 註2) 100원을 600원으로 환산함.
 *** : P < 0.01 ** : P < 0.05 * : P < 0.1

직은 4만~6만원, 2만~4만원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 경영관리직, 주부·무직은 10만원 이상의 식음료비를 지출한 경우도 10.0%를 넘고 있어서 이들 직종이 고급요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의 경우 2만~4만원, 4만~6만원 순이고, 신혼여행은 4만~6만원, 44.6%, 2만~4만원 17.5%, 6만~10만원 이상도 각각 10.8%, 10.6%, 12.9%로 나타나 식음료비 지출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의 경우는 4만원 이하의 식음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紀念品購入費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기념품구입비 지출비율을 보면 2만원 미만 38.4%, 2만~4만원 20.4%, 4만~6만원 17.4%, 10만원 이상 12.2%, 8만~10만원 5.9%, 6만~8만원 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로 매우 有意의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4만원 이하가 91.5%인데 비해 나머지 연령에서는 6만원 이하에서 고르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40세, 51~60세의 경우는 10만원 이상을 구입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2.6%를 넘고 있어 이들 연령층이 비교적 고가품의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별에서는 거의 모든 직종이 6만원 이하에서 기념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으나, 자영업,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주부·무직인 경우는 10만원 이상의 기념품을 구입하는 비율도 13.2%에서 18.3%까지 차지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의 경우 2만원 미만 49.2%, 2만~4만원 22.5%인데 비해, 수학여행은 2만원 미만 46.6%, 2만~4만원 44.8%, 단체여행은 2만원 미만 42.6%, 2만~4만원 27.3%의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여행의 경우는 10만원 이상이 31.4%, 4만~6만원이 26.2%, 8만~10만원, 12.8% 등으로 타 형태의 여행에 비해 기념품 구입비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陸上交通費

제주도내 여행 중 내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육상교통비의 구조는 2만~4만원 31.2%, 2만원 미만 24.6%, 4만~6만원 22.2%, 10만원 이상 9.4%, 8만~10만원 6.7%, 6만~8만원 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연령별, 직업별, 여행형태별로 매우 有意의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表 IV-30> 紀念品購入費

(단위 : %)

구 분	계 (명)	2 만 미 만	2만~ 4 만	4만~ 6 만	6만~ 8 만	8만~ 10만	20만 이 상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723 (100.0)	38.4	20.4	17.4	5.7	5.9	12.2	9.75615	.1353
	남	1,128 (100.0)	39.8	18.5	17.5	5.7	5.9	12.7		
	여	595 (100.0)	35.8	24.0	17.3	5.7	5.9	11.3		
연 령 별	계 (명)	1,723 (100.0)	38.4	20.5	17.4	5.7	5.9	12.2	78.86513	*** .0000
	20세 미만	59 (100.0)	67.8	23.7	6.8	1.7	0	0		
	20 ~ 30세	1,017 (100.0)	37.4	19.5	16.8	5.7	6.4	14.3		
	31 ~ 40세	348 (100.0)	34.7	18.1	21.0	7.2	6.3	12.6		
	41 ~ 50세	197 (100.0)	41.1	24.9	13.7	6.6	5.6	8.1		
	51 ~ 60세	71 (100.0)	39.5	28.2	22.5	0	2.8	12.6		
61세 이상	31 (100.0)	35.5	29.0	25.8	3.2	3.2	3.2			
직 업 별	계 (명)	1,681 (100.0)	38.1	20.6	17.4	5.7	5.9	12.3	200.98389	*** .0000
	농림수산업	23 (100.0)	43.5	21.7	17.4	4.3	4.3	8.7		
	자영업	205 (100.0)	39.5	19.0	17.1	5.9	5.4	13.2		
	판매서비스직	71 (100.0)	33.8	21.1	26.8	4.2	8.5	5.6		
	기능작업직	84 (100.0)	28.5	26.2	21.4	4.8	9.5	9.5		
	사무기술직	552 (100.0)	30.1	19.7	17.4	8.0	7.2	17.6		
	경영관리직	73 (100.0)	35.6	15.1	23.3	11.0	1.4	13.7		
	전문자유직	133 (100.0)	36.8	20.3	20.3	6.0	8.3	8.3		
학생	299 (100.0)	62.6	23.7	8.7	1.3	2.7	1.0			
주부·무직	241 (100.0)	30.7	19.5	21.2	5.0	5.4	18.3			
여 행 태 별	계 (명)	1,734 (100.0)	38.4	20.4	17.4	5.7	5.8	12.3	589.11838	*** .0000
	개인	721 (100.0)	49.2	22.5	15.0	3.5	4.4	5.4		
	신혼여행	477 (100.0)	7.6	11.1	26.2	10.9	12.8	31.4		
	수학여행	58 (100.0)	46.6	44.8	6.9	0	1.7	0		
	단체여행	319 (100.0)	42.6	27.3	16.0	6.0	1.6	6.0		
	기타	159 (100.0)	70.5	16.4	6.9	1.9	1.3	3.1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원을 600원으로 환산함.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31> 陸上交通費

(단위 : %)

구 분	계 (명)	2 만 미 만	2~ 4만	4~ 6만	6~ 8만	8~ 10만	10만 이 상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758 (100.0)	24.6	31.2	22.2	5.9	6.7	9.4	13.54093	* .0352
	남	1,149 (100.0)	23.9	30.1	23.2	5.3	7.6	9.8		
	여	609 (100.0)	26.0	33.2	20.2	7.1	4.9	8.7		
연 령 별	계 (명)	1,758 (100.0)	24.6	31.3	22.2	5.9	6.6	9.4	120.26141	*** .0000
	20세 미만	62 (100.0)	61.3	16.1	11.3	3.2	3.2	4.8		
	20 ~ 30세	1,036 (100.0)	26.0	28.9	22.4	6.7	6.9	9.2		
	31 ~ 40세	351 (100.0)	15.1	33.0	23.6	6.0	9.4	12.8		
	41 ~ 50세	202 (100.0)	24.3	40.1	22.8	2.0	3.0	7.9		
	51 ~ 60세	76 (100.0)	23.7	38.2	18.4	9.2	2.6	7.9		
61세 이상	31 (100.0)	12.9	48.4	29.0	3.2	3.2	4.8			
직 업 별	계 (명)	1,715 (100.0)	24.7	31.4	22.4	5.9	6.4	9.2	250.55177	*** .0000
	농림수산업	21 (100.0)	19.0	42.9	19.0	9.5	4.8	4.8		
	자영업	207 (100.0)	16.9	31.4	27.5	6.8	6.8	10.6		
	판매서비스직	72 (100.0)	13.9	31.9	31.9	9.7	4.2	8.3		
	기능작업직	84 (100.0)	21.4	35.7	16.7	9.5	9.5	7.1		
	사무기술직	565 (100.0)	19.3	30.6	25.7	5.3	8.8	10.3		
	경영관리직	78 (100.0)	24.4	25.6	23.1	5.1	9.0	12.8		
	전문자유직	133 (100.0)	18.8	24.8	29.3	7.5	6.8	12.8		
	학생	305 (100.0)	51.1	31.8	8.9	3.0	2.6	2.6		
	주부·무직	250 (100.0)	19.2	35.2	22.8	6.8	4.0	12.0		
여 행 태 별	계 (명)	1,769 (100.0)	24.5	31.3	22.2	5.9	6.7	9.4	423.79966	*** .0000
	개 인	742 (100.0)	30.3	33.4	19.7	3.6	4.7	8.2		
	신 혼 여 행	479 (100.0)	6.1	14.6	33.6	13.6	14.0	18.2		
	수 학 여 행	56 (100.0)	33.9	53.6	7.1	3.6	0	1.8		
	단 체 여 행	324 (100.0)	29.6	46.3	17.6	1.9	2.2	2.5		
	기 타	168 (100.0)	38.6	32.7	14.9	3.0	5.4	5.4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원을 600원으로 환산함.
 ***: P < 0.01 **: P < 0.05 *: P < 0.1

연령별로는 20~30세, 41~60세가 2만원 미만의 순인데 비해, 31~40세, 61세 이상은 2만~4만원, 4만~6만원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31~40세는 8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도 2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30대 연령층이 육상교통비를 제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에서는 전 직종이 6만원 이하에서 육상교통비를 지출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영업,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주부·무직인 경우는 1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도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 수학여행, 단체여행에서 2만~4만원, 2만원 미만, 4만~6만원 순이나, 신혼여행의 경우는 4만~6만원 33.6%, 10만원 이상 18.2%, 2만~4만원이 14.6%로 나타나 타 형태의 여행객에 비해 육상교통비 지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其他雜費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관광 중 지출한 입장료, 주차료, 안내료, 유흥비 및 연회비를 포함한 기타 잡비의 구성 비율을 보면, 2만원 미만 40.0%, 2만~4만원 23.6%, 4만~6만원 17.7%, 10만원 이상 10.8%, 6만~8만원 4.3%, 8만~10만원 3.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성별, 직업별, 여행형태별에서 매우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6만원 이하에서 여자보다 구성비율이 낮는데 비해, 6만원 이상에서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기타 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별에서는 농림수산업, 자영업,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학생, 주부·무직이 2만원 미만, 2만~4만원 순이고, 판매서비스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은 2만원 미만, 4만~6만원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과 경영관리직은 기타 잡비로 지출한 비중이 16.0%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이들 직종이 가장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행형태별로는 개인여행은 2만원 미만, 2만~4만원, 4만~6만원, 10만원 이상 순이고, 신혼여행은 2만원 미만, 2만~4만원, 4만~6만원을 지출한 비율이 20.0~30.0% 사이를 점유하고 있으나 1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도 14.5%가 되고 있다.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은 6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4.7%, 91.0%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32〉 其他雜費

(단위 : %)

구 분	계 (명)	2 만 미 만	2~ 4만	4~ 6만	6~ 8만	8~ 10만	10만 이 상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754 (100.0)	40.0	23.6	17.7	4.3	3.7	10.8	21.07274 *** .0018
	남	1,151 (100.0)	39.6	21.5	17.4	4.6	4.3	12.6	
	여	603 (100.0)	40.6	27.5	18.2	3.6	2.7	7.3	
연 령 별	계 (명)	1,753 (100.0)	40.1	23.6	17.7	4.3	3.7	10.7	50.81421 *** .0102
	20세 미만	61 (100.0)	55.7	24.6	8.2	3.3	3.3	4.9	
	20 ~ 30세	1,029 (100.0)	38.6	23.5	19.2	4.7	3.4	10.5	
	31 ~ 40세	353 (100.0)	38.2	23.5	18.1	3.1	5.1	11.9	
	41 ~ 50세	201 (100.0)	42.3	25.9	11.4	4.5	4.0	11.9	
	51 ~ 60세	78 (100.0)	46.2	19.2	19.2	2.6	1.3	11.5	
61세 이상	31 (100.0)	45.2	19.4	16.1	9.7	3.2	6.5		
직 업 별	계 (명)	1,712 (100.0)	39.7	23.7	18.0	4.3	3.7	10.5	144.80562 *** .0000
	농림수산업	22 (100.0)	72.7	13.6	4.5	0	4.5	4.5	
	자 영 업	211 (100.0)	38.4	19.9	15.2	6.2	4.3	16.1	
	판매서비스직	71 (100.0)	39.5	19.7	23.9	7.0	1.4	8.5	
	기능작업직	84 (100.0)	33.3	26.2	22.6	2.4	3.6	11.9	
	사무기술직	562 (100.0)	37.3	23.8	18.5	6.0	3.9	10.3	
	경영관리직	75 (100.0)	37.3	17.3	24.0	0	5.3	16.0	
	전문자유직	133 (100.0)	33.1	15.8	28.6	7.5	4.5	10.5	
	학 생	304 (100.0)	50.7	29.3	9.2	1.3	3.3	6.3	
	주부·무직	250 (100.0)	36.4	27.2	20.4	2.4	3.2	10.4	
여 행 태 별	계 (명)	1,765 (100.0)	40.0	23.6	17.7	4.2	3.7	10.8	191.90688 *** .0000
	개 인	746 (100.0)	44.3	21.8	14.3	3.1	3.6	12.7	
	신 혼 여 행	476 (100.0)	23.5	20.2	28.2	8.2	5.5	14.5	
	수 학 여 행	57 (100.0)	45.6	38.6	10.5	0	1.8	3.5	
	단 체 여 행	320 (100.0)	47.8	31.6	11.6	1.9	2.5	4.7	
	기 타	166 (100.0)	50.6	20.5	16.9	4.2	2.4	5.4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원을 600원으로 환산함.
 *** : P < 0.01 ** : P < 0.05 * : P < 0.1

2) 外國人

(1) 1人當 觀光費用推計

제주도를 여행하는 外國人 觀光客들은 숙박비 223,803원, 식음료비 210,141원, 육상교통비 88,732원, 기념품구입비 29,617원, 기타잡비 303,662원 등 1인당 855,955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여행형태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은 <표 IV-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여행의 경우는 숙박비 173,333원, 식음료비 138,333원, 육상교통비 66,667원, 기념품구입비 245,000원, 기타잡비 233,333원 등 1인당 856,666원을 지출하고 있다.

단체여행에서는 숙박비 243,179원, 식음료비 220,530원, 육상교통비 89,007원, 기념품구입비 284,503원, 기타잡비 306,755원 등 1인당 1,143,974원을 지출하고 있다.

기타의 경우는 숙박비 263,478원, 식음료비 242,609원, 육상교통비 114,783원, 기념품구입비 435,652원, 기타잡비 383,478원 등 1인당 1,440,000원을 제주관광에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表 IV-33> 1人當 觀光費用推計 (外國人 1991年)

(1인당 총 합계)

구 분	개 인(36명)	신혼여행(2명)	수학여행(1명)	단 체(151명)	기 타(23명)	평 균(213명)
숙 박 비	173,333	240,000	150,000	243,179	263,478	223,803
식 음 료 비	138,333	180,000	150,000	220,530	242,609	210,141
육 상 교 통 비 (전 세 버 스 시 내 · 외 버 스)	66,667	120,666	90,000	89,007	114,783	88,732
기 념 품 구 입 비	245,000	180,000	210,000	284,503	435,652	29,617
기 타 잡 비 입 장 료 주 차 료 안 내 료 유 흥 비 및 연 회 비 기 타	233,333	510,000	60,000	306,755	383,478	303,662
합 계	856,666	1,230,000	660,000	1,143,000	1,440,000	855,955

(2) 1人當 觀光費用構造

제주도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비용 지출구조를 보면, 120~180만원 38.0%, 60~120만원 37.6%, 180~240만원 4.2%, 300만원 이상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성별에서만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성별 응답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120~180만원 39.2%, 60~120만원 33.0%, 180~240만원 15.9%, 60만원 미만과 240~300만원이 각각 5.1%, 300만원 이상 1.7%인 반면, 여자는 60~120만원 59.5%, 120~180만원 32.4%, 180~240만원 5.4%, 60만원 미만이 2.7%로 응답하고 있음에 비추어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1인당 여행비용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主要 項目別 觀光費用

① 宿泊費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지출구조는 18~30만원 12.8%, 42~54만원 4.3%, 6만원 미만 2.4%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은 제주도 관광에서 숙박비로 6~30만원 사이의 금액을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직업별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 응답비율을 보면 농림수산업과 주부·무직은 6만~18만원, 18만~30만원 순이고,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의 경우는 18만~30만원, 6만~18만원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 밖에 전문자유직은 18만~30만원, 30만~42만원, 42만원~54만원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숙박비의 지출이 가장 많아 고급숙박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飲食料費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여행중 지출하는 식음료비는 6~18만원 53.1%, 18~30만원 28.2%, 6만원 미만과 54만원 이상 5.6%, 42~54만원 1.4% 순이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직업별과 여행형태별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이 6~18만원 85.7%, 6만원 미만이 14.3%, 자영업,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주부·무직은 6~30만원 사이가 7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기능직업직은 30~42만원 50.5%, 18~30만원 37.5% 순으로 나타나 기능직업직의 식음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형태별에서는 개인여행의 경우 6~18만원 65.5%, 18~30만원 17.2%, 6만원 미만이 13.8%인데 비해, 단체여행은 6~18만원 54.2%, 18~30만원 26.5%, 30~42만원 7.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③ 陸上交通費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여행에서 지출한 육상교통비의 구조는 6~18만원 69.2%, 6만원 미만 27.9%, 18~30만원 2.4%, 30만원 이상 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직업별과 여행형태별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이 6만원 미만에 100.0% 응답하였고, 그 이외의 직업에서는 6~18만원, 6만원 미만이 전체의 90.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영업과 기능직업직은 18만원 이상이 각각 7.3%, 12.55로 나타나 이들 직종이 제주도 관광에서 육상교통비를 비교적 많이 지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행형태별에서는 개인여행의 경우 6~18만원 57.1%, 6만원 미만 42.9%인데 비해, 단체여행은 6~18만원 70.4%, 6만원 미만 27.0%, 18만원 이상이 2.6%로 나타나 단체여행에서 개인여행에서 보다 육상교통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34> 外國人 觀光客의 1人當 觀光費用構造

(단위 : %)

구 분	계(명)	60만미만	60~ 120만	120~ 180만	180~ 240만	240~ 300만	300만 이 상	검 증 결 과		
								X ₁	P	
성 별	계 (명)	213 (100.0)	4.7	37.6	38.0	14.1	4.2	1.4	11.38322	.0443
	남	176 (100.0)	5.1	33.0	39.2	15.9	5.1	1.7		
	여	37 (100.0)	2.7	59.5	32.4	5.4	0	0		
연 령 별	계 (명)	202 (100.0)	5.0	37.1	38.1	13.9	4.5	4.5	24.14762	.5019
	20세 미만	1 (100.0)	0	100.0	0	0	0	0		
	20 ~ 30세	30 (100.0)	13.3	40.0	40.0	3.3	3.3	0		
	31 ~ 40세	43 (100.0)	7.0	30.2	39.5	14.0	4.7	4.7		
	41 ~ 50세	80 (100.0)	0	33.8	41.3	18.8	5.0	1.3		
	51 ~ 60세	33 (100.0)	9.1	42.4	30.3	12.1	6.1	0		
	61세 이상	15 (100.0)	0	53.3	30.3	13.3	0	0		
직 업 별	계 (명)	182 (100.0)	4.4	36.8	38.5	14.8	3.8	1.6	42.21944	.3752
	농림수산업	7 (100.0)	14.3	57.1	28.6	0	0	0		
	자영업	42 (100.0)	0	35.7	40.5	19.0	2.4	2.4		
	판매서비스직	3 (100.0)	0	100.0	0	0	0	0		
	기능작업직	8 (100.0)	0	25.0	50.0	12.5	12.5	0		
	사무기술직	48 (100.0)	12.5	41.7	35.4	6.3	4.2	0		
	경영관리직	41 (100.0)	2.4	29.3	36.6	22.0	4.9	4.9		
	전문자유직	12 (100.0)	0	8.3	50.0	33.3	8.3	0		
	학생	1 (100.0)	0	100.0	0	0	0	0		
	주부·무직	20 (100.0)	0	45.0	45.0	10.0	0	0		
여 개 행 태 별	계 (명)	213 (100.0)	4.7	37.6	38.0	14.1	4.2	1.4	17.25342	.6365
	개인	29 (100.0)	6.9	37.9	44.8	3.4	6.9	0		
	신혼여행	2 (100.0)	0	0	100.0	0	0	0		
	수학여행	1 (100.0)	0	0	100.0	0	0	0		
	단체여행	155 (100.0)	5.2	40.0	35.5	13.5	3.9	1.9		
	기타	26 (100.0)	0	26.9	38.5	30.8	3.8	0		

註: 무응답은 제외함. 註2) 100¥을 600원으로 환산함.
 ***: P < 0.01 **: P < 0.05 *: P < 0.1

<表 IV-35> 宿泊費

(단위 : %)

구 분		계(명)	6만미만	6만~ 18만	18만~ 30만	30만~ 42만	42만~ 54만	검 증 결 과	
								X ₁	P
성 별	계 (명)	211 (100.0)	2.4	30.3	50.2	12.8	4.3	2.92896	.5698
	남	174 (100.0)	2.3	28.7	50.6	13.2	5.2		
	여	37 (100.0)	2.7	37.8	48.6	10.8	0		
연 령 별	계 (명)	200 (100.0)	2.5	31.0	49.5	12.5	4.5	15.23214	.7630
	20세 미만	1 (100.0)	0	0	100.0	0	0		
	20 ~ 30세	30 (100.0)	0	36.7	46.7	10.0	6.7		
	31 ~ 40세	43 (100.0)	2.3	23.3	48.8	23.3	2.3		
	41 ~ 50세	80 (100.0)	2.5	28.8	55.0	8.8	5.0		
	51 ~ 60세	31 (100.0)	6.5	35.5	38.7	12.9	6.5		
	61세 이상	15 (100.0)	0	46.7	46.7	6.7	0		
직 업 별	계 (명)	180 (100.0)	2.2	32.8	47.8	12.8	4.4	43.13598	* .0904
	농림수산업	6 (100.0)	0	66.7	16.7	16.7	0		
	자영업	42 (100.0)	0	28.6	59.5	4.8	7.1		
	판매서비스직	3 (100.0)	0	33.3	66.7	0	0		
	기능작업직	8 (100.0)	0	12.5	50.0	37.5	0		
	사무기술직	47 (100.0)	6.4	40.4	42.6	8.5	2.1		
	경영관리직	41 (100.0)	0	22.0	56.1	17.1	4.9		
	전문자유직	12 (100.0)	0	8.3	50.0	25.0	16.7		
	학생	1 (100.0)	0	0	100.0	0	0		
	주부·무직	20 (100.0)	5.0	60.0	20.0	15.0	0		
여 행 태 별	계 (명)	211 (100.0)	2.4	30.3	50.2	12.8	4.3	15.1452	.5143
	개인	29 (100.0)	6.9	37.9	44.8	3.4	6.9		
	신혼여행	2 (100.0)	0	0	100.0	0	0		
	수학여행	1 (100.0)	0	0	100.0	0	0		
	단체여행	153 (100.0)	2.0	28.8	52.3	14.4	2.6		
	기타	26 (100.0)	0	34.6	38.5	15.4	11.5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원을 600원으로 환산함.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36> 飲食料費

(단위 : %)

구 분		계(명)	6만미만	6만~ 18만	18만~ 30만	30만~ 42만	42만~ 54만	54만 이 상	검 증 결 과	
									X ₁	P
성 별	계 (명)	213 (100.0)	5.6	53.1	28.2	6.1	1.4	5.6	9.52865	* .0897
	남	176 (100.0)	5.7	48.9	30.7	6.8	1.1	6.8		
	여	37 (100.0)	5.4	73.0	16.2	2.7	2.7	0		
연 령 별	계 (명)	202 (100.0)	5.9	53.5	27.7	5.9	1.0	5.9	26.22301	.3958
	20세 미만	1 (100.0)	0	0	100.0	0	0	0		
	20 ~ 30세	30 (100.0)	6.7	63.3	16.7	0	3.3	10.0		
	31 ~ 40세	43 (100.0)	0	55.8	34.9	4.7	0	4.7		
	41 ~ 50세	80 (100.0)	6.3	50.0	32.5	7.5	0	3.8		
	51 ~ 60세	33 (100.0)	15.2	48.5	18.2	6.1	3.0	9.1		
61세 이상	15 (100.0)	0	60.0	20.0	13.3	0	6.7			
직 업 별	계 (명)	182 (100.0)	6.6	55.5	25.8	5.5	1.1	5.5	60.34562	** .0204
	농림수산업	7 (100.0)	14.3	85.7	0	0	0	0		
	자영업	42 (100.0)	4.8	59.5	28.6	4.8	0	2.4		
	판매서비스직	3 (100.0)	0	100.0	0	0	0	0		
	기능작업직	8 (100.0)	12.5	0	37.5	50.0	0	0		
	사무기술직	48 (100.0)	10.4	50.0	22.9	4.2	4.2	8.3		
	경영관리직	41 (100.0)	4.9	51.2	31.7	2.4	0	9.8		
	전문자유직	12 (100.0)	0	66.7	25.0	0	0	8.3		
	학생	1 (100.0)	0	0	100.0	0	0	0		
주부·무직	20 (100.0)	5.0	70.0	20.0	5.0	0	0			
여 개 인 행 태 별	계 (명)	213 (100.0)	5.6	53.1	28.2	6.1	1.4	5.6	37.87972	*** .0092
	신혼여행	29 (100.0)	13.8	65.5	17.2	0	0	3.4		
	수학여행	2 (100.0)	0	100.0	0	0	0	0		
	단체여행	1 (100.0)	0	0	100.0	0	0	0		
	단체여행	155 (100.0)	4.5	54.2	26.5	7.7	1.3	5.8		
	기타	26 (100.0)	3.8	30.8	53.8	0	3.8	7.7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원을 600원으로 환산함.
 *** : p < 0.01 ** : P < 0.05 * : P < 0.1

<表 IV-37> 陸上交通費

(단위 : %)

구 분	계(명)	6만미만	6~18만	18~30만	30~42만	검 증 결 과		
						X _s	P	
성 별	계 (명)	208 (100.0)	27.9	69.2	2.4	0.5	2.56512	.4636
	남	172 (100.0)	29.1	68.6	1.7	0.6		
	여	36 (100.0)	22.2	72.2	5.6	0		
연 령 별	계 (명)	197 (100.0)	29.4	68.5	1.5	0.5	9.17913	.8680
	20세 미만	1 (100.0)	0	100.0	0	0		
	20 ~ 30세	28 (100.0)	21.4	78.6	0	0		
	31 ~ 40세	43 (100.0)	30.2	67.4	0	2.3		
	41 ~ 50세	77 (100.0)	27.3	70.1	2.6	0		
	51 ~ 60세	33 (100.0)	36.4	60.6	3.0	0		
	61세 이상	15 (100.0)	40.0	60.0	0	0		
직 업 별	계 (명)	177 (100.0)	31.6	66.1	1.7	0.6	38.85165	** .0283
	농림수산업	7 (100.0)	100.0	0	0	0		
	자영업	41 (100.0)	19.5	73.2	4.9	2.4		
	판매서비스직	3 (100.0)	33.3	66.7	0	0		
	기능작업직	8 (100.0)	25.0	62.5	12.5	0		
	사무기술직	48 (100.0)	18.8	81.3	0	0		
	경영관리직	38 (100.0)	39.5	60.5	0	0		
	전문자유직	12 (100.0)	41.7	58.3	0	0		
	학생	1 (100.0)	0	100.0	0	0		
	주부·무직	19 (100.0)	47.4	52.6	0	0		
여 개 행 형 태 별	계 (명)	208 (100.0)	27.9	69.2	2.4	0.5	53.74111	*** .0000
	개인	28 (100.0)	42.9	57.1	0	0		
	신혼여행	2 (100.0)	0	100.0	0	0		
	수학여행	1 (100.0)	0	0	100.0	0		
	단체여행	152 (100.0)	27.0	70.4	2.6	0		
기타	25 (100.0)	20.0	76.0	2.6	4.0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원을 600원으로 환산함.
 ***: p < 0.01 **: P < 0.05 *: P < 0.1

④ 記念品購入費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여행 중에 구입한 기념품 구입비는 6~18만원 34.1%, 18~30만원 26.8%, 54만원 이상 19.0%, 6만원 미만 7.3%, 30~42만원 6.8%, 42~54만원 5.9%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여행형태별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여행형태별의 기념품 구입비는 개인여행의 경우 6~18만원 37.0%, 6만원 미만과 18~30만원, 54만원 이상이 각각 18.5%를 차지하는 반면, 단체 여행은 6~18만원 37.3%, 18~30만원 26.7%, 54만원 이상이 16.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其他雜費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여행 중에 지출한 숙박비, 식음료비, 육상교통비, 기념품구입비 이외의 기타잡비는 6~18만원 35.0%, 54만원 이상이 24.4%, 18~30만원 18.8%, 6만원 미만 10.2%, 42~54만원 7.1%, 30~42만원 4.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성별과 여행형태별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6~18만원 31.7%, 54만원 이상 26.8%, 18~30만원 20.7%인데 비해, 여자는 6~18만원 51.5%, 6만원 미만 18.2%, 54만원 이상 12.1%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기타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형태별에서는 개인여행의 경우 54만원 이상 30.4%, 6~18만원 26.1%, 6만원 미만과 42~54만원이 각각 13.0%인데 비해, 단체여행은 6~18만원 38.9%, 54만원 이상 20.8%, 18~30만원 19.5%, 6만원 미만 1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38> 紀念品 購入費

(단위: %)

구 분	계 (명)	6만 미 만	6~ 18만	18~ 30만	30~ 42만	42~ 54만	54만 이 상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205 (100.0)	7.3	34.1	26.8	6.8	5.9	19.0		
	남	169 (100.0)	8.3	33.7	26.6	5.9	5.9	19.5	2.60032	.7613
	여	36 (100.0)	2.8	36.1	27.8	11.1	5.6	16.7		
연 령 별	계 (명)	194 (100.0)	7.7	34.5	26.8	6.2	5.7	16.7		
	20세 미만	1 (100.0)	0	100.0	0	0	0	0		
	20 ~ 30세	29 (100.0)	0	51.7	24.1	6.9	3.4	13.8		
	31 ~ 40세	42 (100.0)	4.8	33.3	33.3	2.4	2.4	23.8	18.38464	.8256
	41 ~ 50세	76 (100.0)	9.2	31.6	27.6	6.6	9.2	15.8		
	51 ~ 60세	31 (100.0)	12.9	25.8	22.6	9.7	6.5	22.6		
61세 이상	15 (100.0)	13.3	33.3	20.0	6.7	0	26.7			
직 업 별	계 (명)	174 (100.0)	8.6	31.6	28.3	7.5	5.2	19.0		
	농림수산업	7 (100.0)	28.6	57.1	14.3	0	0	0		
	자영업	42 (100.0)	9.5	28.6	33.3	7.1	4.8	16.7		
	판매서비스직	3 (100.0)	0	0	33.3	7.1	4.8	16.7		
	기능작업직	8 (100.0)	12.5	12.5	12.5	25.0	0	37.5	45.49139	.2541
	사무기술직	42 (100.0)	2.4	47.6	21.4	2.4	9.5	16.7		
	경영관리직	40 (100.0)	12.5	27.5	25.5	10.0	5.0	17.5		
	전문자유직	12 (100.0)	0	16.7	58.3	0	0	25.0		
	학생	1 (100.0)	0	100.0	0	0	0	0		
주부·무직	19 (100.0)	10.5	21.1	26.3	15.8	0	26.3			
여 개 행 태 별	계 (명)	205 (100.0)	7.3	34.1	26.8	6.8	5.9	19.0		
	신혼여행	27 (100.0)	18.5	37.0	18.5	3.7	3.7	18.5	36.96274	**
	수학여행	1 (100.0)	0	0	0	100.0	0	0		.0118
	단체여행	150 (100.0)	6.7	37.3	26.7	6.7	6.0	16.7		
	기타	25 (100.0)	0	8.0	40.0	8.0	8.0	36.0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Y을 600원으로 환산함.
 ***: p < 0.01 **: P < 0.05 *: P < 0.1

<表 IV-39> 其他雜費

(단위 : %)

구 분	계 (명)	6만 미 만	6~ 18만	18~ 30만	30~ 42만	42~ 54만	54만 이 상	검 증 결 과		
								X ₂	P	
성 별	계 (명)	197 (100.0)	10.2	35.0	18.8	4.6	7.1	24.4	12.04657	** .0342
	남	164 (100.0)	8.5	31.7	20.7	5.5	6.7	26.8		
	여	33 (100.0)	18.2	51.5	9.1	0	9.1	12.1		
연 령 별	계 (명)	189 (100.0)	9.6	33.7	19.8	4.8	7.5	24.6	26.43881	.3845
	20세 미만	1 (100.0)	0	100.0	0	0	0	0		
	20 ~ 30세	28 (100.0)	7.1	57.1	14.3	3.6	10.7	7.1		
	31 ~ 40세	41 (100.0)	12.2	29.3	14.6	7.3	7.3	29.3		
	41 ~ 50세	72 (100.0)	6.9	26.4	19.4	5.6	6.9	34.7		
	51 ~ 60세	30 (100.0)	13.3	30.0	33.3	3.3	10.0	10.0		
61세 이상	15 (100.0)	13.3	40.0	20.0	0	0	26.7			
직 업 별	계 (명)	169 (100.0)	10.1	32.0	20.1	4.7	7.1	26.0	55.26761	* .0547
	농림수산업	7 (100.0)	28.6	42.9	0	0	14.3	14.3		
	자영업	39 (100.0)	7.7	35.9	20.5	2.6	10.3	23.1		
	판매서비스직	3 (100.0)	0	100.0	0	0	0	0		
	기능작업직	8 (100.0)	0	12.5	62.5	0	0	25.0		
	사무기술직	43 (100.0)	7.0	41.9	27.9	4.7	2.3	16.3		
	경영관리직	38 (100.0)	13.2	21.1	10.5	10.5	10.5	34.2		
	전문자유직	12 (100.0)	0	8.3	16.7	8.3	0	66.7		
	학생	1 (100.0)	0	100.0	0	0	0	0		
주부·무직	18 (100.0)	22.2	27.8	16.7	0	11.1	22.2			
여 개 행 형 태 별	계 (명)	197 (100.0)	10.2	35.0	18.8	4.6	7.1	24.4	45.03349	*** .0011
	개인	23 (100.0)	13.0	26.1	13.0	4.3	13.0	30.4		
	신혼여행	2 (100.0)	0	0	0	0	100.0	0		
	수학여행	1 (100.0)	0	100.0	0	0	0	0		
	단체여행	149 (100.0)	11.4	38.9	19.5	5.4	4.0	20.8		
기타	22 (100.0)	0	18.2	22.7	0	13.6	45.5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註2) 100원을 600원으로 환산함.
 *** : p < 0.01 ** : P < 0.05 * : P < 0.1

2. 觀光產業의 實態分析

가. 調查의 概要

濟州道の 觀光產業은 1986년 이후 感飮산업을 앞질러 道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계속 크게 성장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濟州道綜合開發計劃에서 觀光산업을 濟州의 主眼産業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濟州도 觀光산업의 實態를 파악하고 將來의 競爭力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實態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觀光產業을 크게 6가지 범주로 기술적인 분류를 하였고,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 활동을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0년 2월 28일에서 3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濟州시에 위치한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선정된 12개 업체를 6개 업종별로 2개 업체씩으로 각 업종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것이다.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표를 작성하고, 濟州도관광협회에 등록된 업체 중 1989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고 2차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에 의한 自計記入方式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우편에 의한 自計記入方式도 병행하였다.

본조사의 조사기간은 1차 조사가 1990년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합 100일간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는 1991년 12월 11일부터 1992년 1월 30일까지 50일간 실시되었고 주로 1차 조사에서 제외되었거나 응답이 부실한 문항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업체 수 195개 중 89개 업체(회수율 45.6%)가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 이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였다(<表 IV-40>參照).

<表 IV-40> 調查表 回收現況

區 分	調查對象業體	回收業體	回收率 (%)
宿 泊 業	77	36	46.8
旅 行 業	45	15	33.3
觀 光 客 利 用 施 設 業	10	7	70.0
交 通 業	7	5	71.4
觀 光 飲 食 店 業	20	6	30.0
觀 光 記 念 品 販 賣 業	36	20	55.6
合 計	195	89	45.6

나. 調査內容의 分析

1) 調査對象業體의 現況

(1) 地域別 分布

濟州道の 觀光産業은 1960년대 이후에 적극적인 觀光개발사업과 觀光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觀光業體의 地域別 분포는 대체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表 IV-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업체가 濟州市와 西歸浦市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업체 중 76.4%가 濟州市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南·北郡에는 각각 5.6%, 3.1%밖에 분포하고 있지 않아 道內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IV-41> 觀光業體의 地域別 分布現況

(單位: 個, %)

區 分	濟州市	西歸浦市	南濟州郡	北濟州郡	計
宿 泊 業	67 (78.0)	9 (11.7)	-	1 (1.3)	77 (100.0)
旅 行 業	42 (93.3)	3 (6.7)	-	-	45 (100.0)
觀光客利用施設業	3 (30.0)	5 (50.0)	2 (20.0)	-	10 (100.0)
交 通 業	6 (85.7)	1 (14.3)	-	-	7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10 (50.0)	2 (10.0)	8 (40.0)	-	20 (100.0)
觀光記念品販賣業	21 (58.3)	9 (25.0)	1 (2.8)	5 (13.9)	36 (100.0)
合 計	149 (76.4)	29 (14.9)	11 (5.6)	6 (3.1)	195 (100.0)

(2) 設立年度別

道內 觀光業體를 設立年度別로 살펴보면 <表 IV-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4년 이후 設立된 業體가 전체의 72.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交通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1980년 이후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초 이후에 국민관광 붐이 일어나고 1985년부터 시행된 제1차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의 영향으로 제주도 관광이 크게 활기를 띠는데 영향을 받아 커다란 신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表 IV-42〉 觀光業體의 設立年度別 現況

(單位：個, %)

區 分	'79年以前	'80-'83年	'84-'87年	'89年以後	計
宿 泊 業	5 (6.5)	19 (24.7)	31 (40.3)	22 (28.6)	77 (100.0)
旅 行 業	1 (2.2)	8 (17.8)	14 (31.1)	22 (48.9)	45 (100.0)
觀光客利用施設業	2 (20.0)	1 (10.0)	5 (50.0)	2 (20.0)	10 (100.0)
交 通 業	6 (85.7)	-	1 (14.3)	-	7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3 (15.0)	1 (5.0)	4 (20.0)	12 (60.0)	20 (100.0)
觀光記念品販賣業	-	7 (19.4)	2 (5.6)	27 (75.0)	36 (100.0)
合 計	17 (8.7)	36 (18.5)	57 (29.2)	85 (42.6)	195 (100.0)

2) 資本規模 및 資金借入方法

〈表 IV-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道內 觀光業體의 자본규모는 5억원 이하가 전체의 69.5%를 차지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宿泊業과 觀光客利用施設業만 이 5억원 이상의 업체가 각각 52.0%, 42.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旅行業과 交通業 등은 대부분 소규모 자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 觀光業體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업체의 大形化, 高級化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한 영세성 극복이 하나의 선결과제이다.

〈表 IV-43〉 觀光業體의 資本規模別 現況

(單位：%)

區 分	1千萬원以下	1千-5千萬원	5千-1億원	1億-5億원	5億元以上	計
宿 泊 業	-	12.0	8.0	28.0	52.0	100.0
旅 行 業	-	22.2	22.2	44.5	11.1	100.0
觀光客利用施設業	-	14.3	28.5	14.3	42.9	100.0
交 通 業	-	-	-	80.0	20.0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	50.0	33.3	16.7	-	100.0
觀光記念品販賣業	8.3	58.4	8.3	8.3	16.7	100.0
平 均	1.6	24.5	14.7	30.5	30.5	100.0

觀光業體의 차입금 조달방법은 〈表 IV-44〉에서 보는 바와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평

균 36.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은행 26.8%, 기타 25.2%, 그리고 사채가 12.7%이다. 業種別로는 숙박업이 차입금 조달을 사채(56.9%)에 의존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觀光客利用施設業(70.9%), 觀光飲食店業(48.6%), 觀光記念品販賣業(53.9) 등이 제 2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借入하고 있다. 그리고 旅行業(66.7%)과 交通業(37.8%)은 기타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

借入金의 利用期間은 평균적으로 은행이 26.8개월, 제 2금융권 17.3개월, 사채 4.8개월, 기타 24개월 등이다. 또한 借入金에 대한 利率은 은행이 13.2%, 기타 14.5%, 제 2금융권 17.3%, 사채 17.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IV-44〉 觀光業體의 借入金內譯

(單位: %, 個月)

區 分	銀 行			第 2 金 融 權			私 債			其 他		
	比率	利用期間	金利	比率	利用期間	金利	比率	利用期間	金利	比率	利用期間	金利
觀 光 客 利用施設業	7.3	29	12.8	6.1	20	14.6	56.9	-	-	29.8	-	-
旅 行 業	23.4	26	13.1	9.1	14	16.8	0.8	1	19.1	66.7	36	15.0
宿 泊 業	9.8	21	13.7	70.9	12	16.6	2.3	12	15.0	17.0	12	14.0
觀光飲食店業	32.6	28	12.9	29.6	24	17.8	-	-	-	37.8	-	-
交 通 業	37.7	36	13.0	48.6	22	16.3	3.7	1.3	18.3	-	-	-
觀光記念品 販 賣 業	33.9	21	13.9	53.9	12	18.0	12.2	-	-	-	-	-
平 均	24.1	26.8	13.2	36.4	17.3	16.7	12.7	4.8	17.5	25.2	24	14.5

道內 觀光業體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차입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貸出節次가 복잡하다(55.6%)는 점이고, 이어서 擔保不足(20.4%), 利率費用過多(20.4%) 등이다. 業種別은 경영상 固定資産의 비중이 매우 작은 旅行業이 擔保不足(50.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觀光記念品販賣業도 담보부족(27.3%)에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業種間에는 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를 않다(〈表 IV-45〉參照).

〈表 IV-45〉 觀光業體의 資金借入時 隘路事項

(單位: %)

區 分	貸出節次複雜	擔保不足	利率費用過多	其 他	計
觀 光 客 利用施設業	50.0	16.7	33.3	-	100.0
旅 行 業	40.0	50.0	10.0	-	100.0
宿 泊 業	61.5	-	38.5	-	100.0
觀光飲食店業	66.7	16.7	16.7	-	100.0
交 通 業	62.5	12.5	25.0	-	100.0
觀光記念品 販 賣 業	54.5	27.3	-	18.2	100.0
平 均	55.6	20.4	20.4	3.7	100.0

3) 雇傭實態

觀光産業이 가져오는 모든 經濟的 效果 중에서 雇傭誘發效果야말로 가장 뚜렷한 效果이다. 그런데 觀光산업이 고용에 대한 기여도를 그 지역의 경제구조, 그리고 觀光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觀光산업에 있어서 域外 輸入量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道內 觀光業體의 종업원 현황을 보면 50인 이하 고용업체가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구조면에서도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表 IV-46〉參照).

業種別로는 交通業과 觀光客利用施設業이 비교적 많은 종사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觀光飲食店業과 觀光紀念品販賣業은 전체적으로 업종 특성상 종업원 고용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表 IV-46〉 觀光業體別 從業員 現況

(單位：%)

區 分	1 - 5 人	6 - 10 人	11 - 50 人	50 - 100 人	100 人 以上	計
宿 泊 業	8.9	20.0	46.1	13.3	11.7	100.0
旅 行 業	6.7	36.7	36.7	13.3	6.7	100.0
觀 光 客 利 用 施 設 業	-	14.3	28.6	57.1	-	100.0
交 通 業	-	-	-	40.0	60.0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10.0	50.0	40.0	-	-	100.0
觀 光 紀 念 品 販 賣 業	19.8	39.0	37.3	3.9	-	100.0
平 均	8.7	28.7	39.5	15.5	7.6	100.0

業體當 종업원 수는 평균 38명에 불과하며 觀光호텔을 제외한 일반호텔은 13명, 여행업은 19명, 觀光紀念品販賣業은 14명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表 IV-47〉參照).

〈表 IV-47〉 觀光業體의 平均 從業員數

(單位：%)

區 分	業體當 平均人員
宿 泊 業 (觀光호텔) (一般호텔)	50 (121) (13)
旅 行 業	19
觀 光 客 利 用 施 設 業	36
交 通 業	94
觀 光 飲 食 店 業	31
觀 光 紀 念 品 販 賣 業	14
平 均	38

從業員의 勤務期間別 실태를 살펴보면 2년 미만 경력의 종업원이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관광종사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제주도 觀光産業의 진흥과 함께 관광업체 설립이 크게 늘어 종업원 신규채용이 활발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表 IV-48〉參照).

〈表 IV-48〉 觀光業體 從業員의 勤務期間別 實態

(單位：%)

區 分	1年 未滿	1~2年	3~5年	5年 以上	計
宿 泊 業	25.3	20.9	15.1	38.7	100.0
旅 行 業	29.1	31.1	20.1	19.9	100.0
觀 光 客 利用施設業	32.7	42.6	16.1	8.6	100.0
交 通 業	18.3	22.6	19.5	39.7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36.7	12.9	14.4	36.0	100.0
觀 光 記 念 品 販 賣 業	28.9	26.7	22.6	21.8	100.0
平 均	28.5	26.1	18.0	27.4	100.0

또한 學歷別로는 전체 종업원의 81.7%가 고졸 이상으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수준에 있다. 業種別로는 관광음식점과 교통업의 종업원들이 학력이 낮은 편이나 그 이외의 업체들은 매우 높은 편이다(〈表 IV-49〉參照).

〈表 IV-49〉 觀光業體 從業員의 學歷別 實態

(單位：%)

區 分	中 卒 以下	高 卒	大 卒	計
宿 泊 業	14.2	56.4	29.5	100.0
旅 行 業	-	68.8	31.2	100.0
觀 光 客 利 用 施 設 業	17.2	45.8	36.5	100.0
交 通 業	40.6	39.3	20.1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67.1	24.4	8.5	100.0
觀 光 記 念 品 販 賣 業	0.7	63.5	35.8	100.0
平 均	18.3	52.9	28.9	100.0

이외에도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은 전체 업체 중 51.4%가 연간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어 서비스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다소 엇보이고 있다(〈表 IV-50〉參照).

〈表 IV-50〉 觀光業體別 從業員 教育實施 現況

(單位：%)

區 分	年 1 회以下	2 - 3 회	4 - 5 회	6 - 10 회	100 회 以上	計
宿 泊 業	8.3	16.7	16.7	8.3	50.0	100.0
旅 行 業	-	8.3	8.3	16.7	66.7	100.0
觀 光 客 利 用 施 設 業	-	28.6	-	28.6	42.9	100.0
交 通 業	-	-	-	-	100.0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37.5	25.0	12.5	12.5	12.5	100.0
觀 光 記 念 品 販 賣 業	16.7	16.7	5.6	11.1	45.0	100.0
平 均	10.8	16.2	5.6	11.1	45.0	100.0

4) 販賣實態

濟州道內 觀光業體의 판매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51〉에서 보듯이 판매실태를 月別로 살펴보면 대체로 성수기인 3-5月の 賣出構成比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業種別로 구분해 보면 宿泊業은 하계휴가 기간인 8月과 결혼시즌인 11月, 12月이 가장 높고, 旅行業은 단체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3-6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觀光客利用施設業, 交通業, 觀光記念品販賣業은 4-5月이 다른 달보다 비교적 높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表 IV-51〉 觀光業體의 月別 賣出額 構成比

(單位：%)

區 分	1	2	3	4	5	6	7	8	9	10	11	12
宿 泊 業	7.7	5.7	9.5	9.2	9.6	6.0	6.2	10.0	6.7	8.7	10.9	9.8
旅 行 業	6.3	6.9	13.1	13.1	13.0	13.3	7.6	5.2	1.2	6.0	8.4	5.9
觀 光 客 利 用 施 設 業	7.3	5.4	9.4	12.6	14.4	8.1	7.7	10.7	5.3	8.7	2.7	7.7
交 通 業	8.9	5.1	12.0	13.7	15.4	6.7	7.2	4.6	5.6	8.1	4.9	7.8
觀 光 飲 食 店 業	-	-	-	-	-	-	-	-	-	-	-	-
觀 光 記 念 品 販 賣 業	7.2	5.7	7.0	13.6	15.2	6.9	7.8	4.2	5.8	7.4	5.4	9.8

觀光業體의 판매대금 회수형태는 〈表 IV-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업체는 현금판매를 하고 있으나 어음판매 또는 외상판매의 비율도 20.1%로 나타났다. 특히 타지역의 旅行業體와의 연계가 큰 업종인 宿泊業과 旅行業이 어음이나 외상판매의 비율이 각각 41.8%와 2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어음이나 외상의 결제기간은 宿泊業의 경우에 대체로 2-4개월이 52.9%이고 2개월 미만은 36.8%로 나타났으며 4-6개월인 경우에도 15.8%를 차지하고 있다.

〈表 IV-52〉 觀光業體別 販賣代金 回收形態

		(單位：%)				
區	分	現金販賣	어음販賣	外上販賣	其 他	計
宿 泊 業		56.7	2.6	39.2	1.5	100.0
旅 行 業		65.0	0	29.1	5.9	100.0
觀光客 利用施設業		92.9	2.1	3.6	1.4	100.0
交 通 業		75.1	3.3	21.6	0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79.5	0.5	16.5	3.5	100.0
觀光記念品 販賣業		97.8	0	2.3	0	100.0
平	均	77.8	1.4	18.7	2.0	100.0

5) 促進活動 實態

觀光商品은 대부분이 이동판매가 불가능하고 소멸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촉진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濟州道內 觀光業體는 대부분이 촉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促進活動의 方法은 販賣促進(27.9%), 弘報(27.0%), 廣告(26.1%), 人的販賣(18.9%)의 순이다. 業種별로는 交通業이 廣告, 觀光음식점業이 판매촉진에 의존하고 있고 대규모 숙박업체나 관광객이용시설業 등은 모든 방법을 골고루 이용하고 있다(〈表 IV-53〉參照).

〈表 IV-53〉 觀光業體의 促進活動 方法

		(單位：%)				
區	分	廣 告	人的 販賣	弘 報	販賣 促進	計
宿 泊 業		23.5	11.8	32.4	32.4	100.0
旅 行 業		26.5	23.5	29.4	20.6	100.0
觀光客 利用施設業		38.5	7.7	46.2	7.7	100.0
交 通 業		66.7	-	16.7	16.7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16.7	-	16.7	66.7	100.0
觀光記念品 販賣業		11.1	44.4	5.5	38.9	100.0
平	均	26.1	18.9	27.0	27.9	100.0

廣告活動은 대부분의 업체가 新聞·雜誌나 印刷物 등 비용이 저렴한 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규모 숙박업체나 관광객이용시설業의 경우에는 TV·라디오 등 광고비용이 비싼 放送廣告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IV-54〉參照).

〈表 IV-54〉 觀光業體의 廣告活動 手段

(單位：%)

區 分	TV·라디오	新聞·雜誌	印刷物	其 他	計
宿 泊 業	11.5	26.9	38.5	23.1	100.0
旅 行 業	3.6	32.1	29.3	25.0	100.0
觀光客 利用施設業	18.2	54.5	27.3	-	100.0
交 通 業	-	42.9	27.3	28.6	100.0
觀光 飲食店業	-	50.0	16.7	33.3	100.0
觀光記念品 販賣業	-	14.3	28.6	57.1	100.0
平 均	6.5	32.6	33.7	27.2	100.0

〈表 IV-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道內 觀光業體 中 年平均 500만원 이하의 促進費用을 지출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대규모 업체들이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촉진활동 범위는 대부분의 업체가 국내에 한정하고 있으나 숙박업과 여행업의 경우 일부 업체가 일본, 대만,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촉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表 IV-55〉 觀光業體의 年平均 促進費用

(單位：%)

區 分	1百萬元以下	1 - 5百萬元	5百萬元 - 1千萬元	1千萬元以下	計
宿 泊 業	29.2	39.6	10.4	20.8	100.0
旅 行 業	6.7	60.0	26.6	6.7	100.0
觀光客 利用施設業	-	50.0	8.3	41.7	100.0
交 通 業	25.0	75.0	-	-	100.0
觀光 飲食店業	10.0	80.0	10.0	-	100.0
觀光記念品 販賣業	25.0	43.8	12.5	18.8	100.0
平 均	18.3	50.8	14.2	16.7	100.0

6) 其他事項

濟州道內 觀光業體의 향후 영업확장계획에 관해서는 조사대상업체의 56.8%가 신규투자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43.2%의 업체는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영업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表 IV-56〉에서 보듯이 제주도 관광산업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에 대비하여 영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6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후시설 교체와 이용객 증가로 영업확장을 하고자 하는 업체도 각각 16.3%씩이었다.

〈表 IV-56〉 觀光業體의 營業擴張의 理由

(單位：%)

區 分	施設老朽	利用客增加	長期的 眼目	其 他	計
宿 泊 業	18.8	12.5	68.8	-	100.0
旅 行 業	-	14.3	85.7	-	100.0
觀光客 利用施設業	14.3	14.3	71.4	-	100.0
交 通 業	16.7	33.3	50.0	-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16.7	33.3	50.0	-	100.0
觀光記念品 販賣業	28.6	-	42.9	28.6	100.0
平 均	16.3	16.3	63.3	4.1	100.0

觀光業體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된 활동은 종업원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응답업체 전체의 32.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는 촉진활동 강화가 18.0%, 고객사후관리 16.4%, 시설확장 및 개선이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業種別로는 여행업이 고객사후관리,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시설확장 및 개선과 촉진활동 강화를 우선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응답하였으나, 그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확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가장 주된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IV-57〉 參照).

〈表 IV-57〉 觀光業體의 競爭力 強化方案

(單位：%)

區 分	우 人 確 保	施設擴張 및 改 善	顧 事 客 後 理 管	促 活 進 動 強 化	經 營 合 理 化	서 비 스 擴 大 및 水 準 向 上	計
宿 泊 業	11.4	20.0	8.6	17.1	8.6	34.3	100.0
旅 行 業	10.5	4.8	28.6	23.8	9.5	23.8	100.0
觀光客 利用施設業	7.1	28.6	-	28.6	21.4	14.3	100.0
交 通 業	7.7	7.7	23.1	7.7	15.4	38.5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13.3	13.3	20.0	13.3	6.7	33.3	100.0
觀光記念品 販賣業	4.2	4.2	20.8	16.7	12.5	41.7	100.0
平均	9.0	13.1	16.4	18.0	11.5	32.0	100.0

道內 觀光業體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表 IV-58〉에서 보듯이 과당경쟁이 전체의 63.6%로 가장 높아 이를 제도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자금부족 18.8%, 인력부족 14.4%, 기타 3.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의 경우 과당경쟁과 더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 IV-58> 觀光業體의 經營上 隘路事項

(單位：%)

區 分	資金不足	過當競爭	人力不足	其 他	計
宿 泊 業	12.6	40.2	38.7	8.5	100.0
旅 行 業	20.8	68.6	10.6	-	100.0
觀光客 利用施設業	33.3	50.0	16.7	-	100.0
交 通 業	25.0	50.0	25.0	-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11.4	62.9	25.7	-	100.0
觀光記念品 販賣業	15.0	75.0	5.0	5.0	100.0
平 均	18.8	63.6	14.4	3.2	100.0

濟州道內 觀光産業의 향후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조사대상 업체의 17.9%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제주도내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강구된다면 제주도 관광산업은 장차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表 IV-59>參照).

특히 조사 대상업체들은 현재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인적 서비스의 질적 수준 낙후, 수용시설 부족, 자금부족 등을 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 도내 관광산업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表 IV-59> 觀光業體의 향후 발전전망

(單位：%)

區 分	밝 다	보통이다	어 님 다	모르겠다	計
宿 泊 業	59.1	40.9	-	-	100.0
旅 行 業	28.6	50.0	21.4	-	100.0
觀光客 利用施設業	85.7	14.3	-	-	100.0
交 通 業	33.3	44.4	22.2	-	100.0
觀 光 飲 食 店 業	9.1	4.55	27.3	18.2	100.0
觀光記念品 販賣業	26.7	33.3	40.0	10.5	100.0
平 均	39.7	39.7	17.9	2.6	100.0

V.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效果分析

1. 地域産業聯關表를 이용한 地域經濟效果分析

가. 地域産業聯關表의 作成方法

地域産業聯關分析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地域産業聯關表를 작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投入-產出構造를 直接 調査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으나 時間, 費用上의 문제와 調査方法上의 正確度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에서 地域産業聯關分析을 위하여 全國 I-O表를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나 地域에 따라 經濟構造나 産業部門間的 混合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分析結果의 正確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全國産業聯關表부터 非調査方法(non-survey method)을 통하여 地域技術係數行列을 유도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地域産業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非調査 地域産業聯關模型의 접근법이다.¹⁾ 地域技術係數를 간편하게 추계하기 위한 間接推計方法은 실제조사에 의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全國産業聯關表의 기술계수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全國技術係數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 地域加重值法, 立地商係數法, 供給·需要「풀」法, 反復調整法 등이 있다.²⁾

1) 全國技術係數를 직접 사용하는 方法

全國技術係數를 직접 사용하는 方法은³⁾ 전국기술계수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역의 투입구조는 대체로 全國投入構造와 유사하다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사이에는 産業構造, 生産物의 混合程度 및 생산함수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기술계수를 수정없이 지역기술계수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2) 地域加重值 方法

地域加重值法은 産業別 投入構造를 세분화하면 전국과 지역의 산업별 투입구조가 유사하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세분된 전국기술계수를 지역의 加重值를 적용, 적절히 통합하여 地域産業構造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기술계수로 추계하는 방법이다⁴⁾ 이때 加重值는 지역의 産業別 生産額이 지역 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만 산업이 세분화되는 경우 지역자료의 획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生産額 대신 附加價値나 雇傭量을 사용하기도 한다.⁵⁾ 加重值에 의한 추계방법은 전국기술계수를 이용하여 지역기술계수를 추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이는 다른 추계방법과 함께 실시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1) Richardson H. *Input-output* and pp. 63~6.

2) *Ibid*, p. 33.

3) Isard W and R Kunnene "The Impact of Steel upon the Greater New York-Philadelphia Industrial Reg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5, 1953, pp. 289~302.

4) Shen T Y. "An Input-output Table with Regional Weights"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6, 1970. pp. 114~117.

5) Bosvert R. N and Bills N. L. "A Non-survey Technique for Regional I-O Models"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rnell Univ 1976, pp. 15~16.

3) 立地商係數法

立地商係數法(Location Quotient Approach)은⁶⁾ 立地商係數를 구하여 전국기술계수를 조정함으로써 지역기술계수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立地商係數(q_i)는 다음 식(V-1)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q_i = \frac{X_i^R / X^R}{X_i^N / X^N} \dots\dots\dots (V-1)$$

- 단, X_i^R : 지역 i산업의 생산액
- X^R : 지역 전산업 총생산액
- X_i^N : 전국 i산업의 생산액
- X^N : 전국 전산업 총생산액

이러한 입지상계수를 이용하여 全國技術係數行列(A^N)을 다음 식(V-2)에 의하여 조정하여 지역기술계수행렬을 구할 수 있다.

$$A^R = Q A^N \dots\dots\dots (V-2)$$

- 단, A^R : 지역기술계수행렬 ($b \times b$)
- A^N : 전국기술계수행렬 ($b \times b$)
- Q q_i 를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 ($b \times b$)

4) 供給需要「풀」法

供給·需要「풀」法(supply-demand pool approach)은 한 산업의 地域總生産額에서 그 산업 제품에 대한 地域總需要所要額(total demand requirements)을 차감하여 지역상품의 과잉 또는 과소분을 추정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全國技術係數로부터 지역기술계수를 유도하는 방법이다.⁷⁾

먼저, 지역의 産業 中間需要所要額은 다음 식(V-3)에 의하여 구한다.

$$X_{ij} = a_{ij}^N \cdot X_j^R \dots\dots\dots (V-3)$$

6) Tiebout C. M. "An Empirical Regional Input-output Projection Model",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1, 1969, pp. 334~340.
 7) Schaffer W and K. Chu "Non-survey Techniques for Construction Regional Interindustry Models" *Papers and Proceeding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23, 1969, pp. 83~101.

- 단, a_{ij}^N : 전국기술계수
 X_i^R :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
 X_{ij} : 지역의 i산업에 대한 j산업의 중간수요소요액

또한, 지역의 산업별 最終需要所要額(F_i)은 다음 식(V-4)에서 구할 수 있다.

$$F_i = C_i + G_i + K_i + S_i \dots\dots\dots (V-4)$$

- 단, F_i : 지역 i산업의 최종수요소요액
 C_i : 지역 i산업의 민간소비소요액
 G_i : 지역 i산업의 정부소비소요액
 K_i : 지역 i산업의 고장자본형성소요액
 S_i : 지역 i산업의 재고증가소요액

다음, 지역의 産業別 總需要所要額(\bar{X}_i)은 다음 식(V-5)에 의하여 구한다.

$$\bar{X}_i = \sum_{j=1}^k X_{ij} + F_i \dots\dots\dots (V-5)$$

- 단, \bar{X}_i : 지역 i산업에 대한 총수요소요액
 $\sum_{j=1}^k X_{ij}$: 지역 i산업에 대한 중간수요소요액
 F_i : 지역 i산업에 대한 최종수요요구액

또한,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에서 당해산업에 대한 지역의 總需要所要額을 차감하여 지역의 産業別 商品收支係數(e_i)를 식(V-6)에 의해 구한다.

$$e_i = X_i^R - \bar{X}_i \dots\dots\dots (V-6)$$

- 단, X_i^R : 지역 i산업의 생산액
 \bar{X}_i : 지역 i산업에 대한 총수요소요액

여기서 $e_i \geq 0$ 인 경우 식(V-7)과 같이, $e_i < 0$ 인 경우는 식(V-8)와 같이 전국기술계수를 하향조정하여 지역기술계수로 사용한다.

$$a_{ij}^R = a_{ij}^N \quad \text{iff } e_i \geq 0 \dots\dots\dots (V-7)$$

$$a_{ij}^R = a_{ij}^N (X_i^R / X_i) \quad \text{iff } e_i < 0 \dots\dots\dots (V-8)$$

5) 反復調整法

反復調整法(the iterative procedure technique)은 전국기술계수를 반복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기술계수를 유도해 내는 방법으로서 이에 地域投入產出 「시뮬레이션」法과 RAS방법이 있다.⁸⁾ 지역투입산출 「시뮬레이션」법은 지역의 산업별 투입구조가 전국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지역기술계수를 추계한다. 반면, RAS방법은 산업별 투입구조의 변화는 中間投入比率의 변화, 中間財購入의 代替에 의한 변화에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行과 列을 번갈아 반복하여 조정함으로써 지역기술계수를 추계한다.

6) 諸推計方法의 評價와 補完

이상과 같은 間接推計方法은 이용상 간편성은 높으나 正確性 논란에 따른 추계기법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간접적인 추계방법의 각 기법에 地域加重値를 접합시키는 것이다. 특히 立地商法과 供給·需要 「풀」法에 地域加重値를 적용하면 매우 정확한 지역기술계수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地域加重値를 사용하면 지역산업의 構造的 특성, 즉 生産物 混合의 정도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6년 全國産業聯關表의 전국기술계수행렬(161×161)을 地域雇傭量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지역수준의 全國技術係數行列(18×18)로 축소·통합함으로써 전국과 지역의 산업구성 및 생산함수의 차이와 지역의 非競爭輸入을 조정하고, 이 축소된 全國技術係數行列에 供給·需要 「풀」法을 적용, 지역의 競爭輸入을 조정하여 지역기술계수행렬(18×18)을 추계한다.

나. 濟州地域産業聯關表의 構成要素 推定 및 作成

全國産業聯關表로부터 非調査方法에 의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유도함에 있어서 지역의 투입구조를 정확히 반영하는 地域技術係數를 추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間接推定方式에 따른 정확성의 문제는 地域加重値에 의한 방법과 供給·需要 「풀」法을 병합 사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부문별자료는 지역의 産業別 生産額, 最終需要, 所得, 輸入·輸出 등인데, 이들의 간접적 추계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地域産業의 分類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産業分類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産業聯關分析이 기술계수의 안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된다. 산업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기술계수의 안정성은 강화되지만 資料의 제약성 또한 증가하여 분석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8) Ibid, PP.92-93.

그러므로 산업분류의 정도문제, 즉 세부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산업을 어느정도까지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조분석 및 예측시의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준은 자료의 수집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용가능한 기존자료의 종류 및 수량, 지역 및 지역간 상황, 연구의 목적, 통합에 따르는 문제의 최소화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 이러한 諸與件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제주지역의 산업은 (표 V-1)과 같이 18개 內生産業部門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관광산업은 韓國標準産業分類(KSIC)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관광산업으로 분류되는 음식, 숙박업,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외에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거나 구입하는 산업은 관광산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특히 본 연구의 관광산업부문은 1986년 濟州訪問 觀光客 設問調査⁹⁾에서 용도별 지출경비로 파악된 숙박·음식·오락·역내교통 및 쇼핑 등 5개 부문의 지출을 기초로 하여 통합하였다. 그 중 쇼핑은 다시 同調査의 특산물 구입현황을 기초로 하여 觀光性産業으로 분류된 과일·양봉산물·수산물·수산물가공물·건축물 및 기타 섬유제품·도자기 및 석제품 등 12개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表 V-1〉 産業分類表

番號	産業部門	産業聯關表 部門分類番號
1	농업	1- 9
2	임업	10- 11
3	어업	12- 13
4	광업	14- 20
5	식·음료품 및 연초	21- 36
6	섬유·의복 및 가죽	37- 56
7	제재 및 목재품	57- 60
8	종이·인쇄 및 출판	61- 64
9	석유 화학 제품	65- 83
20	비금속 광물 제품	84- 89
11	금속1차금속제품 및 기타	90-122
12	전력·가스·수도	123-126
13	건설업	127-131
14	도소매업	132
15	관광업	4, 8, 12, 13, 24, 44, 46, 53, 54, 60, 84, 89, 122, 132-134, 136-138, 157
16	운수·보관 및 통신	135-142
17	금융·보험 및 부동산	143-149
18	사회서비스 및 기타	150-156, 158-161

註： 1) 觀光産業部門內的 交通(136, 137, 138), 都·小賣(132), 과일(4) 등은 觀光需要에 의한 產出入.

資料： 1986年 全國産業聯關表, 韓國銀行, 1989.

9) 金泰保, 許香珍, "濟州地域觀光所得 殘留效果 提高方案" 「社會發展研究」 제4집, 1988, pp. 153~174.

2. 地域의 産業別 生産額 및 最終需要의 推計

지역이 産業別 生産額(X_i)은 전국과 지역간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식(V-9)에 의하여 추계하였다.

$$X_i^R = X_i^N (E_i^R / E_i^N) \dots\dots\dots (V-9)$$

- 단, X_i^R : 지역 i부분 생산액
- X_i^N : 전국 i부분 생산액
- E_i^R : 전국 i부분 고용량
- E_i^N : 전국 i부분 고용량

산업부문을 세분화할수록 전국과 지역간 生産函數의 동질성이 강화되므로 식(V-9)을 추계함에 있어 최대한 세분화된 고용량인 161개 부문의 지역고용량을 이용하여 18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추계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표 V-3)과 같다.

지역의 最終需要는 민간소비지출, 정부지출, 고장자본형성, 재고증가 및 수출로 구성되는데 그 중 民間消費支出(C_i)은 전국과 지역의 消費性向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식(V-10)에 의하여 추계하였다.

$$C_i^R = C_i^N (Y_c^R / Y_c^N) \dots\dots\dots (V-10)$$

- 단, C_i^R : 지역 i부분 생산액
- C_i^N : 전국 민간소비지출
- Y_c^R : 지역 가계총소득
- Y_c^N : 전국 가계총소득

地域政府消費支出은 지역정부 서비스의 自體消費率이 전국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식(V-11)과 식(V-12)을 통하여 추계한다.

$$G_i^R = C_i^N (X_g^R / X_g^N) \dots\dots\dots (V-11)$$

$$X_g^R = X_g^N (X_i^R / X_i^N) \dots\dots\dots (V-12)$$

- 단, C_i^R : 지역 i부분의 정부소비지출
- C_i^N : 전국 i부분의 정부소비지출
- X_g^R : 지역 총정부소비지출

<表 V-2> 1986年 濟州經濟 產業別 生産額

産業部門	産出額
농업	408,944
임업	25,418
어업	147,577
광업	1,102
식품·음료품 및 연초	103,819
섬유 및 가죽	20,039
제재 및 목제품	5,958
종이·인쇄 및 출판	12,984
석유화학제품	12,690
비금속광물제품	27,552
금속1차·금속 및 기계	36,903
전력·가스·수도	74,583
건설업	93,469
도소매업	125,860
관광	267,877
운수·보관 및 통신	180,505
금융·보험 및 부동산	116,081
사회서비스 및 기타	210,428
計	1,871,790

註： 1986年 價格임.

資料： 模型 식(V-9)에 의한 推計의 結果

X_g^N : 전국 총정부소비지출

X_i^N : 전국 i부문 생산액

X_i^R : 지역 i부문 생산액

지역의 固定資本形成은 전국과 지역간의 固定資本-總投入比率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식(V-13)에 의하여 추계하였다.

$$K_i^R = K_i^N (X_j^R / X_j^N) \dots\dots\dots (V-13)$$

단, K_i^R : 지역 i부문 고정자본 형성

K_i^N : 전국 i부문 고정자본형성

X_j^R : 지역 j부문 총투입액

X_j^N : 전국 j부문 총투입액

지역의 在庫增加는 전국과 지역간의 在庫率과 재고의 증가율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식(V-

14)에 의하여 추계하였다.

$$I_i^R = I_i^N (X_j^R / X_j^N) \dots\dots\dots (V-14)$$

- 단, I_i^R : 지역 i부문 재고증가
- I_i^N : 전국 i부문 재고증가
- X_j^R : 지역 j부문 총투입액
- X_j^N : 전국 j부문 총투입액

이와 같이 간접추계된 제주지역경제의 개별산업에 대한 項目別 最終需要의 추계결과는 다음 (표 V-3)과 같다.

지역의 산업부문별 所得과 附加價値 또한 기존자료의 부족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계하였다. 지역의 산업별 所得은 전국과 지역간의 임금율이 평균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식(V-15)에 의하여 추계하였다.

$$Y_i^R = L_i \cdot W_j \dots\dots\dots (V-15)$$

- 단, Y_i^R : 지역 i부문 소득
- L_i : 지역 i부문 취업지수
- W_j : 연간 i부문 평균임금률

지역의 産業別 附加價値는 기존 통계자료로서 내무부가 발간하는 「住民所得年報」가 있으나 1984년까지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1986년 산업별 부가가치는 다음 식(V-16)과 같이 간접적으로 추계하였다.

$$V_j = X_j - \sum_{i=1}^k X_{ij} - M_j \dots\dots\dots (V-16)$$

- 단, X_{ij} : j부문 중간투입액
- M_j : j부문 수입액

식(V-15)과 식(V-16)으로 추계된 제주지역경제의 산업별 소득 및 부가가치는 다음 (표 V-4)과 같다.

〈表 V-3〉 1986年 濟州經濟 產業別·生産別·項目別 最終需要

(單位：백만원)

産業別	區分	民間消費	政府消費	固定資本形成	在庫增加	輸 出
농	업	40,323		2,734	1,980	322,090
임	업	828		1,276	-656	7,801
어	업	10,820			781	129,811
광	업	63			31	
식·음료품및연초		154,066			5,508	
섬유및가죽		25,548		1	338	
제재및목제품		2,285		97	40	
종이·인쇄및출판		4,870			220	
석유화학제품		38,402			1,426	
비금속광물제품		1,293			1,174	13,109
금속1차·금속및기계		32,747		687	328	
전력·가스·수도		10,736				61,891
건설업		0		133,815		67,173
도·소매업		67,609		4,517	880	52,95
관광		50,559		133	320	4,549
운수·보관및통신		49,854		209	326	80,858
금융·보험및부동산		63,032		2,043		
사회서비스및기타		74,175	67,493			77,154
計		627,210	67,626	145,379	12,696	817,388

註： 1986年 價格임.

資料： 模型 식 (V-10), (V-11), (V-12), (V-13), (V-14)에 의한 推計의 結果

〈表 V-4〉 1986年 濟州經濟 產業別 所得 및 附加價值

(單位：백만원)

産業別	區分	所 得	附 加 價 值
농	업	143,353	174,683
임	업	9,456	220,321
어	업	31,449	83,425
광	업	148	935
식·음료품 및 연초		7,283	17,710
섬유 및 가죽		2,587	5,187
제재 및 목제품		893	3,809
종이·인쇄 및 출판		2,169	5,411
석유 화학 제품		1,607	7,774
비금속 광물 제품		3,692	7,537
금속 1차·금속 및 기계		3,468	9,643
전력·가스·수도		5,227	67,562
건설업		25,684	36,758
도·소매업		944,246	111,560
관광		84,133	163,438
운수·보관 및 통신		32,281	102,290
금융·보험 및 부동산		41,402	80,834
사회 서비스 및 기타		121,330	148,030
計		612,408	1,241,355

註： 1986年 價格임.

資料： 模型式 (V-17), (V-18)에 의한 推計의 結果

3) 地域技術係數의 推計

濟州道 觀光産業의 經濟效果分析을 위한 地域産業연관표를 작성함에 있어 關鍵이 되는 地域技術係數는 全國産業聯關表로부터 地域加重値에 의한 方法과 供給·需要「풀」法을 統合·적용하여 유도되었는데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全國 세분류 161개 산업부문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서 지역내 다른 부문의 생산에 中間投入으로 사용되는 58개 부분을 非競爭輸入(non-competitive import)으로 간주하여 정리하면 全國技術係數行列은 161×103의 直方行列이 된다. 즉 行(row)의 161개 부문중 58개의 비경쟁수입계수를 内生部門으로부터 제외시켜 非競爭輸入 行의 각 列에 귀속시킨다.

둘째, 103×103의 행렬로 통합된 전국기술행렬을 다시 통합하여 지역경제수준에 맞는 18×18의 全國技術係數行列로 축소한다. 이때 行에 의한 통합은 식(V-19)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a_{iq}^* = \sum_{g=1}^{\sigma} a_{gq}^* \dots\dots\dots (V-19)$$

다음, 列에 의한 통합은 다음 식(V-20)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a_{ij}^* = \sum_{q=1}^{\sigma} a_{iq}^* (U_q / \sum_{q=1}^{\sigma} U_q) \dots\dots\dots (V-20)$$

셋째, 지역수준으로 통합축소된 全國技術係數(a_{ij}^*)에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X_i)을 곱하여 i 부문의 地域投入額(X_{ij})을 구하고 이에 이미 추정된 민간소비지출(C_i^R), 정부지출(G_i^R), 고정자본형성(K_i^R), 재고증가(I_i^R)를 더함으로써 産業別 總所要額(\bar{X}_i)을 구한다. 이어서 이렇게 추정된 産業總所要額(\bar{X}_i)과 기존 地域生産額(X_i^R)을 비교하여 産業別 地域商品收支(e_i)를 계산한다.

그 결과, 만일 $e_i \geq 0$ 인 경우 地域技術係數(a_{ij}^R)는 a_{ij}^* 을 그대로 사용한다. 즉 $a_{ij}^R = a_{ij}^*$ 이다. $e_i < 0$ 인 경우에는 地域技術係數(a_{ij}^R)는 $a_{ij}^* \cdot (X_i^R / X_i)$ 로 하향조정하여 구한다. 즉 $a_{ij}^R = a_{ij}^* (X_i^R / X_i)$ 이다.

다만, 관광산업의 技術係數推計는 현행 韓國標準産業分類上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기술계수표(161×161)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들의 기술계수를 재분류하고 이를 적절히 통합하여 추계하였다.

이와 같이 추계된 地域技術係數行列($a_{18 \times 18}^R$)로부터 식(II-5)와 같은 요령으로 生産誘發係數行列을 추계할 수 있다. 이때 추계된 제주지역 생산유발계수행렬($B_{18 \times 18}^R$)은 한 내생산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변화가 각 산업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과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4) 濟州地域産業聯關表의 作成

1986년 전국기술계수를 통하여 地域加重値와 供給·需要「물」法에 의하여 간접추계된 地域技術係數行列은 모든 원소가 $0 < a_{ij}^R < 1$ 사이의 값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계수로서의 성격을 만족하고 있다. 이 지역기술행렬을 가지고 이미 추계된 산출액, 최종수요 등의 部門別 資料를 이용하여 1986년 濟州地域産業聯關表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표 V-5)과 같다.

<表 V-5>

濟州地域産業聯關表

(單位：백만원)

I	O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음료 품및연 초	섬유 및 가죽	제재 및 목제품	종이·인 쇄 및 출판	석유화학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1차 ·금속및 기계	전력·가 스·수도
		농업	19680.40	169.39	0.00	0.00	18152.30	128.92	0.01	0.46	0.04	0.00	10.91
임업	10682.44	233.52	14.31	0.00	551.08	0.00	2056.65	1.27	4.27	0.55	8.84	0.00	
어업	0.00	0.00	2275.38	0.00	2308.13	0.00	0.00	0.00	0.00	0.00	1.51	0.00	
광업	0.00	0.00	0.00	0.00	4.65	0.05	0.14	0.24	0.22	2182.75	1.43	0.00	
식·음료 품및연 초	13438.31	0.00	1736.39	0.00	5094.14	142.78	0.00	3.82	21.03	0.03	1.45	0.00	
섬유 및 가죽	104.28	11.77	1530.67	0.43	51.02	3776.01	4.65	19.01	22.47	23.17	773.71	4.33	
제재 및 목제품	1168.35	11.31	975.78	0.13	27.06	0.49	237.45	1.24	2.32	24.19	138.01	1.12	
종이·인 쇄및 출판	2062.30	11.01	366.29	0.58	1139.73	86.67	18.01	1954.28	19.89	292.22	239.82	51.84	
석유화학 제품	22217.93	1373.54	1029.50	3.90	1501.02	82.10	36.91	47.47	161.20	296.98	604.55	4729.60	
비금속 광물 제품	54.80	19.42	30.99	0.11	28.33	0.91	2.41	10.12	2.92	728.12	66.45	16.33	
금속1차 ·금속 및 기계	1144.23	105.84	6374.88	8.74	834.34	131.11	45.99	36.20	16.42	523.21	1958.44	770.82	
전력·가 스·수 도	890.27	13.29	150.53	8.85	748.96	123.07	72.61	87.15	42.50	658.22	303.94	599.13	
건설업	2615.20	168.80	185.06	4.98	60.62	25.59	15.44	5.65	2.30	34.05	23.75	1199.82	
도·소 매업	3439.71	-13.60	3560.50	3.79	1980.63	310.99	85.23	221.10	39.71	402.63	720.01	430.43	
관 공	2694.45	21.48	1648.52	1.39	1495.67	126.16	168.27	72.77	16.67	360.78	250.73	190.47	
운송·보 관및 통신	3406.50	101.19	3269.86	3.31	638.35	91.31	95.28	101.49	44.29	1022.40	273.82	535.66	
금융·보 험및 부동산	6808.10	114.30	560.11	14.37	1674.37	227.79	160.79	356.58	46.15	1058.80	560.85	1830.57	
사회서 비스 및 기타	3925.45	308.90	5616.19	5.89	674.67	110.17	51.80	245.34	26.85	488.88	369.13	843.83	
증 건 투 자 업	94532.7	2650.2	35425.0	56.5	36965.1	5364.1	3051.6	3166.2	469.3	8297.0	6307.4	6903.9	
수 업	16684.1	556.7	28075.8	111.6	9882.8	3794.2	272.9	1644.9	6292.5	9771.0	11885.7	17257.5	
부 가 가 치	297727.2	22211.1	84076.2	933.9	56971.1	10090.7	2633.5	8172.9	5928.32	9484.0	18710.0	50421.5	
총 투 입	408944.0	25418.0	14577.0	1102.0	103819.0	20039.0	5958.0	12984.0	12690.04	27552.0	36903.0	74583.0	

(單位 : 백만원)

건설업	도·소매업	관 광	운송·보관및통신	금융·보험 및 부동산	사회서비스 및기타	消費(Ci)	投資(Ii)	輸出(Ei)	輸入(M)	總 産 出(Xi)
18.69	17.52	2037.42	0.18	2.49	446.11	40323.0	4714.0	323042.1	0.0	408944.0
46.92	0.10	2123.25	0.36	0.00	96.80	828.0	620.0	8149.7	0.0	25418.0
0.00	0.00	86.52	0.00	0.00	17.26	10820.0	781.0	130187.2	0.0	147577.0
1036.57	0.00	18.22	0.18	0.00	2.10	20.8	10.2	0.0	2175.5	1102.0
0.00	13.29	2710.76	0.54	0.00	784.48	85266.4	3048.4	0.0	8442.7	103819.0
92.81	76.32	803.79	243.86	18.79	970.49	13203.0	175.2	0.0	1866.8	20039.0
1866.57	14.30	198.78	63.18	17.21	473.8	1533.3	91.9	0.0	1988.7	5958.0
3666.59	1798.70	2815.60	711.91	2607.45	4291.26	2220.2	100.3	0.0	8170.6	12984.0
2362.62	768.76	8010.85	4764.07	316.46	6906.88	5182.3	192.4	0.0	44801.1	12690.0
9158.56	7.55	205.46	22.38	7.0	198.01	1293.0	1194.0	14525.1	0.0	27552.0
6865.95	588.02	2253.38	758.30	193.32	11263.37	17200.9	533.1	0.0	14703.6	36903.0
362.95	1579.00	6612.39	1122.02	1719.68	6538.42	107336.0	0.0	42214.6	0.0	74583.0
242.65	1243.81	1878.78	215.34	911.47	4166.05	0.0	13385.0	67144.6	0.0	93469.0
2627.68	1936.77	398.43	2222.81	337.38	3799.15	67609.0	5397.0	2725.5	0.0	125860.8
1297.93	907.59	1837.36	1846.67	518.21	1879.67	50692.0	320.0	201530.4	0.0	267877.2
2611.71	6456.76	7305.60	10676.33	2904.71	4701.59	49854.0	535.0	85875.8	0.0	180505.0
9568.61	6127.81	18309.89	7737.53	14794.86	14851.80	45149.6	1463.4	0.0	20335.3	116081.0
1131.91	4885.51	7196.72	4967.32	7679.4	23710.71	14166.8	0.0	6509.3	0.0	21428.0
39658.2	269421.8	69945.2	35353.0	32028.5	85108.0					
17051.8	2867.2	15533.4	29558.1	1977.2	20452.1					
26758.9	96571.8	182398.5	115594.0	82075.2	104867.8					
93469.0	12586.0	267877.2	180505.0	116081.0	210428.0	544399.5	32541.0	906430.3	102484.4	1871780.0

이 表에서 보면 1986년 제주경제의 재화와 서비스의 總供給은 1조9,741억원인데, 이는 地域內 總生産 1조8,717억원(94.8%)과 輸入 1,024억원(5.2%)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수요면에서 중간 수요에 4,917억원(33.6%), 지역내 최종수요 1조4,825억원(66.4%)에 충당되었다. 이와 같은 총 생산을 가능케하기 위하여 투입은 중간투입 6,116억원(33.1%), 기초투입 12,413억원(66.9%)이 이루어졌다.

2. 觀光所得(收入)의 推計

觀光所得의 추계를 위해서는 觀光客 및 觀光收入에 대한 定義와 집계방식에 대한 科學化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觀光統計를 利用하는 경우 統計가 어떻게 집계되고, 그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얼마나 신뢰할만한 것인지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그리하여 觀光統計는 관광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고, 世界觀光機構(WTO) 등 국제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觀光客 集計方式에도 충실치 못한 경우도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國內外的 各 機關이 제시하는 國內外 觀光客의 定義와 推計方法, 觀光收入의 추계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가. 觀光客의 定義 및 推計方法

WTO의 定義에 의하면¹⁰⁾ 국제관광객은 일상거주지외의 다른 국가를 1년미만 동안 방문하고 방문국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직업외의 주요방문 목적을 가진 국제방문객으로 정의되는데 觀光客(Tourists)과 當日觀光客(Excursionists)을 포함한다.

觀光客(Tourists)은 방문국을 적어도 24시간, 그러나 1년이 넘지 않게 체재하고 여행목적은 다음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 ② 사업, 친구, 친척방문, 업무, 화합, 회의, 건강, 연구, 종교

當日觀光客(Excursionists)은 방문국에서 24시간미만 체재하는 국제방문객이다. 이 경우 방문국의 숙박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訪問乗務員도 포함된다.

WTO의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國際觀光客의 統計를 추계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는 法務部의 出入國管理統計에 의존하여 추계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한 訪韓外國人의 類型을 보면 ①외교, ②공용, ③협정수행, ④단기자격, ⑤취재, ⑥종교, ⑦기술, ⑧상용, ⑨투자, ⑩교육연구, ⑪고용, ⑫유학, ⑬연수, ⑭홍행, ⑮동거, ⑯거주, ⑰동반 등의 17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韓國觀光公社는 ⑮와 ⑯를 제외하고 모두 관광객수에 포함시켜 추계하여 왔으나 1988년 6월부터 無國籍者, 外交官, 軍人 등이 제외되어 WTO정의에 상당히 접근되었다.

國內觀光客의 추계는 한마디로 쉽지 않다. 自國民이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관광객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하여 그 概念定義가 용이하지 않다. WTO에

10) 韓國觀光公社, “觀光統計集計基準”, 「觀光情報」, 1990. 1. pp. 75~77.

의하면 國內觀光客이란 국적이 관계없이 어떤 국가의 주민으로 1년미만의 기간동안 같은 국가안의 어떤 장소를 여행하는 國內訪問客으로서 방문지 안에서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갖는 이외의 방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觀光客과 국내소풍객을 포괄한다. 觀光客은 방문지에서 24시간 이상 1년미만 다음의 목적으로 체재하는 國內訪問客을 의미한다.

①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② 상업, 친구, 친지방문, 업무, 회합, 회의, 건강, 연구, 종교

이와 달리 국내소풍객은 방문지에서 24시간내만 체류하는 국내 방문객을 말한다.

이같은 WTO의 定義에 입각하여 韓國觀光公社는 觀光客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觀光客은 자신의 일상거주지를 벗어나 16km 이상(市·郡行政區域)을 벗어나 여행하는 자로서 그 여행목적이 위락, 휴가, 건강, 연구, 신앙 스포츠 등이나 사업, 가족관계, 업무수행, 회합에 참가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¹¹⁾

이 정의는 WTO의 정의가 여행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의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定住生活影響圈이 16km 이내의 日常生活圈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WTO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濟州道가 그동안 사용하였던 觀光客 推計方法은 推論方法 (The Assumption Approach)에 의거하고 있다. 濟州道가 폐쇄된 섬이라는 利點을 이용하여 항공여행의 경우 국제선은 100%, 국내선은 90%, 선박여객의 경우 카페리 85%, 일반여객선은 70%를 觀光客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의존하여 왔는데, 非科學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부정확한 통계를 이용하여 地域經濟計劃을 수립하여 觀光政策을 실시하거나 관광시설투자를 할 때 誤判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濟州觀光統計의 推計方法의 科學化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나. 濟州觀光所得의 推計

濟州觀光所得의 정확한 推計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觀光所得의 概念定立과 推計方法의 科學化가 요구된다. 觀光所得(收入)에 대한 定義는 WTO도 IMF國際收支便覽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IMF의 정의에 의하면 國際收支體系上 旅行收支는 관광객이 체재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남에게 주기 위하여 그 지역내에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불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同項目은 再販賣를 위하여 구입한 것은 제외하며, 그 나라 안에서 발생한 운임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定義에 기초하여 WTO는 國際觀光收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²⁾ 國際觀光收入(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은 국제 관광객이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外貨를 원천으로 지불하는 소비로부터 생긴 한 국가의 수입을 의미한다. 이 경우 當日觀光客(Excursionists)의 수입도 포함되나 고용에 의한 보수나 국제운임수입은 관광수입에서 제외된다. 國際觀光收入의 추계는 韓國觀光公社에 의하여 韓國銀行의 旅行經費換錢計定을 통해 外換分析을 고려한 가운데 海外觀光客을 대상으로 海外旅行者 1人當 觀光消費支出額을 조사하여 訪韓國際觀光客數를 乘하여 추계하고 있다.

11) 韓國觀光公社, 「全國觀光綜合開發計劃」, 1989. 12. pp. 101~120.

12) 韓國觀光公社, 「前掲書」, pp. 77~78.

이와 같은 WTO의 國際觀光收入의 定義와 推計方法을 통하여 한 地域經濟에 필요한 觀光所得(收入)과 推計方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濟州經濟라는 지역경제단위에서 유용한 觀光所得의 개념은 관광객이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지불하는 소비로부터 생긴 한 地域의 수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정의된 바 대로 관광객이 그들이 여행하고 있는 경제로부터 자신의 용도를 위해 취득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은 방문한 경제내에서의 숙박, 가사, 유흥, 운송으로서 이 모든 것은 제공하는 경제내에서 소비되는 것이며, 이밖에 선물, 기념품 및 기타 물품 등은 관광객이 방문한 경제로부터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아처(B. H. Archer)에 의하면 觀光産業의 經濟效果는 크게 1次效果와 2次效果로 나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차효과란 직접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최초로 지출한 경비가 창출하는 經濟的 效果를 의미하는데, 이 지출은 호텔 등의 숙박업자, 기념품상, 서비스業者들에 대한 觀光支出로 나타나는 觀光所得을 말한다. 2차효과란 間接效果와 誘發效果를 합한 개념으로 간접효과란 관광산업과 1次的 聯關을 맺는 關聯産業部門에서의 所得·雇傭創出 면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고, 유발효과란 가계부문의 觀光收入增大로 인한 지역산업에 대한 消費支出增加效果를 의미한다.¹³⁾ 따라서 觀光所得은 아처의 1次效果에 의한 觀光産業에서 창출되는 觀光收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濟州道는 지금까지 觀光收入을 추계함에 있어 1987년 1인당 觀光經費支出額을 標本調査에 의하여 추계한 다음 物價上昇率을 고려하여 當該年度의 觀光客數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추계하여 왔다. 그러나 이같은 推計方式은 다음 (表 I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觀光客의 旅行形態에 따라 1인당 觀光經費支出水準이 최고 新婚旅行의 경우 397,544원인 반면, 최저 修學旅行의 경우 151,716원이 되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추계방식은 實際의 관광수입과 큰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觀光所得의 推計方式은 旅行形態別로 濟州訪問 觀光客을 유형화하여 加重值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추계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實際의 觀光所得에 가깝게 접근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개선된 推計方式을 적용하기 위해 1991년 8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濟州訪問 觀光客을 대상으로 2100개의 標本調査에 의하여 조사된 旅行形態別 1人當 觀光經費支出額은 앞장에서 분석한 (表 IV-26)과 같다. 따라서 濟州訪問 1人當經費支出額을 유형화하여 여행형태별 濟州訪問 觀光客數의 加重值를 적용하여 추계된 濟州道 觀光所得은 다음(表 V-6))과 같다.

13) Archer BH, "The Uses and Abuses of Multiplier", C. E. Gearing(eds) *Planning for Tourism Develop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3, pp.26-50.

(표 V-6) 內外國人別 觀光所得(收入)의 現況(1991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관광소득원별	내 국 인		외 국 인		합 계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숙 박	205,594	25.9	61,600	23.1	267,194
식 · 음 료	137,546	17.3	57,750	21.6	195,296
육 상 교 통	124,240	15.6	24,475	9.2	148,715
기 념 품 구 입	113,808	14.3	8,004	3.0	121,812
유 흥, 기 타	123,942	15.6	83,628	31.3	197,570
항공, 선박	88,551	11.1	31,075	11.6	119,626
합 계	793,681	100.0	266,532	100.0	1,060,213

(表 V-1)에 의하면 國內觀光客에 의한 觀光收入은 7936.8억원, 國際觀光에 의한 觀光收入은 2,665.3억원으로 濟州觀光所得은 1991년말 현재 1조 602.1억원으로 추계되었다.

3. 濟州道 觀光産業의 乘數 및 産業聯關效果分析

제주지역경제에서 生産額, 附加價值, 雇傭, 輸出 등 모든 면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막대하다. <表 V-6>에 의하여 1986년 濟州地域産業聯關表를 통하여 보면 觀光産業의 生産額은 2678.77억원으로 지역 전체 생산액의 14.3%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부문별 산출액 비중으로 볼 때 농업에 이어 2위이며 최근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附加價值 면에서도 지역 전체 總附加價值 가운데 13.6%를 차지함으로써 생산액과 마찬가지로 農業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산업에 대한 需給構造를 보면 관광산업의 總產出額은 中間需要에 5.7%, 最終需要에 94.3%로 배분되어지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의 投入構造를 보면 中間投入率은 31.9%로 全産業의 平均中間投入率 39.5%보다 낮으나 中間需要率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는데 이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最終需要的 原始産業型 産業이기 때문에 前方聯關效果는 낮으나 後方聯關效果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산업임을 의미하고 있다.

乘數效果와 産業聯關效果 分析을 통해 觀光産業의 成長潛在力을 파악할 수 있는데, 乘數效果는 어떤 특정부문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지역경제 전체에 直間接적으로 미치는 산출, 고용, 소득 면에서 總量的 倍增의 효과를 의미한다. 산출승수는 한 산업부문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直接·間接으로 필요한 全産業部門의 산출액을 말한다. 따라서 한 內生産業部門 j에 대한 산출승수는 生産誘發係數行列에서 j산업부문에 관한 行원소를 전부 합한 것과 같다. 따라서 제주지역경제내 觀光産業의 產出乘數는 (表 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412로서 제주지역경제의 全産業 平均產出乘數 1.375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觀光産業의 산출승수가 1.3412라 하는 것은 관광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1.3412단위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것을 뜻한다. 산출승수가 특히 높은 산업은 제재 및 목재품(1,619), 건설업(1,560), 식·음료품 및 연초(1,467)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V-7〉 濟州經濟의 產出·雇傭·所得乘數

産業別	구분	產出乘數	雇傭乘數	所得乘數
농	업	1.2929	1.1300	1.2195
임	업	1.1249	1.0339	1.0816
어	업	1.3238	1.2830	1.4569
광	업	1.0672	1.0913	1.1402
식·음료품 및 연초		1.4674	4.4071	2.9482
섬유 및 가죽		1.3604	1.4289	1.5444
제재 및 목제품		1.6193	3.1764	2.3733
종이·인쇄 및 출판		1.3254	1.4890	1.5054
석유 화학 제품		1.0453	1.1213	1.0851
비금속 광물 제품		1.3718	1.5871	1.6536
금속1차·금속 및 기계		1.2185	1.4529	1.597
전력·가스·수도		1.1254	1.7386	1.5378
건설업		1.5605	1.5942	1.5106
도·소매업		1.2833	1.1226	1.1521
관광		1.3412	1.1192	1.2554
운수·보관 및 통신		1.2551	1.3829	1.4312
금융·보험 및 부동산		1.3841	1.4131	1.3758
사회서비스 및 기타		1.5478	1.3818	1.3030
계		1.3175	1.6085	1.5074

資料： 金泰保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장전망」(中央大博士學位論文 1990. 2)

雇傭乘數는 한 산업부문에서의 고용변화가 산업 전체의 총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산업이 직·간접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 총고용량이다. 제주지역경제내 관광산업의 고용승수는 (表 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193으로 제주경제내 全産業의 平均雇傭乘數인 1.6085보다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所得乘數는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하게 되는 全産業의 산출량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효과를 의미한다. 소득승수는 (표 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554로서 전산업 平均所得乘數 1.507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산업부문

의 소득이 1단위 증가하게 될 때 경제 전체로는 1.2554만큼의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聯關關係는 前後方聯關效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前方聯關效果는 感應度係數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받는 과급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산업 생산유발계수행렬의 行의 평균치를 全産業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따라서 이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이 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이 많다는 것, 즉 다른 산업들의 생산증가로 인한 과급효과를 이 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表 V-8〉 産業聯關效果

産業別	區分	後方聯關效果	前方聯關效果
농	업	0.9814	0.9821
임	업	0.8539	1.0952
어	업	1.0049	0.7970
광	업	0.8100	0.8379
식·음료품및연초		1.1138	0.8663
섬유및가죽		1.0326	0.9951
계재및목제품		1.2291	0.8311
종이·인쇄및출판		1.0060	1.0498
석유화학제품		0.7934	1.0900
비금속광물제품		1.0412	0.8730
금속1차·금속및기계		0.9249	1.0626
전력·가스·수도		0.8542	0.9450
건설업		1.1845	0.8545
도소매업		0.9740	0.9841
관광	광	1.0180	0.9011
운수·보관및통신		0.9526	1.1032
금융·보험및부동산		1.0506	1.4969
사회서비스및기타		1.1749	1.2353

資料： 金泰保 「上揭論文」

後方聯關効果는 影響力係數로 측정되는데 어떤 산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산업 생산유발계수행렬의列의 평균치를 전 산업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이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해당 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평균적인 산업보다 더 많이 中間投入物로 고용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해당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 산업에 中間投入物을 공급하는 많은 산업들의 생산도 따라 증가하게 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관광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는 (표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응도계수가 0.9011, 영향력계수 1.0180으로 후방연관효과만이 제주경제내 전산업 평균보다 미소하게 높게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관광산업의 경우 산출승수는 제주경제내 전산업 평균보다 다소 높은 반면 고용 및 소득승수는 낮으며, 전방연관효과는 제주경제내 전산업 평균보다 낮으나 후방연관효과는 전산업 평균보다 미소하게 높게 나고 있는데 그동안 濟州地域開發이 觀光主導型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地域既存産業과의 聯關關係를 고려하지 않고 관광산업 중심의 개발로 끝나 濟州開發은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개발전략이 도입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4.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分析

濟州道 觀光産業이 濟州經濟에 대한 波及效果를 측정하기 위하여 地域I-O表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濟州地域 逆行列係數表(Leontief Inverse Matrix)를 이용하여 觀光産業 最終需要인 觀光所得의 증가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은 推計式(式II-13), (式II-15), (式II-17)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波及效果의 분석은 증가된 最終需要가 생산을 위하여 1차적으로 필요한 直接效果와 이에 부수되어 中間財의 공급 등 계속적으로 誘發되는 間接效果로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濟州道 觀光所得의 濟州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濟州訪問관광객에 의하여 지불된 觀光所得의 증가에 따른 生産, 雇傭, 所得의 변화를 측정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에 의한 最終需要인 觀光所得(ΔY_i)의 관광수요가 유발될 때 産出, 雇傭, 所得 면에서의 總變化는 직접적으로 觀光産業의 生産, 雇傭, 所得을 증가시키는 물론, 관광산업들의 後方聯關産業들의 生産, 雇傭, 所得을 연쇄적으로 유발시킴으로써 濟州經濟 전체적인 波及效果를 가져오게 된다.

1991년 濟州道 訪問觀光客이 지출한 觀光所得은 (表 V-6)에 의하여 1조 602억원인데, 이러한 최종수요가 濟州地域 경제전체에 미치는 産出, 雇傭, 所得의 효과는 다음(表 V-9)에서 알 수 있다. 이 표에 의하면 濟州道 觀光所得에 의하여 유발된 제주지역 總産出額은 1조 4218억원이고, 總雇傭은 19만 8468명, 그리고 總所得은 4,390억원이 유발하여 濟州經濟에 파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濟州經濟에 대한 生産·雇傭·所得의 總 波及效果는 직접적으로 觀光産業의 生産, 雇傭, 所得 면에서 각각 1조 198억원, 17만 6,554명, 3,359억원이 유발되었으며,

나아가 間接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관관계가 있는 산업들의 생산, 고용, 소득 면에서 각각 3,520억원, 2만 1,871명, 1,030억원이 유발되어 觀光關聯産業에 波及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

〈表 V-9〉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1991년)

(단위: 백만원, 명)

산업부문별	구분	산 출	고 용	소 득
농	업	16,481	3,841	5,904
임	업	2,748	602	1,089
어	업	3,380	709	1,134
소	계	22,609	5,152	8,127
광	업	338	13	45
식·음료품 및 연초		52,056	1,352	5,845
섬유 및 가죽		4,797	290	619
제재 및 목제품		5,847	284	876
종이·인쇄 및 출판		7,767	273	1,968
석유 화학 제품		5,437	198	1,247
비금속 광물 제품		11,953	367	1,261
금속 및 기타제조업		3,882	75	304
소	계	92,077	2,852	12,165
전력·가스·수도		30,449	244	2,134
건설업		9,783	500	2,688
도소매업		17,415	3,031	13,041
관광		1,069,802	176,554	335,996
운수·보관 및 통신		36,849	1,423	6,590
금융·보험 및 부동산		93,891	4,993	33,487
사회서비스 및 기타		42,975	3,619	24,778
소	계	1,301,164	190,464	418,714
합	계	1,421,859	198,468	439,006

資料: 模型式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으로 산업부문별로 보면 濟州道 觀光所得의 농업·임업·어업의 제1차 산업에 미친 波及效果는 산출 226억원, 고용 5,212명, 소득 81억원, 광업, 식음료품 및 담배, 섬유 및 가죽, 제재 및 목제품 등 제2차 산업에 미친 波及效果는 산출 920억원, 고용 2,852명, 소득 121억원, 전력·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제3차 산업에 미친 波及效果는 산출 1조 3011억원, 고용 190,464명, 소득 4187억원이 誘發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觀光所得 發生源別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觀光宿泊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

1991년 제주도 觀光宿泊業部門으로부터 파생된 觀光所得은 2671.94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觀光所得인 最終需要가 증가함에 따라 濟州地域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表 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 3,554억원의 생산증대효과, 고용 54,550명의 증대효과, 소득 면에서 1,106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産業部門別로 地域經濟波及效果를 살펴 보면 1991년 觀光宿泊部門의 觀光소득인 최종수요가 2671억원 증가함에 따라 農林水産業에 미친 波及效果는 산출 48억원, 고용 5,152명, 소득 20억원, 鑛工業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227억원, 고용 714명, 소득 31억원, 그리고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5,592억원, 고용 48,684명, 소득 1,055억원이 증대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表 V-10〉 觀光宿泊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1991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산업부문별	산 출	고 용	소 득
농업	4,139	3,841	1,488
임업	643	602	274
어업	789	709	285
소계	4,867	5,152	2,047
광업	85	3	11
식·음료품 및 연초	13,118	340	1,472
섬유 및 가죽	1,208	85	156
제재 및 목제품	1,473	58	221
종이·인쇄 및 출판	1,477	68	496
석유화학제품	1,370	49	314
비금속광물제품	3,012	92	366
금속 및 기타제조업	978	19	86
소계	22,721	714	3,122
전력·가스·수도	7,673	61	537
건설업	2,465	126	677
도·소매업	4,388	764	3,286
관광	269,590	44,491	84,671
운수·보관 및 통신	9,286	358	1,661
금융·보험 및 부동산	23,660	1,258	8,438
사회서비스 및 기타	10,829	912	6,244
소계	559,253	48,684	105,514
합계	375,479	54,550	110,683

資料: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② 觀光食飲料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

1991년 제주도 觀光食飲料部門으로 부터 파생된 觀光所得은 1952억원인데, 이 식음료부문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濟州地域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表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 2,677억원, 고용 36,519명, 소득 807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산업부문별로 미친 地域經濟波及效果를 살펴보면 1991년 食飲料部門의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1952억원 증가함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미친 波及效果는 산출 109억원, 고용 946명, 소득 14억원, 鑛工業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173억원, 고용 523명, 소득 22억원, 그리고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2,394억원, 고용 35,050명, 소득 770억원이 증대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表 V-11> 觀光食·飲料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1991년)
(단위: 백만원, 명)

산업부문별	구분	산 출	고 용	소 득
농	업	10,432	706	1,086
임	업	237	110	200
어	업	301	130	208
소	계	10,970	946	1,494
광	업	62	2	8
식·음료품 및 연초		9,578	249	1,075
섬유 및 가죽		882	62	114
재재 및 목제품		1,473	43	161
종이·인쇄 및 출판		1,429	50	362
석유화학제품		1,001	36	229
비금속광물제품		1,359	62	248
금속 및 기타제조업		1,554	19	45
소	계	1,7338	523	2,242
전력·가스·수도		5,602	49	392
건설업		1,800	92	494
도·소매업		3,204	577	2,399
관광		196,843	32,486	61,823
운수·보관 및 통신		6,780	262	1,212
금융·보험 및 부동산		17,276	918	6,161
사회서비스 및 기타		7,907	666	4,559
소	계	239,412	35,050	77,040
합	계	267,720	36,519	80,776

資料: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③ 觀光交通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 效果

1991년 제주도 觀光交通部門으로부터 파생된 觀光所得은 2683억원인데, 이 관광교통부문 관광 소득인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濟州地域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表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 3611억원, 고용 50,282명, 소득 1,110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산업부문별로 地域經濟波及效果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57억원, 고용 1,303명, 소득 20억원, 鑛工業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225억원, 고용 720명, 소득 30억원,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3,228억원, 고용 51,850명, 소득 1,059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表 V-12> 觀光交通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1991년)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산업부문별	산 출	고 용	소 득
농업	4,196	972	1,493
임업	695	152	275
어업	855	179	286
소계	5,746	1,303	2,054
광업	85	3	11
식·음료품 및 연초	13,170	342	1,478
섬유 및 가죽	1,213	86	156
계재 및 목제품	1,479	59	221
종이·인쇄 및 출판	1,965	69	495
석유 화학 제품	1,375	50	315
비금속 광물 제품	3,024	92	319
금속 및 기타제조업	224	19	77
소계	22,534	720	3,072
전력·가스·수도	7,703	61	540
건설업	2,475	126	680
도·소매업	4,406	766	3,299
관광	270,659	44,668	85,006
운수·보관 및 통신	13,012	360	1,667
금융·보험 및 부동산	23,754	1,363	8,472
사회서비스 및 기타	10,872	915	6,268
소계	332,881	51,850	105,932
합계	361,161	50,282	111,058

資料 :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④ 觀光土産品販賣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

1991년 제주도 觀光土産品販賣部門으로부터 파생된 觀光所得은 1218억원인데, 이 관광토산품 판매부문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濟州地域經濟에 미친 波及效果는 (表 V-1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 3,215억원, 고용 45,026명, 소득 981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산업부문별로 보면 농림수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52억원, 고용 1,169명, 소득 18억원, 鑛工業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209억원, 고용 647명, 소득 27억원,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2,953억원, 고용 43,210명, 소득 935억원의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表 V-13〉 觀光土産品 販賣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1991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산업부문별	산 출	고 용	소 득
농업	3,741	872	1,340
임업	624	136	247
어업	909	161	257
소계	5,274	1,169	1,844
광업	76	3	10
식·음료품 및 연초	11,816	307	1,327
섬유 및 가죽	1,089	77	140
제재 및 목제품	1,327	53	199
종이·인쇄 및 출판	1,763	62	451
석유화학제품	1,234	45	283
비금속광물제품	2,731	83	286
금속 및 기타제조업	881	17	69
소계	20,917	647	2,765
전력·가스·수도	6,912	55	484
건설업	2,221	113	610
도·소매업	3,953	688	2,960
관광	242,845	40,077	76,271
운수·보관 및 통신	8,364	323	1,496
금융·보험 및 부동산	21,313	1,133	7,601
사회서비스 및 기타	9,755	821	5,624
소계	295,363	43,210	93,550
합계	321,554	45,026	98,159

資料: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⑤ 觀光遊興·慰樂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

1991년 觀光遊興·慰樂部門으로부터 파생된 觀光所得은 197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 관광유흥·위락부문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濟州地域經濟에 미친 波及效果는 (表 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 2,632억원, 고용 36,332명, 소득 814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산업부문별로 보면 1991년 관광유흥·위락부문의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1975억원 증가함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42억원, 고용 958명, 소득 15억원, 광공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171억원, 고용 527명, 소득 20억원,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2,419억원, 고용 34,847명, 소득 778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表 V-14> 觀光遊興·慰樂部門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1991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산 출	고 용	소 득
산업부문별				
농	업	3,065	714	1,098
임	업	511	112	202
어	업	628	132	211
소	계	4,204	958	1,511
광	업	62	2	8
식·음료품 및 연초		9,682	251	1,087
섬유 및 가죽		892	63	115
제재 및 목제품		1,087	43	163
종이·인쇄 및 출판		1,444	50	366
석유화학제품		1,011	36	232
비금속광물제품		2,223	68	234
금속 및 기타제조업		722	14	56
소	계	17,123	527	2,098
전력·가스·수도		5,563	45	397
건설업		1,819	93	499
도·소매업		3,329	563	2,425
관광		198,983	32,839	62,495
운수·보관 및 통신		6,854	264	1,225
금융·보험 및 부동산		17,463	370	6,228
사회서비스 및 기타		7,993	673	4,608
소	계	241,914	34,847	77,877
합	계	263,241	36,332	81,486

資料: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5. 濟州道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의 推定 및 經濟波及效果

지금까지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해 추진되어온 濟州觀光開發事業은 그 開發方向을 道民所得 創出效果 보다는 관광이 가져다주는 國民經濟的 波及效果에 중점을 두어 대규모 관광단지 및 시설을 조성하는데 우선하여 집중투자됨으로써 관광산업은 성장하였으나 투자의 성과인 소득이 地域外로 크게 누출되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관광단지 중심의 개발로 이루어져 자본이 영세한 지역주민, 기업은 개발사업에의 참여기회가 거의 배제되고 外來資本 위주의 개발사업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觀光産業成長으로 유발되는 소득과 고용의 과잉이 지역의 경제순환에 재투입되지 않고 地域外로 유출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濟州道 觀光産業成長에 따라 유발된 所得增大分 가운데 얼마나 域外流出되고, 그 經濟的 波及效果는 어떠한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道民所得 增大를 위한 觀光産業振興方案을 모색함에 있어 해결하여야 할 先決課題가 아닐 수 없다. 濟州道 觀光所得의 域外流出에 따른 地域經濟波及效果를 地域I-O表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濟州道 觀光所得分 가운데 域外流出額을 추정된 결과 (表 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 69억원으로 추계되었다.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의 推定은 觀光所得 發生源別로 觀光産業에 대한 設問調査와 財務構造分析을 통하여 觀光産業別 平均 殘留: 域外流出比率를 구한 다음, 觀光所得增加分을 배분하는 추계방식에 의존하였다. 觀光所得의 域外流出 현황을 産業別로 보면 觀光産業部門으로부터 598. 13억원, 식·음료품 제조업부문 516. 27억원, 농업부문 253. 79억원, 비금속광물제품 221. 13억원, 도·소매업부문 155. 3억원, 섬유 및 가죽제조업부문으로부터 100. 72억원 등으로 비교적 높게 역외유출되고 있다. 이같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은 濟州地域 總 觀光所得의 18. 5%를 점하고 있는데, 이의 원인은 관광호텔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이용하는 원재료를 外地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관광토산품의 경우 육지부에서 가공·제작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또한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의 대부분의 外地人의 소유로 되어 있어 利潤 및 賃金의 상당액이 域外流出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表 V-15〉 濟州道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1991년)
102; (단위: 백만원)

산업부문별	금액	금 액
농업		25,379
임업		1,420
어업		2,589
광업		0
식·음료품 및 연초		51,627
섬유 및 가죽		10,072
제재 및 목제품		7,866
종이·인쇄 및 출판		0
석유화학제품		0
비금속광물제품		22,113
금속 및 기타제조업		154
전력·가스·수도		0
건설업		0
도·소매업		0
관광		15,530
운수·보관 및 통신		59,813
금융·보험 및 부동산		0
사회서비스 및 기타		0
계		196,569

濟州道 觀光所得 域外流出이 濟州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觀光소득 增加分중 域外流出額의 증가에 따른 生産, 雇傭, 所得의 변화를 측정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域外流出額 1965.69억원 감소에 따른 濟州地域 경제전체에 미치는 産出, 雇傭, 所得의 효과는 다음(表 V-16)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濟州道 觀光所得의 域外流出에 따라 유출된 제주지역 總産出額은 觀光所得에 의해 유발 과급된 總生産額 1조 4218억원의 18.4%인 2,616억원 만큼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總雇傭은 總雇傭 19만 8425명 가운데 10.5%인 20,918명, 그리고 總所得은 總所得 4390억원 가운데 12.2%인 537억원이 濟州經濟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보면 農林水産業部門으로부터 산출 449억원, 고용 10,005명, 소득 157억원 만큼 濟州經濟에서 유출되고, 鑛工業部門으로부터 산출 1,101억원, 고용 3,915명, 소득 113원,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부문으로부터 산출 1,065억원, 고용 70명, 소득 257억원이 濟州經濟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觀光所得 發生源別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表 V-16〉 濟州道 觀光所得 地域流出의 經濟波及效果 (1991년)

(단위 : 백만원, 명)

산업부문별	구분	산 출	고 용	소 득
농	업	36,732	8,425	13,055
임	업	5,803	1,395	2,158
어	업	2,417	185	512
소	계	44,952	10,005	15,725
광	업	1,793	70	243
식·음료품 및 연초		53,181	1,552	3,728
섬유 및 가죽		12,749	902	1,644
제재 및 목제품		8,513	343	1,274
종이·인쇄 및 출판		2,281	99	379
석유화학제품		6,365	107	803
비금속광물제품		22,861	779	3,057
금속1차·금속및기계		2,377	63	222
소	계	110,120	3,915	11,350
전력·가스·수도		2,480	20	171
건설업		835	57	228
도·소매업		3,410	533	2,553
관광		18,163	2,952	5,702
운수·보관 및 통신		67,639	2,561	11,912
금융·보험 및 부동산		8,891	472	3,170
사회서비스 및 기타		5,161	403	2,974
소	계	106,579	6,998	26,710
합	계	261,651	20,918	53,785

資料 :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① 觀光宿泊部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 推定 및 經濟波及效果

1991년 제주도 觀光宿泊部門으로 부터 유출된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은 (表 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2.57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관광산업부문으로 부터 99.59억원, 식음료품 제조업부문 8.553억원, 농업부문으로 부터 34.55억원 등에서 대부분 유출되었던 것으로 추계되었다.

관광숙박부문으로 부터의 觀光所得의 域外流出 要因은 고급숙박시설의 대부분이 外地人이 소유하고 있어 숙박부문의 利潤 및 域外雇傭者의 임금의 상당액이 域外로 유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원재료로 이용하는 畜産物, 食飲料品을 육지부에서 직접 구입함으로써 域外流出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觀光宿泊部門으로부터 유출된 觀光所得의 域外流出의 波及效果는 관광소득 增加分 중 域外流出의 증가에 따른 生産, 雇傭, 所得의 변화를 측정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域外流出額 222.59억원 감소에 따른 濟州地域 경제 전체에 미치는 産出, 雇傭, 所得의 감소 효과는 다음(表 V-18)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觀光宿泊部門으로부터 域外流出된 제주지역의 總産出은

〈表 V-17〉 觀光宿泊部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1991년)
(단위: 백만원)

산업부문별	금액	금 액	
		금	액
농	업	3,455	
임	업	17	
어	업	60	
식 · 음료 품 및 연 초		8,550	
섬 유 및 가 죽		67	
제 재 및 가 구		3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79	
기 타 제 조 업		34	
관	광	9,959	
계		22,257	

觀光宿泊部門으로부터 유발, 파급된 總産出 3,554억원의 8.6%인 307억원, 總雇傭은 관광숙박부문의 관광소득에 의하여 유발, 파급된 總雇傭 5만 4550명의 6.5%인 3583명, 總所得은 관광숙박부문으로부터 유발 파급된 總所得 1106억원의 6.7%인 74억원이 濟州經濟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보면 農林水産業部門으로부터 산출 60억원, 고용 1,346명, 소득 21억원 만큼 제주경제에서 유출되고, 鑛工業部門으로부터 산출 111억원, 고용 317명, 소득 9억원, 제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부문으로부터 산출 135억원, 고용 1,909명, 소득 44억원이 濟州經濟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表 V-18〉 觀光宿泊部門 觀光所得 域外流出의 經濟波及效果(1991년)

(단위 : 백만원, 명)

산업부문별	구분	생 산	고 용	소 득
농	업	5,427	1,245	1,929
임	업	332	80	123
어	업	276	21	58
소	계	6,035	1,346	2,110
광	업	11	0	1
식·음료품 및 연초		9,299	271	652
섬유 및 가죽		146	10	18
제재 및 목제품		113	5	17
종이·인쇄 및 출판		344	15	57
석유화학제품		859	14	108
비금속광물제품		109	4	14
금속1차·금속 및 기계		298	8	28
소	계	11,179	327	895
전력·가스·수도		392	3	27
건설업		146	7	40
도·소매업		416	73	812
관광		10,235	1,689	3,214
운수·보관 및 통신		506	20	90
금융·보험 및 부동산		1,246	66	444
사회서비스 및 기타		604	51	348
소	계	13,545	1,909	4,475
합	계	30,759	3,583	7,480

資料 :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② 觀光飲食料部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의 推定 및 經濟波及效果

1991년 제주도 觀光飲食料部門으로 부터 유출된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은 (表 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9.81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식·음료품제조업으로 부터 101.49억원 농업 96억원, 임업으로부터 13억원 등에서 대부분 유출되었던 것으로 추계되었다. 觀光 飲食料部門으로 부터의 域外流出 要因은 食飲料施設에서 原材料를 대부분 外地에서 직접 구매함으로써 食飲料部門 投入 原材料費의 지출에 의하여 域外流出되고 있다.

〈表 V-19〉 觀光食飲料部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 (1991년)

(단위 : 백만원)

산업부문별	금액	
	금	액
농	업	9,600
임	업	1,329
어	업	903
식 · 음료품 및 연초		10,149
계		21,981

濟州道 觀光食飲料部門으로 부터 유출된 觀光所得 域外流出의 波及效果는 域外流出額 219.81억원 감소에 따른 濟州地域 경제전체에 미치는 産出, 雇傭, 所得의 감소효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 (表 V-20)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觀光食飲料部門으로 부터 域外流出된 제주지역의 總産出은 관광식음료부문으로 부터 유발, 파급된 總産出 2677억원의 11.1%인 299억원, 總雇傭은 관광식음료부문으로 부터 유발, 파급된 總雇傭 36,519명의 11.5%인 4,213명, 그리고 總所得은 관광식음료부문으로 부터 유발, 파급된 總所得 807억원의 8.8%인 71억원이 제주 경제에서 域外流出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보면 農林水産部門으로부터 산출 150억원, 고용 3,292명, 소득 52억원 만큼 제주경제에서 유출되고, 鑛工業部門으로 부터 산출 127억원, 고용 363명, 소득 9억원, 제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부문으로부터 산출 22억원, 고용 558명, 소득 9억원이 濟州經濟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表 V-20〉 觀光食飲料部門 觀光所得 域外流出의 經濟波及效果

(단위 : 백만원, 명)

산업부문별	구분	생 산 고 용 소 득		
		생 산	고 용	소 득
농	업	12,148	2,788	4,318
임	업	1,743	419	648
어	업	1,177	90	250
소	계	15,068	3,292	5,216
광	업	3	0	0
식 · 음료품 및 연초		11,113	324	779
섬유 및 가죽		39	3	5
제재 및 목제품		54	2	8

산업부문별 / 구분	생 산	고 용	소 득
종이·인쇄 및 출판	261	11	43
석유화학제품	978	16	123
비금속광물제품	20	1	2
금속1차·금속 및 기계	234	6	22
소 계	12,702	363	982
전력·가스·수도	152	1	10
건설업	119	6	32
도·소매업	381	66	285
관광	277	46	87
운수·보관 및 통신	284	11	50
금융·보험 및 부동산	622	33	222
사회서비스 및 기타	382	32	220
소 계	2,217	558	906
합 계	29,987	4,213	7,104

資料：(식Ⅱ-13), (식Ⅱ-15), (식Ⅱ-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③ 觀光交通部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의 推定 및 經濟波及效果

1991년 濟州道 觀光交通部門으로 부터 유출된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은 (表 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8.13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육지부와의 접근을 위한 항공 및 선박이용에 따른 지출의 유출로서, 이의 요인은 제주관광여행이 대부분 육지부 여행사에 의존되어 있고, 또한 개별여행의 경우도 항공권 구입조건에 따라 관광객이 이미 육지부에서 제주출발 항공 및 선박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表 V-21〉 觀光交通部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1991년)

(단위: 백만원)

산업부문 / 금액	금 액
운수·창고 및 보관	59,813
계	59,813

제주도 觀光交通部門으로 부터 유출된 觀光所得 域外流出의 波及效果는 域外流出額 598.13억원 감소에 따른 濟州地域 경제전체에 미치는 産出, 雇傭, 所得의 감소효과로 알수 있는데, 이는 다음 (表 V-22)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觀光交通部門으로 부터 域外流出된 제주지역의 總産出은 觀光교통부문으로 부터 유발, 파급된 總産出 3611억원의 19.9%인 720억원, 總雇傭은 觀光교통부문으로부터 유발, 파급된 總雇傭 50,282명의 6.2%인 3,135명, 그리고 總所得은 觀光교통부문으로 부터 유발, 파급된 總所得 1110억원의 13.4%인 149억원이 제주경제에서 域外流出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보면 農林水産業部門으로부터 산출 38백만원, 고용

〈表 V-22〉 觀光交通部門 域外流出의 經濟波及效果(1991년)

(단위 : 백만원, 명)

산업부문별	구분	생 산	고 용	소 득
농	업	16	4	5
임	업	21	5	8
어	업	1	0	0
소	계	38	9	13
광	업	4	0	0
식·음료품 및 연초		22	1	1
섬유 및 가죽		139	10	18
제재 및 목제품		38	2	5
종이·인쇄 및 출판		478	21	80
석유화학제품		1,844	31	233
비금속광물제품		30	1	4
금속1차·금속및기계		458	12	43
소	계	3,013	78	384
전력·가스·수도		569	5	39
건설업		174	9	48
도·소매업		896	156	671
관광		715	118	224
운수·보관및통신		63,818	2,464	11,413
금융·보험및부동산		3,502	186	1,249
사회서비스및기타		2,333	197	1,345
소	계	72,007	3,135	14,989
합	계	75,058	3,221	15,386

資料 :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結果

고용 9명, 소득 13백만원, 만큼 제주경제에서 유출되고, 鑛工業部門으로부터 산출 30억원, 고용 78명, 소득 3억8천만원,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부문으로부터 산출 720억원, 고용 3,135명, 소득 149억원이 濟州經濟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④ 觀光土產品販賣部門 觀光所得 域外流出額의 推定 및 經濟波及效果

1991년 제주도 觀光土產品販賣部門으로 부터 유출된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은 (表 V-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3.24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부터 217억원, 섬유 및 가죽 97억원, 목재 및 가구 77억원 등에서 유출되었던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의 域外流出 要因은 濟州道內에서 판매되는 土產品의 많은 量이 육지부에서 加工, 移入된 것을 가지고 관광객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濟州道에서 판매하는 土產品이 濟州의 것이 적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表 V-23〉 觀光土產品販賣部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1991년)

(단위 : 백만원)

산업부문	금액	금	액
농	업	72	
임	업	14	
섬 유	및 가 죽	9,768	
목 재	및 가 구	7,716	
비 금 속	광 물 제 품	21,754	
계		39,324	

제주도 觀光土產品部門으로부터 유출된 觀光所得 域外流出의 波及效果는 域外流出額 393.24 억원 감소에 따른 濟州地域 경제전체에 미치는 産出, 雇傭, 所得의 감소효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表 V-24)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觀光土產品販賣部門으로부터 域外流出된 제주지역의 總産出은 관광토산품판매부문으로 부터 유발, 과급된 總産出 3215억원의 17.2%인 555억원, 總雇傭은 관광토산품판매부문으로 부터 유발, 과급된 總雇傭 45026명의 7.2%인 3,259명, 그리고 總所得은 관광토산품판매부문으로 부터 유발, 과급된 總所得 981억원의 9.7%인 95억원이 제주경제에서 域外流出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보면 農林水産業部門의

〈表 V-24〉 觀光土產品販賣部門 觀光所得 域外流出의 經濟波及效果(1991)

(단위 : 백만원, 명)

산업부문별	구분	생 산 액	고 용	소 득
농	업	204	47	72
임	업	2,838	682	1,056
어	업	2	0	0
소 계		3,044	729	1,128
광	업	1,774	69	238
식·음료품	및 연초	109	3	7
섬 유	및 가 죽	12,042	852	1,554
제 재	및 목 재 품	8,071	324	1,209
종 이·인쇄·출판		476	21	79
석 유 화 학 제 품		801	14	101

산업부문별 구분	생 산	고 용	소 득
비금속광물제품	22,369	762	2,997
금속1차·금속및기계	719	19	67
소 계	46,361	2,064	6,252
전력·가스·수도	828	7	58
건설업	151	8	41
도·소매업	728	127	545
관광	655	108	205
운수·보관및통신	1,247	48	223
금융·보험및부동산	1,737	92	619
사회서비스및기타	906	76	522
소 계	6,252	466	2,213
합 계	55,657	3,259	9,593

資料: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로부터 산출 30억원, 고용 729명, 소득 11억원 만큼 제주경제에서 유출되고, 鑛工業部門으로부터 산출 463억원, 고용 2,064명, 소득 62억원, 제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부문으로부터 산출 62억원, 고용 466명, 소득 22억원이 濟州經濟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⑤ 觀光遊興·慰樂部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의 推定 및 經濟波及效果

1991년 제주도 觀光遊興·慰樂部門으로부터 유출된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은 (表 V-25)에서

〈表 V-25〉 觀光遊興·慰樂部門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1991년)

(단위: 백만원)

산업부문별	금액	금 액
농업	업	12,252
임업	업	60
어업	업	212
식음료품 및 연초		30,330
섬유 및 가죽		237
목재 및 가구		117
비금속광물제품		280
기타 제조업		120
관광	광	5,571
계		49,179

보는 바와 같이 491.79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식·음료 및 연초 부터 303억원, 농업 122억원, 관광 55억원,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부터 2억원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의 流出要因은 음식 및 위락시설의 경우 구입을 상당부분 外地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外地生活者가 부분적으로 고용되어 있어 賃金の 상당액이 域外 유출됨으로써 나타난 결과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제주도 觀光遊興·慰樂部門으로 부터 유출된 觀光所得 域外流出의 波及効果는 역외유출액 491.79억원 감소에 따른 濟州地域 경제전체에 미치는 産出, 雇傭, 所得의 감소효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表 V-26)과 같다

〈表 V-26〉 觀光遊興·慰樂部門 觀光所得 域外流出의 經濟波及效果(1991년)

(단위: 백만원, 명)

산업부문별	구분	생 산	고 용	소 득
농	업	18,937	4,346	6,731
임	업	869	209	323
어	업	961	74	204
소	계	20,767	4,629	7,258
광	업	31	1	4
식·음료품 및 연초		32,638	953	2,289
섬유 및 가죽		383	27	49
제재 및 목제품		237	10	35
종이·인쇄 및 출판		722	31	120
석유화학제품		1,883	32	238
비금속광물제품		333	11	44
금속1차·금속 및 기계		668	18	62
소	계	36,895	1,083	2,841
전력·가스·수도		539	4	37
건설업		245	13	67
도·소매업		989	172	740
관광		6,281	1,037	1,972
운수·보관 및 통신		761	29	136
금융·보험 및 부동산		1,784	95	636
사회서비스 및 기타		936	79	539
소	계	11,535	1,429	4,127
합	계	69,197	7,141	14,226

資料: (식II-13), (식II-15), (식II-17)에 의한 推計의 결과

이 표에 의하면 觀光遊興·慰樂部門으로부터 域外流出된 제주지역의 總產出은 관광유흥·위락부
 문으로부터 유발, 파급된 總產出 2,632억원의 26.2%인 691억원, 總雇傭은 관광유흥·위락부
 문으로부터 유발, 파급된 總雇傭 36,332명의 19.6%인 7,149명, 그리고 總所得은 관광유흥·위락
 부문으로부터 유발, 파급된 總所得 814억원의 17.4%인 142억원이 제주경제에서 域外流出된 것으
 로 추계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보면 農林水産業部門으로부터 산출 207억원, 고용 4,629명,
 소득 72억원, 만큼 제주경제에서 유출되고, 鑛工業部門으로 부터 산출 368억원, 고용 1,083명,
 소득 28억원, 제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부문으로부터 산출 115억원, 고용 1,429명, 소득 41억원이
 濟州經濟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VI.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濟州道 觀光所得을 추계하여 濟州經濟에 미치는 生産, 雇傭, 所得의 效果를 분석하
 여 보았다.

以下에서는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效果分析에 따른 研究結果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分析結
 果에 근거하여 몇가지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地域經濟效果分析모델의 選擇

地域經濟效果를 분석하는 模型은 經濟基盤分析, 變化-割當分析模型, 地域經濟計量模型 및
 地域産業聯關模型이 있는데 경제기반모형, 變化-할당 분석모형과 지역경제계량모형은 주로 총량
 적 변화의 측정만 가능한 분석방법이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은 總量的 變化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간
 상호의존효과 분석까지도 가능케 한다. 특히 지역산업연관모형은 特定産業의 地域經濟全體에 미
 치는 產出, 雇傭, 所得의 效果를 分析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聯關關係도 동시에
 파악케 해준다는 점에서 本 研究의 目的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케 해줄 수 있어 本 연구를
 위한 最適의 分析道具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은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를 생산, 고용, 소득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분석케 하는데 매우 적합하다는 점에서
 경제효과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으로 선택하였다.

2. 濟州道 觀光動向 및 觀光產業의 現況

1) 濟州道の 觀光動向

제주도 관광은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16%의 높은 觀光客 增加率을 나타내어 1991년말 현재 320만명의 內·外國人 觀光객을 유치하였다. 觀光客의 現況을 旅行形態別로 살펴보면 개인 및 기타가 전체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47.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일반단체 20.3%, 신혼부부 16.7%, 외국인 8.6%, 그리고 수학여행 7.2%의 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수학여행 觀光客 수가 다른 형태의 觀光客 수보다 전체적인 비중은 적지만 과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觀光객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1991년 말 현재 일본인 觀光객이 전체의 66.1%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서 대만 14.4%, 교포 8.8%, 홍콩 5.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濟州道觀光產業의 現況

제주도 觀光產業의 現況을 보면 宿泊業의 경우 규모면에서 매년 증가하여 1990년말 현재 618개 업체 13,682실로 증가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觀光호텔업을 포함한 觀光宿泊業이 31개 업체에 4,073실(19.8%), 일반호텔이 65개 업체에 2,602실(19.0%), 여관이 286개 업체에 4,726실(34.5%), 그리고 여인숙이 236개 업체에 2,281실(16.7%)로써 고급숙박시설과 저급숙박 시설간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交通業인 경우 1990년말 현재 63개 업체에 면허대수 4,312대의 차량이 갖춰져 있는데, 그 중 전세버스가 421대, 렌트카 773대, 그리고 개인택시 등이 觀光客 輸送能力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旅行業은 1991년말 현재 濟州道에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이 11개 업체, 국외여행업이 8개 업체, 그리고 국내여행업이 56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은 1991년 말 현재 專門休養業 4개업체, 골프장업 3개업체, 관광유람선업 3개업체, 카지노 5개업체, 관광사진업 18개 업체, 비디오 촬영법 28개 업체, 사설관광지 9개 업체, 승마장 15개 업체 등이 있으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 增加趨勢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觀光飲食業은 1990년말 현재 11개소로 觀光飲食店業이 3개소, 一般觀光食堂業 4개소, 一般食堂業 4개소가 등록하거나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관광기념품 판매업은 1990년말 현재 총 166개 업소가 있고, 業種別로는 내국인기념품판매업이 143개 업체로 전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이 10개 업체, 면세점 5개 업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3. 濟州道 觀光客의 性向分析 및 觀光産業의 實態分析

1) 來道觀光客의 性向 및 觀光費用分析

가. 內國人 觀光客의 觀光性向分析

濟州道를 訪問한 內國人觀光客의 觀光目的을 살펴 보면 관광 79.9%, 방문 9.1%, 공무 3.9%, 상용 3.2%, 기타 3.1% 그리고 종교·문화 0.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旅行動機는 지난 번 여행, 친지권유, 언론매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旅行期間은 2박3일이 46.4%, 3박 4일 27.6%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2박에서 3박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내 利用交通手段은 관광버스 31.9%, 택시 28.3%, 시내·외버스 17.7%, 임대승용차 13.4%, 자가용 7.5%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여행인 경우는 택시와 시내·외버스를, 신혼여행은 택시와 관광버스,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인 경우는 관광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利用宿泊施設은 개인여행의 경우 호텔, 여관, 친구·친척집,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은 호텔과 여관이 85.0% 이상이 숙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신혼여행의 경우는 92.7%가 호텔에서 숙박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급숙박시설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다. 利用施設 또는 商品의 狀態에서는 飲食店과 기념품점의 경우 나쁘다는 응답이 각각 26.9%와 35.6%로 나타나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경우도 음식점의 경우가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24.0%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가격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제주도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는 해안경관 79.4%, 한라산이 7.4%로 응답하고 있어 해안경관과 한라산에 대한 인상이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觀光客이 제주도 旅行中 參加한 活動으로는 도시관광에서 목장·승마장까지 주로 10가지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관광 20.7%, 등산 19.7%, 나이트클럽 10.9% 순이다. 濟州道 旅行 중의 不滿으로는 從事員 불친절, 觀光記念品 價格, 交通網 미흡, 宿泊施設 부족, 택시기사 불친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방문 후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7.9%, 만족 35.2%, 보통 44.3%, 실망 8.8%, 매우 실망 3.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 外國人 觀光客의 觀光性向分析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목적은 93.4%가 관광으로 나타나고 있다. 旅行動機로는 친지권유가 55.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론매체 17.5%, 기타 11.8%, 호

텔·여행사의 광고 5.7% 순이다. 旅行期間은 2박3일이 69.0%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이밖에 3박4일 23.5%, 1박 2일 5.6%, 1일과 4박 5일이 각각 0.9%로 나타나고 있다.

濟州道內 利用交通手段은 개인여행에서는 택시를, 신혼여행과 단체여행인 경우는 관광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利用施設 또는 商品의 상태는 음식점과 교통시설, 기념품점이 비교적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서어비스에 있어서는 음식점과 기념품점에서 나쁘다는 응답이 각각 9.9% 15.5%로 나타났다. 가격수준의 경우도 음식점과 기념품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으로는 해안 경관, 기암과 폭포, 제주고유의 풍습과 관습, 한라산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행중 참여한 활동으로는 실내사격 43.5%, 사냥 14.8%, 골프 13.9% 등으로 이들 활동에 72.2%의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 여행 중에 불편했던 점으로는 위락시설 부족 26.0%, 종사원 불친절 15.1%, 비싼 觀光記念品價格 13.7%, 택시기사 불친절 13.0%, 안내소 부족 9.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방문 후의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內·外國人 觀光客의 觀光費用分析

제주도를 여행하는 內國人 觀光客들은 숙박비 68,345원, 식음료비 44,773원, 육상 교통비 41,591원, 기념품 구입비 39,053원, 기타 잡비 39,736원 등 233,498원을 1인당 관광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1인당 관광비용 지출범위에 있어서는 11~20만원 28.1%, 21~31만원 24.4%, 31~40만원 15.9%, 51만원 이상 13.4% 41~50만원 12.8%, 10만원 미만 5.4% 등의 순을 차지함으로써 다양한 비용지출 분포를 보이고 있다.

外國人 觀光客들은 숙박비 223,803원, 식음료비 210,141원, 육상 교통비 88,732원, 기념품 구입비 29,617원, 기타잡비 303,662원 등 1인당 855,955원을 관광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관광비용 지출범위는 120~180만원 4.2%, 60~120만원 37.6%, 180~240만원 4.2%, 300만원 이상 1.2%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대부분의 外國人 觀光客들은 60~180만원의 금액을 제주관광에서 지출하고 있다.

2) 觀光産業의 實態分析

濟州道の 觀光産業은 지난 20여년간 量的, 質的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관광업체의 地域別分布는 대체로 교통이 편리하고 편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조사대상업체 중 76.4%가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남·북제주군에서는 각각 5.6%와 3.1%밖에 분포하고 있지 않아 道内 地域間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設立年度別로 보면 1984년 이후 설립된 업체가 전체의 72.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濟州道内 觀光業體의 자본규모는 5억원 이하가 69.5%를 차지하여 아직도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자본조달방법은 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觀光業體들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고 있고, 이어서 담보부족, 이자비용 과다 등을 들고 있다.

道内 觀光業體의 고용 현황은 5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구조면에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勤務期間別 실태는 2년 미만의 經歷을 가진 종업원이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도내 관광종사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종업원의 경력은 전체의 81.7%가 고졸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전체 업체 중 51.4%가 연간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道内 觀光業體의 판매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月別로는 대체로 성수기인 3-5월에 매출구성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대금의 회수형태는 대부분의 업체가 현금 판매가 하고 있으나 어음판매가 외상판매도 20.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촉진활동은 제주도내 관광업체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주로 판매촉진, 홍보, 광고, 인적 판매의 순으로 골고루 이용하고 있다.

향후 영업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업체의 56.8%가 신규 투자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현상유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된 활동은 종업원 교육훈련, 촉진활동 강화, 고객 사후관리, 시설확장 및 개선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경영상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과당경쟁을 전체의 63.3%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외에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濟州道の 관광산업에 대한 향후 발전전망에 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전체 응답업체의 17.9%에 불과하여 관광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강구된다면 제주도 관광산업은 장차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效果分析

1) 地域産業聯關模型을 이용한 地域經濟效果 分析

濟州道 觀光所得의 地域經濟效果 分析을 위한 地域産業聯關模型은 開放, 單一地域, 靜態産業聯關模型으로서 그 效果分析을 위한 地域産業聯關模型의 작성에 따른 실제상의 方法과 節次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非調查地域産業聯關模型의 작성을 위한 地域技術係數의 추계는 이용가능한 통계 및 분석자료가 1986년도에 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6년 전국산업연관표의 세분된 全國技術係數(161×161)를 지역의 雇傭量을 加重值로 하여 18개 地域産業部門으로 통합하여 非競爭輸入을 조정하였다. 競爭輸入에 따른 地域技術係數의 재수정이 供給需要「플」法을 통하여 조정되었다. 또한 제주지역의 산업별 생산액과 최종수요의 산출도 대부분 1986년 全國産業聯關表를 이용하여 間接推計方法에 의하여 추계되었다.

이상과 같이 작성된 제주지역산업연관표에 의하면 1986년 제주지역 總生産額은 1조 8,719억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觀光産業의 생산액은 2,678억원으로 지역전체 생산액의 14.3%를 차지하고 있고, 附加價値는 지역 전체 總附加價値 가운데 13.6%를 차지하고 있다. 觀光産業의 需給構造를 보면 總生産額 가운데 中間需要에 0.7% 最終需要에 94.3% 배분되고 있으며, 投入면에서는 中間投入率 31.9%로 나타났다.

2) 濟州道 觀光所得의 推計

濟州道는 지금까지 觀光所得을 추계함에 있어 1987년 1인당 觀光消費支出額을 표본조사에 의하여 추계한 다음, 物價上昇率을 고려하여 당해년도의 觀光客數를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 추계하여 왔는데, 이 추계방식은 관광객의 旅行形態에 따라 1인당 消費支出水準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旅行形態別로 1인당 觀光支出額을 추계하여 濟州訪問 觀光客을 유형화한 다음 加重值를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개선된 推計方式에 의해 추계된 濟州道 觀光所得은 1조 602억원으로서 國內觀光客에 의한 觀光所得은 7,936억원, 國際觀光客에 의한 觀光所得은 2,665억원으로 나타났다.

3) 濟州道 觀光産業의 乘數 및 産業聯關效果 分析

乘數效果와 産業聯關效果 分析을 통해 觀光産業의 成長潛在力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산출승수

는 1,3412로서 고용승수 및 소득승수는 각각 1,1192, 1,2554로서 제주경제내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효과 분석에서는 전방연관효과의 경우 0.9011로서 제주경제내 전산업 평균보다 낮으나 후방연관효과는 1.0180로서 전산업 평균보다 미소하게나마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濟州地域開發이 觀光主導型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地域既存産業에의 波及効果는 別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觀光産業 成長 중심으로 끝나고 있는데 앞으로 觀光産業의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발전략이 濟州開發의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 濟州道 觀光所得의 經濟波及效果 分析

제주도 觀光所得의 濟州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1991년 濟州道 訪問觀光客이 지출한 觀光所得이 1조 602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의 최종수요가 濟州地域 경제전체에 미치는 產出, 雇傭, 所得의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觀光所得에 의하여 유발된 제주지역 總產出額은 1조 4218억원이고, 總雇傭은 19만 8425명, 總所得은 4,390억원이 유발하여 濟州經濟에 파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觀光所得 發生源別로 보면 觀光宿泊部門으로부터 파생된 觀光所得은 2,671억원인데, 이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출 3,554억원, 고용 56,550명 소득 1,106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觀光飲食料部門으로부터 파생된 觀光所得은 1,952.96억원인데, 이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출 2,677억원, 고용 35,619명, 소득 807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觀光交通部門으로부터 파생된 관광소득은 2,683.41억원인데, 이 관광교통부문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濟州經濟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출 3,611억원, 고용 50,282명, 소득 1,110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觀光土産品部門으로부터 파생된 관광소득은 1,218억원인데, 이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출 3,215억원, 고용 45,026명, 소득 981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觀光遊興·慰樂部門의 파생된 관광소득은 1975.5억원인데, 이 관광소득인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출 2,632억원, 고용 36,332명, 소득 814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계되었다.

5) 濟州道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의 推定 및 經濟波及效果

제주도 관광소득의 域外流出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를 地域I-O表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도 觀光所得分 가운데 域外流出額은 196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 域外流出의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역외유출액 1965억원 감소에 따른 제주경제 전체에 미치는 산출, 고용, 소득의 효과를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분석의 결과 제주경제내 總產出 2,616억원, 總雇傭 2,918명, 總所得 537억원이 제주경제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관광소득증가에 의하여 유발, 파급된 제주경제의 總產出, 雇傭, 所得 가운데 산출면에서는 18.4%, 고용 10.5%, 소득 12.2% 만큼 제주 경제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觀光所得 發生源別로 보면 觀光宿泊部門으로부터 유출된 觀光所得의 域外流出額은 222.57억원인데, 이 域外流出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출 307억원, 고용 3583명, 소득 74억원이 제주경제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觀光食飲料部門으로부터 유출된 관광소득의 域外流出額은 219.81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 域外流出이 제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299억원, 고용 4,213명, 소득 71억원이 제주경제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觀光交通部門으로부터 유출된 觀光소득의 域外流出額은 598.13억원인데, 이 역외유출이 제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720억원, 고용 3,235명, 소득 149억원이 제주경제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觀光土產品販賣部門으로부터 유출된 관광소득의 域外流出額은 393.24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 역외유출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출 556억원, 고용 3,259명, 소득 95억원이 제주경제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觀光遊興·慰樂部門으로부터 유출된 관광소득의 域外流出額은 491.79억원인데, 이 역외유출이 제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산출 691억원, 고용 7,149명, 소득 142억원이 제주경제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分析結果에서 보면 濟州道 觀光所得의 증대는 觀光所得의 증대는 觀光産業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直接的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과 間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에 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제주경제내 生産, 雇傭, 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觀光産業의 진흥은 濟州經濟內 基本産業으로서 基盤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道民所得增大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관광산업성장으로 유발되는 생산, 고용과 소득의 波及이 제주지역경제순환에 재투입되지 않고 濟州地域外로 유출됨으로써 나타나는 濟州觀光所得의 域外流出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제

주지역경제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관광소득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과급효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의 대부분이 육지부로 유출되어 버린다면 제주지역 자체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할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제주관광소득의 域外流出 요인은 관광호텔,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사용하는 원재료를 직접 육지부에서 구입하거나, 토산품판매업의 경우 육지부에서 가공, 제작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의 소유자가 대부분 外地人이어서 利潤 및 貨金의 상당액이 육지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제주도 관광소득의 分配過程을 통해 濟州道外로 域外유출되는 比率을 보면 觀光所得 發生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면 관광소득의 濟州道內 殘留比率을 높일 수 있는지, 그 方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요약컨대 제주도 관광소득의 잔류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① 관광호텔, 관광식당 및 관광위락시설의 濟州道産 농·축산물의 이용체제 강화
- ② 濟州道産 土産品의 개발, 육성
- ③ 관광호텔 및 관광위락시설에 대한 地域資本의 참여 확대 및 濟州道民의 고용기회 증대
- ④ 제주지역 旅行業의 資本擴充 및 競爭力 強化